

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Arts Change the World

2019. 5.



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 2019 . 05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2019년 05월 인쇄  
2019년 05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전화 061-900-2100, 2200  
팩스 061-900-2362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 2019. 05

##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05월 22일

주관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양 정 무(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한국예술연구소장)

공동연구원 : 고 용 수(한국예술연구소 일반연구원)

연 구 원 : 김 현 주(고려대학교 영상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신 아 란(한국예술연구소 일반연구원)

연 구 자 문 : 김 준 기(전) 제주도립미술관장

이 임 수(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

서 상 호(오픈스페이스배 대표)

안 소 현(아트 스페이스 풀 디렉터)

박 기 현(인스턴트루프 독립 큐레이터)

윤 율 리(아카이브 봄 디렉터)



# 목 차

<b>제1장</b>	<b>서론</b>	14
	제1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 연구범위와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b>제2장</b>	<b>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분석</b>	22
	제1절 : 선행 연구 분석	23
	1.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23
	2. 신생공간 관련 선행 연구	30
	3.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36
	제2절 : 소결	45
<b>제3장</b>	<b>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b>	47
	제1절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	48
	제2절 :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52
	제3절 : 소결	56
<b>제4장</b>	<b>비영리 전시공간의 최근 동향 분석</b>	58
	제1절 : 최근 동향 분석	59
	제2절 : 소결	66
<b>제5장</b>	<b>비영리 전시공간 현황 분석</b>	68
	제1절 : 모집단 수집 경로 및 방법	69
	제2절 : 실태조사 개요	76
	1. 기초조사 개요	76

2. FGI 조사 개요	79
제3절 : 실태조사 현황 분석	83
1. 일반현황 분석	83
2. 기초조사 현황 분석	87
3. FGI 조사 현황 분석	113
제4절 : 소결	155
<b>제6장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사업 분석과 비교</b>	161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 공간 지원사업 분석	162
제2절 : 서울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	169
제3절 : 지역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	179
제4절: 소결	185
<b>제7장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b>	188
제1절 : 연구 내용 정리	189
제2절 : 정책적 제언	196
<b>[부록1] 기초조사 설문지</b>	211
<b>[부록2] FGI 조사 설문지</b>	218
<b>참고문헌</b>	237

## <표 차례>

<표 1>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	53
<표 2>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세부 범위 .....	54
<표 3>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세부 범위 .....	55
<표 4> 신생공간의 변화 .....	61
<표 5>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	73
<표 6>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	74
<표 7>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	75
<표 8> 기초조사 지역별 표본 구성 (단위: 개) .....	76
<표 9> FGI조사 지역별 표본 구성 (단위: 개) .....	79
<표 10> 연도별 지역별 비영리 전시공간의 설립 수 (단위: 개) .....	84
<표 11>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높은 비중 3순위 (단위: 건) .....	114
<표 12>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	139
<표 13>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	141
<표 14>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	142
<표 15>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단위: 건) .....	145
<표 16> 운영 재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최근 3개년(2016년 ~ 2018년) (단위: 건) .....	148
<표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공모 안내(2016년 ~ 2018년) .....	164
<표 18>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17년 ~ 2018년) .....	171
<표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비교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78
<표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서울시 제외) 지원사업 현황 비교 (2016년 ~ 2018년) .....	180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서울시 제외) 지원사업 동시 수혜 현황 (2016 년 ~ 2018년) (단위: 개, 년) .....	181
<표 22>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2016년 ~ 2018년) .....	181
<표 2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 .....	182
<표 24> 2017년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	182
<표 25> 2017년 부산문화재단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	182
<표 26>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2016년 ~ 2018년) .....	183

<표 27>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조정의 예시 .....199

## <그림 차례>

<그림 1>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 및 범위 정립 방법 .....20

<그림 2>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53

<그림 3> 기초조사 설문조사 설계의 단계 .....77

<그림 4> 연도별 비영리 전시공간 설립 수 (단위: 개) .....85

<그림 5> 전국 104곳 비영리 전시공간의 분포 (2019년 3월 현재) .....85

<그림 6> 1999년 ~ 2009년 설립 비영리 전시공간 17곳의 전국 분포 .....86

<그림 7> 2010년 ~ 2018년 설립 비영리 전시공간 87곳의 전국 분포 .....86

<그림 8>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 (단위: 개) .....87

<그림 9> 전시공간의 비영리적 성격 .....89

<그림 10> 전시공간의 비영리성 중 가장 중요한 점 (단위: 개) .....90

<그림 11> 비영리 전시공간과 다른 성격 (단위: 개) .....91

<그림 12> 사업자 등록의 유무 (단위: 개) .....92

<그림 13> 등록된 사업자의 유형 (단위: 개) .....93

<그림 14> 전시공간의 형태 (단위: 개) .....94

<그림 15> 공간의 대표자 연령대 (단위: 개) .....95

<그림 16> 급여를 받는 총 인력 (단위: 개) .....95

<그림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인지 유무 (단위: 개) .....96

<그림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이력 (단위: 개) .....97

<그림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선정 및 사업 수행 경험 (단위: 개) .....98

<그림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지원 이력 (단위: 개) .....99

<그림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경험 (단위: 개) .....100

<그림 22> 공간 운영의 어려움 (단위: 건) .....101

〈그림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방식 (단위: 건) .....	106
〈그림 24〉 사업자 등록의 업종 형태 (단위: 건) .....	113
〈그림 25〉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단위: 건) .....	114
〈그림 26〉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 (단위: 건) .....	116
〈그림 27〉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 비용 (단위: 개, 만 원) .....	119
〈그림 28〉 전시공간의 이전 유무 (단위: 개) .....	120
〈그림 29〉 전시공간의 이전 사유 (단위: 건) .....	121
〈그림 30〉 연 평균 자체 기획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	122
〈그림 31〉 자체 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 (단위: 개, 만 원) .....	123
〈그림 32〉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	124
〈그림 33〉 연 평균 유료 대관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	125
〈그림 34〉 연 평균 공동 및 협업 기획전 횟수 (단위: 개, 회) .....	126
〈그림 35〉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의 대상 (단위: 건) .....	127
〈그림 36〉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의 연 평균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	127
〈그림 37〉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 연 평균 발행 횟수 (단위: 개, 회) .....	128
〈그림 38〉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 연 평균 횟수 (단위: 개, 회) .....	129
〈그림 39〉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대상 (단위: 건) .....	130
〈그림 40〉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내용 (단위: 건) .....	130
〈그림 41〉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목적 (단위: 건) .....	131
〈그림 42〉 연관 기관일 구성 (단위: 건) .....	133
〈그림 43〉 평균 개관 시간 중 여는 시간 (단위: 개, 시) .....	134
〈그림 44〉 평균 개관 시간 중 닫는 시간 (단위: 개, 시) .....	134
〈그림 45〉 일평균 관람인원 (단위: 개, 명) .....	135
〈그림 46〉 전시 1회당 평균 관람인원 (단위: 개, 명) .....	136
〈그림 47〉 운영조직의 구성 (단위: 건) .....	137
〈그림 48〉 전시공간의 총 인력 수 (단위: 개, 명) .....	138
〈그림 49〉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	139
〈그림 50〉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	140
〈그림 51〉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	142
〈그림 52〉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 (단위: 건) .....	143
〈그림 53〉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단위: 건) .....	145

〈그림 54〉 고유번호증 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운영 재원 중 수입 항목 비교 (단위: 건) .....	147
〈그림 55〉 운영 재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단위: 건) .....	148
〈그림 56〉 전시공간 운영의 지출 부분에 어려운 점 (단위: 건) .....	149
〈그림 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 (단위: 건) .....	152
〈그림 58〉 지원 규모당 지원 결정 금액의 공간 분포 (2016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66
〈그림 59〉 지역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수 (2016년 ~ 2018년) (단위: 개) .....	167
〈그림 60〉 연도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수 (2016년 ~ 2018년) (단위: 개) .....	168
〈그림 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총 지원 금액 별 선정 공간의 분포 (2016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69
〈그림 6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공간 장르별 지원금액 분포 (2017년 ~ 2018년) (단위: 원) .....	173
〈그림 6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연도별 지원 금액별 선정 공간 수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74
〈그림 64〉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별 선정 공간 수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74
〈그림 6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지원 공간별 지원 유형별 수혜 (2017년 ~ 2018년) (단위: 개) .....	175
〈그림 66〉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총 지원 금액별 선정 공간의 분포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	176
〈그림 67〉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유형의 확대 방향 .....	201

# 제1장

---

## 서론

### 제1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 제2절 :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동시대 한국미술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은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자 실험의 장을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며, 미술관과 함께 시각예술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비영리 전시공간은 창작자와 작품, 전시 기획자, 비평가, 향유자가 만나는 점점 지대로서 동시대 미술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은 서구에서 1960년대 말 미국의 뉴욕에서 태동한 대안공간(Alternative Space)이 대표적이지만, 유럽 및 아시아 등 각각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해 왔으며 비영리의 개념과 범위는 지역과 시대적 변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 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 IMF 시기에 출현한 ‘대안공간 1세대’ 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출현과 소멸을 반복하는 ‘신생공간’, 나아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각예술을 포함하는 장르 융복합 전시와 공연,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공간까지 다양화되고 있음.
  - 1999년에 탄생한 국내 초기의 대안공간들은 제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젊은 작가를 위한 공간이자 현대미술의 확장을 보여주는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과 이벤트 등 문화적 근거지로 기능했음. 2002년 ‘대안공간네트워크’ 는 대안공간들의 어려움을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고, 이후 2005년 (사)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가 출범하며 대안공간의 연대와 교류가 활성화 됨. ((사) 문화사회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 2015년을 기점으로 1980-1990년대 출생 젊은 작가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신생공간’ 이 탄생하면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유형 및 범위도 다양해짐.
  - 서울 집중의 시각예술 활동의 보완적 활동으로 지역 예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저점 네트워크 공간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시각예술 활동에서 확장된 다원예술적 실험을 위한 복합문화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간 성격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지는 추세임.
- 예술 창작과 전시 활동 중심의 공간 역할 설정에서 예술 활동 향유를 넘어 점차 예술 활동 공유 개념으로의 인식이 발생하면서 활동 주체와 대상에 대한 공간 정체

성과 활동 범위에 대한 제고가 확대되고 있음.

- 비영리 전시공간은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공공자금이 투입된 공간으로 확대되어감에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분석 역시 관련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이 요구되는 바임.
  - 『2018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도서관법」 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진흥법」 상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실태조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범주화 되어 있지 않은 비영리 전시공간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여부, 운영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전국의 작은미술관 사업의 경우 필요성에 따라 생성되었으나 운영 계약 종료로 인해 공간이 방치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함.
- 예술 향유층 확산에 따른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가 비영리 전시공간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점 공간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이한 인식과 접근으로 인해 단발성에 그치거나 지자체의 실적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함에 따라 거점 공간의 자체적인 철학과 동력을 지속 가능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범위 정립은 실질적인 지원과 장기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창작자 및 기획자, 운영자 지원의 측면에서 창작 기반 마련, 운영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각예술 향유 문화 조성의 측면에서 향유의 격차 해소 방안 마련과 문화 기반 시설 조성 및 안정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원 정책의 방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2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에 앞서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를 관행적으로 범주화된 대안공간, 신생공간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더해 시간적, 발생적 의미가 강한 대안공간, 신생공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공간,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공간, 도시재생 및 유희 공간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다원예술적 활동 공간을 묶어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나누어 역사, 개념, 논쟁 등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에 앞서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2016년에서 2019년 4월에 이르는 최근 비영리 전시공간의 동향을 구체적인 전시,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제5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실태조사에 나타난 주요 시사점을 살펴봄.
  - 제6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사업을 분석하고자 함. 먼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국내의 유사 사업 사례와 비교하고자 함.
  - 제7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선행연구 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과 범위 정립, 최근 동향 분석, 실태조사 현황 분석 결과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유사 지원사업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영리 전시공간의 역할 확산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함. 그 다음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역할 강화 2) 현행의 지원사업 개선(안), 3) 비영리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비 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4) 비영리 전시공간 기획 인력 재교육, 5) 시각예술 분야 관련 정책 연계, 6)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기적 정책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 프로그램 개발, 현장 전문가의 공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영리 전시공간 활성화와 시각예술 창작, 비평, 공간 네트워크, 향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국내외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 연속 간행물, 신문 기사, 온라인 시각예술 홍보 플랫폼, 전시 도록 등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
  - 비영리 단체, 비영리 전시공간, 대안공간, 공유 개념 등 관련 문헌
- 비영리 전시공간의 최근 동향 분석
  - 시간적 범위: 2016년 ~ 2019년 4월
  - 분석 대상
    - 국내 시각예술 홍보 플랫폼 자료
    - 국내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전시 도록 및 웹 사이트
    - 연속 간행물, 신문 기사 등
    - 국내 시각예술 관련 행사 자료
- 비영리 전시공간 현황 분석
  - 모집단 조사 시점: 2018년 10월 ~ 12월
  - 설문 조사 시점: 2019년 1월 ~ 2월
  - 연구 대상: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
  - 연구 대상 제외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
    -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 (단, 그중 비영리 전시공간의 성격이 있는 경우는 포함)
    - 국공립 미술관(기관) 운영(부설) 창작스튜디오
    - 온라인 플랫폼 및 웹 갤러리 등
  - FGI 대상: 총 47명(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현장 전문가 6명,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 41명)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사업 분석과 비교

- 시간적 범위: 2016년 ~ 2018년
- 분석 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 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 전국 시도 광역시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분석 대상
    - 비영리 전시공간 기초 실태조사 및 FGI
    - 비영리 전시공간 방문 인터뷰지 주요 내용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지원사업 관련 정책 자료

## 2. 연구의 방법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과 실태조사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대안공간, 신생공간,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여 개념, 역사, 주요 쟁점들을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연속간행물 등을 통해 분석함.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
  -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개념과 범위 도출
  - 실태조사의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들의 인식 조사

〈그림 1〉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 및 범위 정립 방법



□ 비영리 전시공간의 최근 동향 분석

- 2016년 ~ 2019년 4월 최신의 비영리 전시공간 동향을 분석함.

□ 비영리 전시공간 현황 분석

- (1단계)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의 모집단 선정을 위한 목록화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학술연구서
  - 비영리 전시공간 전시 활동 이력,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이력, 미술행사 참여 이력 등을 바탕으로 목록화
- (2단계) 현장 전문가 FGI를 통한 비영리 전시공간 범위 정립 및 목록화
- (3단계) 설문조사지 설계(폐쇄형 및 개방형 혼합) 및 설문 실시
- (4단계) 주요 비영리 전시공간 현장 실사 및 운영진 FGI
- (5단계) 결과 분석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사업 분석과 비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2016년~2018년) 공모 안내 및 선정 결과 분석
- 비영리 전시공간 유사 지원사업인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2017

년~2018년) 공모 안내 및 선정 결과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비교

- 서울시 제외 지역문화재단의 유사 지원사업 공모 안내 및 주요 내용 분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과 비교

□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정책적 제언에 앞서 연구 내용을 정리함.
- 선행연구 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과 범위 정립, 최근 동향 분석, 실태조사 현황 분석과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유사 지원사업 비교 분석에 근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제언
  -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 중심으로 다수의 입장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실행 가능한 의견을 선별
  - 해외의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지원사업 방향의 참조점 마련

## 제2장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제1절 : 선행 연구 분석

1.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 1) 국내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 2) 해외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2. 신생공간 관련 선행 연구
3.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제2절 : 소결

##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 1.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 1) 국내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 □ 대안공간의 의미

- 전시공간의 최소한의 준거지점으로서의 비영리성을 표방하며, 비주류 예술활동을 벌이고, ‘제도 바깥’에 관심을 기울이며, ‘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는 공간임. ((사) 문화사회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 2007년 대안공간의 개념에서 이후 대안공간 활동의 흐름에 따라 몇 가지 의미 변화와 쟁점이 포착됨.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음.
  - ‘비영리’ 전시공간에서의 비영리성에 대한 범위의 모호함
  - ‘비주류’ 예술활동에서의 주류/비주류의 구분의 문제
  - ‘제도 바깥’이라는 안/밖의 설정
  - ‘중심’ 아닌 ‘지역’이라는 쟁점
- 이와 같은 대안공간의 개념 설정은 1세대, 2세대 대안공간의 역사를 경유하며 대안공간 개념이 정초한 초기의 ‘대안’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보완, 내파하는 과정을 거치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왔음. 신진작가의 발굴체계, 실험적인 예술지원, 장르경계를 넘나드는 전시형식, 시대와 호흡하는 새로운 예술담론 형성, 경직된 미술계 구조변동을 역할로 탄생하였음. 그러나 2010년대를 경과하며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음.

## □ 대안공간의 역사

- 『대안공간 실태조사 연구』(2007)에 따르면 최정화 작가가 주도한 1991년 <클럽 오존>의 《바이오 인스톨레이션 오존전》, 1995년 홍대 앞 주택 《뻐》와 1998년 아트선재센터의 《주차장프로젝트》, 쌈지스페이스의 모태 암사동 쌈지스튜디오가 대안공간이 설립되기까지의 대안적 활동에 주요 포석으로 분석함. 위 연구에서는 0.5세대 대안공간으로 1986년 <그림마당 민>, 1991년 대구의 <예술마당 술>, 1990년 <소나무 갤러리>를 거론하고 있음.
- 이광준(2013)은 대안공간 뿐만 아니라 다원예술공간, 창작공간을 포괄하며 연

대표를 작성하였음. 대안공간, 다원예술공간, 창작공간을 포괄하는 이광준의 정리는 신생공간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이전까지의 주요 공간의 시작과 흐름을 정리하고 있음.

- 고동연(2016)은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의 등장 사이에 1.5세대, 혹은 2세대 대안공간들을 위치지우면서 홍벨트 페스티벌(2nd Generation, what’s your position?, 2009)의 의의를 부각시킴. 홍벨트 페스티벌에는 대안공간 루프나 아트스페이스 휴와 같은 1세대 대안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 케이티엔지 상상마당과 같은 국공립 기금에 의존하는 기관 등 홍대 앞 31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공간들이 참여하면서 1세대 대안공간들이 지닌 미술계의 폐쇄적인 구도 허물기에 일조했음을 밝히고 있음.
- 고동연과 세대 구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은주(2015)는 2015년을 기점으로 2-3년 사이에 생긴 새로운 비영리 전시공간을 3세대 대안공간으로 묶으며 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예술행위의 자양분을 키워내기 위해 파생되고 있는 흐름을 분석해 냈음. 대안공간이 대안 미술 공간, 창작 공간, 레지던시, 거점 공간 등 ‘대안’을 두고 미술관과 상업갤러리와는 차이가 있는 예술단체를 설명하는 단어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작가 혹은 단체가 스스로 공간을 임대하고, 기획하여 전시를 유치하며 이 경우 공간의 형태와 모습도 제각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임대하기도 하고, 공동체 조합을 결성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현황을 짚고 있는데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으로 양분화 될 수 없는 활동의 다각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파악 가능함.

#### □ 공간에서 활동으로 대안공간의 외연 확산

- 미디어아트와 현대미술의 장소 특정적 미술, 설치미술, 공공장소 프로젝트 등이 민관 구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협오시설, 유희시설을 비롯하여 카페형, 공장형 공간, 재개발을 직전에 둔 주택가와 골목길, 거리 등 다양한 공간이 출현하면서 점차 미술관과 상업갤러리와 또 다른 맥락을 지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형식이 등장하게 되었음.
- 미술관과 같은 화이트 큐브를 벗어나 시민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예술 활동으로 변형시키는 재생프로젝트가 늘면서 공간재생,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을 생산하고 특정 지역에서 관객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제작, 진행이 급격히 일어났음.

- 2009년에 등장한 마을 미술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공공미술보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며 주민-작가가 연계된 전시 공간을 조성해 왔음. 이런 역할을 대안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시키기도 했지만, 최근 문화생산의 여러 주체가 오래되고 낡은 공간에 문화예술 활력을 불어넣는 실험적인 행보를 실천하고 있음.
- 전시 형태도 특정 장소를 선택 하여 잠시 체류, 표류 하듯 거점 해야 하는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이 확산되면서 과거의 대안 공간식의 행보를 갱신해 나가고 있음. 권력과 제도의 경계 혹은 틈에서 전례 없던 자양분을 찾아야 했던 대안공간은 안정됨을 거부하고 비상소성, 이름 없는 장소를 찾아나서야 했으며 이는 공간에서 활동으로의 무게 중심의 이동을 준비해야 함을 인식하게 됨.(이은주, 2015)

#### □ 대안공간과 관련한 쟁점

- 작가들에게 ‘상위 인정의 심급’ (신혜영, 2016)의 기능
  - 대안공간에서의 전시 이력은 다른 전시 및 수상 제도, 시장 제도로의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작가들에게 활동 기회 제공을 넘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상징 자본을 부여함으로써 상위 인정의 심급으로 기능함. 비영리성과 비주류, 제도 바깥을 표방한 대안공간이 결국 기존 미술계로 작가를 배출하는 콘텐츠 개발의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 “숨겨진 작가를 발굴해서 국내외 주류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곳이자 “뜨는 작가가 되는 가장 유리한 등용문” (반이정, 2008)
  - “젊은 작가의 ‘봄’ 을 구동시키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의 중심축이자 “한국 미술계 미술 권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호경윤, 2009)

## 2) 해외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sup>1)</sup>

### □ 대안공간의 의미

- 1세대 대안공간이라 불리는 초기 예술가 중심의 전시 공간들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미국에서 활발하게 출현하였음. 대안공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갤러리 시스템(미술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주류 미술관과 상업갤러리)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함. 대안공간의 출현은 사회문화, 경제, 예술적 차원 등 다양한 맥락에서 그 계기와 전개 양상을 생각할 수 있음. 1990년대 이르기까지 보여준 미국 대안공간의 변화 양상은 한국 및 세계 여러 지역의 대안공간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준거가 됨.
- 브라이언 윌리스(Brian Wallis)는 미국의 대안공간 역사를 대안공간의 성격과 공공지원의 변화와 연계시켜 3개 시기로 구분함. 1960년대 후반부터 1974년까지를 제1세대 대안공간, 1975년부터 1979년까지는 제2세대 대안공간, 1980년대를 제3세대 대안공간으로 구분. 1989년 이후 조지 부시 행정부가 국립예술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안공간에게 관료화와 경제성이 요구되어 다른 문화 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문화, 제도화, 시장가치 추구, 대중성 등 기준에 의해 관리됨.
- 윌리스의 대안공간의 시기 구분은 미국의 사례이고 공공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상업적인 대안공간을 예술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모호한 대안공간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음.
- 대안공간이라는 용어의 연원에 대한 고찰은 대안공간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서 주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대안공간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1960년대의 사회운동 분위기와 1970년대 예술형식의 다양화와 혼종화를 거친 시기를 통해 형성되어, 선형적으로 주어진 개념 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변화하기 때문임.

### □ 대안공간의 역사 기록

1) 본 절 '2)해외 대안공간 관련 선행 연구' 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이임수 교수의 원고를 수정, 편집한 것임.

- 미국 대안공간에 대한 역사는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대안공간 활동에 대한 회고전과 이와 연계된 저술들에 의해 다뤄져 왔음. 1981년에 최초의 뉴욕 대안공간 회고전이 개최되었고, 전시 도록인 *Alternatives in Retrospect: An Historical Overview 1969-1975* (The New Museum, 1981)의 서문에서 잭키 애플(Jacki Apple)은 1960년대 후반 급진적인 정치적 운동과 더불어 형성된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욕망이 대안공간을 통해 예술의 경계와 정의를 확장시키는데 이르렀다고 보고 있음.
- 15년 후인 1996년 개최된 대안공간 회고전인 《Cultural Economies: Histories from the Alternative Arts Movement, NYC》의 연계 출판물인 *Alternative Art New York 1965-1985: A Cultural Politics Book for the Social Text Collective*(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2)서 줄리 올트(Julie Ault)는 대안공간을 대안적인 예술 운동 및 행동주의 맥락에서 조명하며, 수록된 다른 연구들은 대안공간과 공공지원, 대안공간의 제도화, 대안공간과 장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망함.
- 다시 15년 후 2010년 개최된 대안공간 회고전은 2000년대에 설립된 공간을 포괄해내고 있음. 연계 출판물인 *Alternative Histories: New York Art Spaces 1960 to 2010* (The MIT Press, 2012)에서는 대안공간의 역사를 반제도적 경향성, 예술 매체의 확장, 예술 담론 생산, 도시 재생, 예술과 삶의 문제 등을 대안공간의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

#### □ 대안공간의 역사 기록

- 미국의 1세대 대안공간의 토양을 마련해준 1960년대에는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으로 형성된 저항적인 기류가 새로운 반문화적인 실천들을 야기하였음. 문화적인 영역에서 기존 제도와는 다른 흐름을 주도하면서 소외된 계층들을 포용하고자 했음. 예술가들은 창작 여건 개선, 전시 기회 확대, 작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며 미술관의 민주적인 운영과 새로운 미술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음.
- 이 과정에서 1969년 예술노동자연합(Art Workers Coalition)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주류 미술관의 변화 움직임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대안공간 설립을 촉진시켰음. 이 시기 대안공간은 미술 시장과 주류 미술관 등 제도적인 틀의

바깥에서 예술가들의 권익을 추구하고, 인종차별, 성차별,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 외 여러 형태의 억압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들을 견지했음.(Jacki Apple, 2012: 17)

- 제1세대 대안공간 중에는 여성 및 소외된 예술가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열악한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례가 많았음. 이는 반문화적인 충동과도 연결되었음. 뉴욕의 예를 보면, 할렘의 흑인 예술가들을 위해 설립된 Studio Museum in Harlem(1968), 남미 출신 예술가들과 주민들을 위한 El Museo del Barrio(1969)와 El Taller Bricua(1969), Jamaica Center For Arts and Learning, 여성 예술가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Women's Interart Center(1969), A.I.R. Gallery(1972) 등과 상업 갤러리 대안으로 AWC가 협동 운영하는 전시공간인 55 Mercer (1970)가 있었음.
- *Playing by the Rules: Alternative Thinking, Alternative Spaces* (New York: apexart, 2010)는 여러 필자들의 글을 통해 대안공간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대안(alternative)' 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음.

#### □ 예술실험의 장으로서의 대안공간

-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볼 때, 대안공간의 출현은 모더니즘 미술의 해체와 이후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미술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1960년대 이후 확대된 새로운 미술 형식들인 설치미술, 퍼포먼스, 비디오아트, 인터미디어 및 혼합미디어 아트, 장소 특정적 미술 등은 아직 주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적극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때 등장한 예술가 중심의 대안공간은 미술제도의 주변부에서 예술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창작 지원 및 전시 공간이었음.(이임수, 2014: 149-150)
- 1세대 대안공간 중 예술가들이 설립하여 예술적 실험과 전시의 장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았음. 예술가의 작업실을 개방하여 설치와 퍼포먼스 등을 선보인 Apple(1969), Gain Ground(1969), 98 Greene Street(1969), 112 Greene Street(1969) 등이 있었고, 비디오 아트를 위한 The Kitchen(1971), 신진 및 소외된 중진 예술가들의 전시 기회를 위한 Artists Space(1972)가 있었음. 예술가의 스튜디오 공간이나 도시의 유휴 공간에서부터 출발한 사례가 다수였으며, Artists Space의 경우 뉴욕주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됨.

#### □ 예술지원정책과 대안공간

- 예술가들이 설립한 대안공간의 출현과 더불어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1972년 미국 국립예술기금(NEA)이 예술가 워크숍(artists workshop)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대안공간과 이와 연관된 예술사업 등을 포괄하는 소규모 예술 조직들을 지원하기 시작함. 이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어진 경제적인 불황과 맞물리면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1974년부터 대안공간의 수가 확대되기 시작했음.
- 미국 국립예술기금은 1978년부터 ‘예술가 공간(artists' spaces)’이라는 별도의 기금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시작함.(Brian Wallis, 2002: 162) 그러나 1990년대 전반 보수적 행정부 아래에서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예술에 대한 공적 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로 촉발된 문화지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고 1995년에 이르러서는 국립예술기금의 예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철폐되고 대안공간을 지원하던 ‘예술가 단체’ 카테고리가 완전히 없어졌음.
- 1974년 이후 전문 기획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대안공간과 유통 및 보존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공간이 등장하기 시작함.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제2세대 대안공간이라 불릴 수 있는 이들은 전문화와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 그럼에도 이들은 미술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기존 미술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목적으로 운영된 대안공간의 특징을 실천하였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문화와 제도화의 단계로 들어선 대안공간에 대한 예술가들의 비판이 일었고, ‘대안에 대한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참여적이고 개입적인 예술 활동 그룹들이 결성됨.

#### □ 글로벌 시대 자기조직화의 수행으로서의 대안공간

- 최근의 논의들에서 대안공간의 운영 방식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두 용어는 ‘예술가 운영(artist-run)’ 과 ‘자기조직화(self-organized)’ 임. ‘예술가 운영’ 공간은 운영 주체인 예술가에 초점을 맞춰 예술가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방가르드한 예술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대안공간을 지칭함(Detterer and Nannucci, 2010). ‘자기조직화’ 개념은 글로벌 시대에 예술계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 자기조직화가 제도적인 것과 상업적인 것의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그것들의 후계자라는 비판적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동시대 예술 실천에서 두드러지는 예술가 그룹과 예술가 및 기획자 운영 공간 현상을 바라보고 있음.(헤베르트, 칼센, 2016)

## 2. 신생공간 관련 선행 연구

### 1) 신생공간 관련 선행 연구

#### □ 신생공간의 개념

- 신생공간의 활동을 “엮는자”로 묶어낸 장영주(2016)는 신생공간의 초기에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오다가 임근준 비평가가 ‘신생미술공간’이라는 단어를 써서 현상을 조망하는 글을 보았으며 ‘자생공간, 콜렉티브’ 등의 단어들의 쓰임이 있었음을 밝힘. “엮는자”에서도 이들을 엮으면서 ‘신생미술공간’이라는 말을 썼다가, ‘우리는 미술하는 공간 아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술을 빼고 ‘신생공간’ 용어를 사용했다고 술회함.
- 신생공간은 미술인뿐만 아닌 ‘젊은 예술가가 미술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낸 플랫폼’ 일반을 총칭하며 이 신생공간의 의미 부여는 2010년대 자립 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와 논의들을 ‘신생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거칠게 묶은 것임. 미술인들의 논의와 행동은 때로는 신생공간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신생공간이라는 명칭 자체도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음.(장영주, 2016)
- 공간 운영자로서 임다운(2016)은 신생공간이라는 용어에 회의를 표명하며 해당 용어가 일련의 움직임 혹은 현상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없으며 정의도 불명확하다고 봄. 2010년 이후 물리적으로 생긴 공간으로서의 의미인지, 기득권층에 반하는 일련의 예술적 실천을 행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성의 단발적인 작업들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상정해야 되는지,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인지 모호함을 쟁점으로 삼음.
- 2013년 신생공간의 출현의 기점으로 보는 구 커먼센터 디렉터 함영준은 대안공

간으로서의 커먼센터 상정에 대해 커먼센터는 대안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하며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만, 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이익을 거부하지도 않음을 표명함. 작가와 컬렉터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작품이 투명하게 유통되는 것이 커먼센터가 추구하는 지점으로 밝힘.(백지홍, 김흥규, 2014)

- 따라서 신생공간이라는 호명이 정작 공간 운영 주체들로부터 비롯하지 않았으며 신생공간이 외부로부터의 호명일 때 이 외부로부터 호명은 개별 공간들이 공통의 플랫폼으로 체감된다는 사실에 기인함.(권시우, 2016)
- 신혜영(2018)은 신생공간이 그저 특정 시기 ‘새로 생긴 공간’ 이 아니라 ‘공간을 새로 만드는’ 특정한 방식이자 태도로 1980년대 이후 출생 작가들에게 주로 보이는 이러한 방식과 태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과 예술 실천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러한 그들의 시도는 특정 공간의 물리적 존속이 아니라 일정 방식과 태도를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하다고 평가함.

#### □ 운영 주체 및 운영 방식

- 신생공간의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젊은 미술 생산자들임. 이전의 대안공간이 대체로 국가나 기업, 혹은 기성 작가 및 기획자들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신생공간의 주체 다수는 개인전 경력 3회 미만의 1980년 초중반생으로, 이제 서른을 갓 넘겼거나 서른을 눈앞에 두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젊은’ 작가들로서 이들은 단순히 연령이 비슷할 뿐 아니라 10대에 IMF를 겪고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진출할 무렵 다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신혜영, 2016)
- 한편, 인터뷰 참여자의 학력을 보면 15명 중 5명이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채 작가로 활동 중이며, 10명의 대학원 진학자 중에서 해외 유학자는 단 1명임. 2000년 이후 미술계에 해외 유학파가 대거 등장하고 국내 학교에도 실기 박사(DFA) 과정이 개설되는 등 심각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 상황을 떠올려 볼 때 이들의 이력은 다소 이례적으로 분석함. 그것은 이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명성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그들의 성향을 반영한다고 평가함.(신혜영, 2016)
- 공간은 서울 시내에서 가능한 적은 임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

는 까닭에 소규모를 지향하며 임대 형태 역시 가족이나 지인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가능한 적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공간 운영 비용은 개인 후원이나 기금의 도움을 받는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운영자 스스로 부담함. 그런 이유로 복수의 동료 작가들과 임대료를 공유하면서 함께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신혜영, 2016)

- 수동적으로 선택받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작가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자립의 의지를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설립했기에 기관의 공모를 비롯한 기존 제도가 수용할 수 없는 새로운 예술 실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함. 이들은 기존 제도를 답습하는 것보다 작가들 스스로 운영하는 공간들이 예술적 결과물에 있어서도 차별적 장점이 있으리라 전망함.(신혜영, 2016)
- 운영 주체들은 자신들이 기획자라기보다는 작가로서 작업을 발표하는 기회로 삼거나 주변 작가들과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결국 생산자로서 자신의 작업에 이러한 활동이 좋은 자극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신혜영, 2016)

#### □ 신생공간의 역사

- 윤원화(2016)는 2015년을 신생공간이 갑자기 출현한 해라기보다는 명명되고 가시화된 해로 분류함. 2000년대와 조금 어긋난 방식으로 미술을 하려는 시도는 2010년 전후부터 있었으며 길게 잡자면 2008-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상업 화랑과 대안공간이 동시에 위축되었을 때, 파트타임스위트 같은 콜렉티브 형태가 등장하였고, 더 북소아이어티 같은 플랫폼들이 포스트대안공간으로 거론되던 때부터 생각해야 함을 지적함. 이것이 2014-5년 한데 묶이면서 갑자기 가시화되었고, 일부에서는 세대 전환으로 포장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신생공간의 출현으로는 2013년경 커먼센터. 시청각을 시작으로 2014년말 교역소에서 열린 커먼센터의 전시 《청춘과 잉여》 연계좌담회 ‘안녕 2014, 2015 안녕’의 발제자 임근준에 의해 ‘청년관을 위한 예술행동’에 대한 고민이 도출되었고 이 행동의 파장에 따라 서울 시내 곳곳에 생긴 신생공간이 ‘청년세대’ 담론과 엮이는 효과를 냈다고 파악함.(백지홍, 2016)
- 그러나 2014년 생겨난 수많은 공간이 2년이 지나 재계약을 마주하게 되면서

신생공간이라 불리던 젊은 미술인들의 움직임은 2016년 한 막을 내리게 되었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공간은 있지만, 2년 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음.

- 신혜영이 미술소비자모임 ‘시각예술 관련 신생독립플랫폼 인터뷰’ (2015)와 신생공간 전시 소개 사이트 ‘엮는자’ (blog.naver.com/herberer)가 발행한 <서울 내 (젊은) 미술활동 관람 투어를 위한 안내서>(2015)에 기재된 곳들을 취합한 2015년 11월 활동 중인 32곳을 설립 순서로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음. (괄호 안은 설립 시기와 공간의 위치). 공간사일삼(2009. 12/ 영등포구 문래동), 플레이스막(2010. 6/ 서대문구 연남동), 반지하 (2012. 6/ 중랑구 상봉동), 비디오텔레타산(2012. 8/ 고정 공간 없음), 800/40(2013. 1/ 종로구 을지로), 갤러리 보는(2013. 5/마포구 독막로), 300/20(2013. 11/ 종로구 장사동), 공간291(2013. 11/ 종로구 부암동), 시청각(2013. 12/ 종로구 자하문로), 커먼센터(2014. 1/ 영등포구 경인로), 케이크갤러리(2014. 1/ 중구 황학동), 아카이브봄(2014. 4/ 종로구 돈화문로), 개방회로(2014. 4/ 종로구 장사동), 공간해방 (2014. 5/ 용산구 용산동), 구탁소(2014. 5/ 용산구 한남동), 인스턴트루프 (2014. 6/ 종로구 윤보선길), 교역소(2014. 11/ 중랑구 상봉동), 지금여기 (2014. 12/ 종로구 창신동), 727NOW(2015. 1/ 마포구 홍익대), 합정지구 (2015. 1/ 마포구 서교동), 노토일렛(2015. 1/ 노원구 공릉동), 미연씨(2015. 4/ 서대문구 연희동), 초단발활동(2015. 4/ 성북구 돌곶이로), 우주만물(2015. 5/ 종로구 을지로), 청량엑스포(2015. 5/ 동대문구 청량리동), 정신과시간의방 (2015. 5/ 마포구 성미산로), MRGG(2015. 5/ 영등포구 신길로), 기고자(2015. 6/ 마포구 대흥동), 가변크기(2015. 6/ 성북구 삼선교로), 우정국(2015. 6/ 마포구 창전동), FLASK(2015. 7/ 마포구 망월동), 청수장(2015. 8/ 성북구 정릉동). 글이 편집 및 발간되는 기간 동안 커먼센터와 교역소 등 일부 공간이 문을 닫았으며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만큼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빠른 것이 이들 공간의 특징으로 밝히고 있음.

#### □ 대안공간과의 차별점

- 고동연(2016)은 신생공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들을 이전 대안공간 세대와 분리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공간과 신생공간

이 전적으로 다른 미술계 구도나 전략 속에서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주요 대안공간과 최근 신생공간을 잇는 계보는 자연스럽게 징검다리 공간들의 역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의 분리에 반박함. 또한 신혜영(2016)도 신생공간은 불균형이 심화된 경제 상황에서 미술계 내 일부 주체들이 자구책을 강구하여 등장한 일종의 '대안적 움직임' 이라는 점에서 이전 대안공간들과 일정 정도 유사점이 있다고 지적함.

- 대안공간과의 차별점을 지적하는 일군은 대안공간과 신생공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데 2000년대 대안공간들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와 이상적이고 호혜적인 우정의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뒤섞여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상반된 방향성이 충분한 기금이라는 물질 토대로 지탱될 수 있었지만 신생공간의 상황은 그와 다르며 그렇기 때문에 우정이라는 말로 서로를 무책임하게 착취하는 상황은 경계함을 지적함. (윤원화, 2016) 또한 신생공간 운영자는 대체로 대안공간 세대처럼 공간운영과 기획에 몸과 마음을 헌신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불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며 서로를 착취하느니 곧 사라질 현재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함. (홍태림, 2016)
- 1990년대 생들의 자생성인 플랫폼에는 결국 명시적으로 혹은 자신과 어느 정도 동기화한 상태에서 참조할 수 있는 역할 모델이 신생공간 외에는 없으며(권시우, 2016), 신생공간의 운영방식에는 분명 대안공간이라고 불리는 앞 세대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을 억지로 유지하느니 차라리 기간을 정해놓고 한정된 시간 동안만 활동하는 것을 예로 지적함. (권혁빈, 2016) 이처럼 세대 단절이나 반작용으로서 분리를 표방하는 입장이 신생공간을 바라보는 담론 주체들의 목소리임.
- 사업 모델로서 대안공간은 비영리를 표방했고, 재원은 공공기금에 주로 의존했 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해야할 사업을 위탁 받는 존재로서 기능한 점이 있기에 이러한 사업모델은 공공기금의 규모가 축소되면 자연스럽게 쇠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대안공간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지적함. (권혁빈, 2016)
- 그러나 공통점과 차별점을 분간하는 사이에서 유보적인 입장 또한 있는데 신생

공간이 자신의 작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제도의 옆길이며 본격적인 판에 뛰어 들기 전의 마이너리그, 양성소같은 느낌으로 과연 신생공간이 대안공간처럼 제도권 진입을 위한 미들웨어인가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함.(강정석, 2016)

#### □ 신생공간과 관련한 쟁점

##### - 특정 집단의 정당성 선점

- 특정 작가와 평론가 및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생산된 담론을 미술계의 청년 세대가 공유하는, 혹은 이를 받아들여야 ‘청년’ 이 되는 주류 담론으로 ‘정당화’ 한다는 비판이 오형진(2016)에 의해 제기된 바 있음. 오형진에 따르면 신생공간의 이론적 단상들은 외부와의 단절을 전제로 한 개인어로 코드화되어, 같은 편을 식별하는 ‘암구호’ 로 쓰이고, ‘이해되지 않을 것’ 을 실천의 핵심으로 삼음을 지적하며 이는 후기-텍스트의 난해함과 관련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피아식별의 암구호, 일방향적 개인어, 비 학술적 어휘들, 단종어, 동종사회성 등은 신생공간을 배경으로 특정한 미학적 프로그램을 운용한 이들의 실천방식임을 지적함.

##### - 북미, 유럽 백인 비평가와 작가들의 트렌드를 반복

- 프로그램, 이론면에서 신생공간의 미학적 프로그램은 관계미학, 뉴미디어, 피드백 이론을 골조로 하고, e-flux 등 보다 캐주얼하고 현장 감각을 중시하는 웹진들을 통해, 리암 길릭, 히토 슈타이얼,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등 북미와 유럽의 백인 비평가와 작가들이 생산하고 비엔날레를 통해 확산되는 트렌드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오형진, 2016)

##### - 신생공간, 하강 곡선의 양상

- 홍태림(2016)은 신생공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기간 만료와 함께 사라지거나 앞 세대가 구축한 미술제도에 이따금 접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 급작스럽게 연달아 발견된 신생공간의 불명료한 약진은 《굿-즈》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함.

##### - 가치와 역량의 한계에 대한 평가 부재

- 정윤희는 신생공간의 활동 종료는 신생공간의 생성만큼 많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실이 일종의 죽음, 자연적으로 수명이 다했거나 또는 외부

환경의 압력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실패의 증거로서, 대개는 개별 공간의 존재 가치와 역량이 한계에 달한 결과로 묵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생 공간을 포괄하여 미술의 확장 과정에서 빚어진 양상을 미술-부동산 복합체, 미술-문화산업 복합체, 또는 미술-인터넷 복합체와 같은 비정형적 아말감이라고 평가함.(정윤희, 2016)

- 손실을 배태한 운영의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한 예측
  - 신생공간들이 운영자와 관계자들이 스스로를 불태우는 에너지를 동력삼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생공간은 증견공간이 되지 못할 것이며 각각의 공간들이 선보인 미학들은 충분히 정립되고 소개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사라질 것임. 공간 운영에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한 이들은 공간을 유지하려 할수록 다방면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이럴 경우 신생공간은 특정시기 미술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증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진단과 전망을 하고 있음.(백지홍, 2016)

### 3.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 연구

#### 1) 복합문화공간 관련 선행 연구

##### □ 복합문화공간의 개념

- 복합문화공간은 시민들에게 예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방된 곳, 문화와 공간, 시민과 예술가들이 공존하는 공간임. 복합문화공간은 문화와 공간이 합쳐진 개념으로, 인간의 예술성 및 정신 등 삶의 종합적인 형태의 문화를 형성 하는 특정한 공간 혹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나아가 공연, 전시, 문화 교육, 문화 정보제공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라는 관념적이고 총체적인 형상과 예술가의 창조활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용자의 감상 활동이 일어나는 문화적 커뮤니티 장소임.(유승찬, 2017)
-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모든 활동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와 ‘복합문화공간은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작품을 공유하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라는 두 가지 성격을 중점적으로 문화의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함.(박영식, 2016) 물론 모든 활동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정이 구체적 실현 양상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

#### □ 국내 복합문화공간의 양상

- 시각예술 창작 중심공간으로 간주되는 1세대 대안공간 쌈지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미술과 음악, 무용, 영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신세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되었음. 2000년 홍대 앞 창전동 쌈지스페이스의 개관을 다루는 기사에 따르면 쌈지스페이스는 젊은 작가들의 실험무대, 공연, 음악감상, 카페, 휴식공간을 겸하는 이벤트 클럽, 밴드공연과 타장르 아트 퍼포먼스를 위한 미디어써어터, 멀티미디어 전용공간 등과 더불어 레지던시, 아트샵까지 전시장소 이상의 복합적 성격을 표방함.(미술세계, 2000, 07)
- 1974년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의 종로에서 시작한 레스토랑 '반줄'은 국내외 수많은 문화 예술인 및 정재계인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유서 깊은 곳으로 기능해 오다가 2012년 리뉴얼 공사를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간 성격의 충위를 더해가고 있음. 복합문화공간 반줄보다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더 뚜렷이 발휘한 곳으로는 Takeout Drawing이 있으며 2006년부터 예술가들을 테이크아웃드로잉으로 초대해 작업을 준비하고 전시하는 “카페 레지던시 Cafe Residency” 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음.
- 통의동에 자리한 여관이었던 보안여관을 인계하여 ‘문화숙박업’ 을 표방하는 복합문화공간 보안여관은 복합장르적 공간의 미션을 가지고 문화생산의 아지트이자, 생활밀착형 예술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가고 있음.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와 책방, 카페, 세미나 및 공연장을 조성하여 시각 전시 공간의 성격을 넘어서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음.
- 르네상스 인문학자 에라스무스의 약어인 에무를 공간명으로 사용하는 복합문화공간 에무는 갤러리에무, 에무시네마, 카페에무 등을 운영하며 전시, 공연, 연극, 전통문화체험 등을 목적으로 2010년 개관하였음. 사계절 출판사의 설립자가 공간 대표를 역임하고 있음.
- 출판과 복합문화공간의 접속은 독립출판과 연동하여 자생력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북소사이어티, 유어마인드, 스토리지북앤필름 등은 소규모 서점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예술 활동으로 연계해 내고 있음.

- 오늘날 젊은 세대가 주도하며 발전시킨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유스컬처(youth culture)는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패션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소비세대로 주목받고 있음.(이지혜, 마진주, 2018) 이러한 유스컬처 세대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패션복합문화공간 또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의류와 액세서리 매장, 서점, 카페를 갖춘 복합 문화공간 ‘10 꼬르소꼬모’ 나 ‘스페이스 H’ 와 같이 패션부터 예술, 책, 카페,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는 자본이 크게 투여된 공간부터 디자인 편집샵에 카페, 전시 기능을 갖춘 공간을 결합시킨 양태까지 복합문화공간의 양상은 다변화하고 있음.

## 2)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공간 선행 연구

### □ 새장르 공공미술로부터의 심화

- 새장르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영구적인 기념물을 설치하는 식의 기존의 공공미술이 공공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공미술을 공공에게 되돌려주려는 대안적인 흐름으로서 공공을 위한 미술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함. 새장르 공공미술에서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관객과의 소통, 공공의 문제에 대한 미술을 통한 개입,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후에도 지속되는 파급 효과 등을 중시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특정한 공동체가 더욱 효과적임.(정해영, 2008)
- ‘대안공간 일반’ 은 존재할 수 없으며 지역마다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 ‘오늘날’ 의 대안공간의 양상에 대해서는 2007년 대안공간 실태조사에서도 거론하고 있으며, 김종길은 1세대 대안공간들의 문화정치학이 2세대 대안 공간들로 전유되면서 안산의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는 안산시 원곡동의 ‘국경 없는 마을’ 에 들어서면서 다국적 이주노동자의 문제로 파고 들었고, 안성의 대안미술공간 소나무는 자연미술의 미학을 확산시켰으며, 부천의 아트포럼리는 행동주의 현장미술을, 그리고 의정부의 문화살롱 공은 경기북부의 빈집과 수물지구, 분단 문제를 다뤘다고 짚고 있음.(김종길, 2014)

### □ 국내 사례

- 대안공간으로 분류되어 온 스페이스 빔은 2002년 1월 개관하였으나 그 연원은 1995년으로 지역에 적을 두고 활동하는 일군의 젊은 작가들이 중심이 된 「지역 미술연구모임」이 관심과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 현재까지 계간 『시각』지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몇몇 소수 작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주류 미술에의 편입 내지는 국제시장에 진출시키는 수목형이 아닌, 자생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인천의 역사, 문화의 주요 거점으로 배다리를 살리고 인천 지역 현안에 예술적으로 개입해 오고 있음.(민운기, 2004)
- 2010년 지역기반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해 거론하는 박혜강(2010)의 글에서는 소위 '지역기반 비영리 전시공간들'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들로 안양의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워터', 인천의 '스페이스 빔', 안산의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청주의 '하이브', 부산의 '오픈스페이스 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으며 2008년 이후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공간들로 광주의 '매개공간 미나리', 목포 '아트스페이스 알렙', 대전 '스페이스씨' 등을 거론하며 1세대 대안공간들이 위기를 맞이한 서울 중앙미술계의 환경과는 다르게 엄격히 말해 예술공간 인프라가 빈약하고 취약한 지역에서 대안공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높은 편임을 지적함.

#### □ 지역 네트워크 기반 공간의 쟁점

- 윤나영(2015)은 정책적으로 공공지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공간의 경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아트에 전복적인 속성, 즉 공동체를 둘러싼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속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야기됨을 지적함. 커뮤니티 아트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제기한 공동체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존 기억과 서사가 재맥락화되고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평화롭고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결과물로 귀결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 혹은 종료된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공동체의 문제나 갈등의 지점들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지 못하고, 실패한 프로젝트로 치부될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현재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트 사업의 대부분이 이러한 공공 지원사업을 통한 것으로 커뮤니티 아트의 자발성이라는 속성과 공공지원

에의 의존이라는 상충하는 문제는 지원정책에 있어서 숙고해야 할 과제로 봄.  
(윤나영, 2015)

### 3) 도시재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선행 연구

□ 현재까지 도시재생 및 유휴공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디자인, 도시개발, 문화콘텐츠, 관광산업개발 연구와 연계하여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거시적 도시 공간의 개발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거주민과 향유층을 고려한 역사적 유산을 기억하고 문화적 활동의 장이되는 시공간으로서의 고민과 연구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 □ 도시 재생의 개념

- ‘도시재생’이란 개념은 시대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도시재생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으로 그 유형이나 방법이 정립된 바는 없지만 로버트와 사이스(Robert and Sykes, 2000)는 ‘도시재생’의 의미가 1950년대 재건(reconstruction)의 의미로, 60년대에는 활성화(revitalization), 70년대에는 재정비(renewal), 80년대에는 재개발(redevelopment)로 여기다가 90년대 들어서 재생(regeneration)으로 그 개념이 변해왔고, 현재는 대도시의 무분별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쇠퇴현상을 방지하여 도심부의 재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함.(정진아, 2018)

#### □ 유휴 공간의 개념

- 사전적 정의로 ‘유휴(遊休)’는 ‘쓰지 아니하고 놀림’이라는 뜻으로 유휴시설이란 공간의 기능이 상실되어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유휴 시설은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
- 유휴시설은 과거 산업화시대를 경험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는 시대적 산물인 동시에 오랜 세월이 담긴 역사성이 있는 문화적 유산. 과거의 시간과 기억을 공유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서 재생가치가 충분함.

#### □ 도시재생과 유희공간의 문화적 활용의 변화

- 김숙경(2016)은 문화도시의 역사나 사례는 2차 산업의 붕괴로 인한 도시의 쇠퇴를 극복한 서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의 과밀화, 피폐화를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을 그 이유라고 분석함.
- 김숙경은 시대상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책의 초점이 문화 복지로 확대되게 되었으며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가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이념들과 더불어 일상, 생활, 환경, 교육 등 환경과 생활로서의 문화가 중시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 해외 사례

- 모마 ps1은 폐교를 미술관으로 재생시킨 곳임. 모마 ps1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진, 회화, 공연예술, 야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연을 통해 네트워크 장을 만들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음.(김혜인, 2017)
- 프리쉬 라 벨 드 메(Friche la Belle de Mai)는 1886년 세워진 프랑스 담배공사의 담배공장으로 1992년 연극집단인 시스템 프리쉬 테아트르를 시작으로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면서 목적에 맞도록 변화하였음. 이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이 합류하면서 의장직을 맡았고 이러한 배경으로 프리쉬 라 벨 드 메는 도시 재생의 차원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박신의, 2011) 관객들은 힙합 재즈, 서커스, 오페라, 퍼포먼스, 탁아소, 스케이트보드 강습, 요리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음. 모마 ps1과는 다르게 미술관 형태가 아닌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성격을 지님.
- 독일의 우파 파브릭은 유희공간이 되기 전 2차세계대전 전 독일 최대의 영화사(UFA)의 영화현상소로 버려진 공장지대에 복합문화공동체로 재탄생되어서 문

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술가 레지던스이자 국제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독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이자 생태문화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예술가 공동체 마을로 기능함. 과거와 현재의 공간정체성이 예술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우성하, 권기창, 2016)

- 유럽의 도시 재생과 비교해서 독자적 모델로 평가되는 일본 가나자와 시의 모델은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이라 불리는 독자적 발전 방식의 선택으로 일본의 지방도시 대부분은 1970년대에 고도 성장기에 ‘포디즘’ 이라 불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체제하에서 지역을 스스로 효율적인 생산현장으로 재편하게 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전통공예 및 생활문화의 ‘창조영역’ 을 잃어가는 가운데 가나자와 시는 일본에서도 유일한 ‘주민주체형·주민참가형’ 문화시설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金沢市民芸術村)’ 을 설립하여 가나자와 시민들 스스로 문화를 창조해가는 주체로 만들고, 이들에게 창작 거점을 제공한다는 시사점이 있음.

#### □ 국내사례

- 경기도권역을 살펴보면 부천아트벙커B39는 과거 쓰레기소각장의 마감재, 구조 등을 최대한 살려 흔적을 남긴 공간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가를 위한 스튜디오 공간과 전시, 교육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5년 부천 삼정동 소각장(현 부천아트벙커B39)에서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와 아시아 권역의 문화콘텐츠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고, 비영리전시공간협의회 개최 아트페스티벌 《2015 AR TOWNS》 를 펼쳤음. 연간 상시적인 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면서 또한 생태·환경과 관련한 기획을 도모하여 도시재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있음.
-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의 경우 업사이클을 이해, 공감하는 공간의 성격이 강하며, 천장과 외부마감은 과거 자원회수시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벽면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재활용된 공간의 느낌을 전달함. 업사이클 디자이너와 공조하여 교육적 목적을 강하게 띠고 있음.(김지현, 어성신, 황연숙, 2018) 입주 작가와 연계하여 업사이클 작품을 전시하고 지속적인 업사이클과 관련한 전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적 성격을 예술의 해법을 통해 제시하고자 함.

- 부천아트벙커B39와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예산과 맞물려 기획되었다면,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는 전국의 오래된 정미소의 사진을 촬영해 오던 김지연 관장이 전북 진안 계남의 폐 정미소를 매입하여 조성된 전시 공간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지역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유산의 가치에 대해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음.
- 경북 의성의 성냥공장의 경우에는 공간 재생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근대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성냥공장에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2018년 조성되었음. '도심 재생 프로젝트'와 '마을 미술 프로젝트' 등을 결합하여 공장에서 성냥을 생산하고 전시 체험시설을 세워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 도시 재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의 쟁점

- 민간 중심의 공간 운영에 있어서 도시 재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은 공공성을 지닌 공간의 가치 인정에도 불구하고 계남정미소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이라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성광성냥을 버려두거나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나 그러나 박물관이든 체험전시관이든 간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공간의 지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따라서 문화 유산과 지역 공동체의 가치 보전의 입장을 취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강화된 공공성 기능을 인정하고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입장임.

#### 4) 다원예술적 활동 공간 선행 연구

##### □ 다원예술공간 개념

- 200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는 직접사업으로 추진, 조성되었던 다원예술매개공간 자료집에 따르면, 당시 다원예술의 명칭은 예술의 정의와 변화양상을 포괄하는 문제적 명칭으로, (1) 기성예술 관습의 대안적 개념, (2) 장르예술의 상대적 개념, (3) 새로운 예술을 의도적으로 촉진하려는 전략적 개념, (4) 변화에 유연하고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려는 개방적 개념 네 가지로

정리하면서 수년간 지원 사례를 분류하여 다원예술의 몇 가지 범주를 도출했을 때 실험예술, 복합예술, 대안적 소통, 공동체예술, 사회적 예술, 시민문화프로그램, 문화행동으로 도출된다고 밝히고 있음.(다원예술매개공간, 2007)

#### □ 다원예술활동과 공간의 변천

- 다원예술적 활동은 서울 홍대 앞 구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홍대 앞은 독립예술을 둘러싼 축제를 만들어 온 프린지 네트워크가 1998년부터 프린지 페스티벌의 전신 독립예술제를 개최해 온 거점이며 1993년부터 거리미술전을 시행해 오면서 미술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왔음. 또한 서울 와우북페스티벌이 개최되는 장소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각 활동 중심에서 활동의 다각화를 도모해 온 역사가 있음.
- 문래동은 2007년부터 국제다원예술축제인 《물레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으며, 2017년에는 《국제사운드아트창작페스티벌-문래공진》을 열며 다원예술의 거점 지역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다원예술매개공간의 설립은 2007년 당시 확산되어가는 다원예술 활동의 경향을 정책적으로 매개할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며, 홍대 앞, 문래동 일대를 배경으로 다원적 예술의 활동이 집중되던 양상을 보임. 더불어 다원예술축제인 페스티벌 봄의 전신, 스프링웨이브도 2007년 출범하였음. 2000년대 초중반 현장의 요구가 정책 사업으로 연동되었으며, 다원예술매개공간은 서울에서 2년간의 활동을 종료로 정리되었고, 지방 거점 도시에 공간 조성의 방향으로 이행되었음.

#### □ 다원예술과 관련한 쟁점

- 김흥기(2013)는 어떤 입장을 따르든 다원예술 개념은 문제적인 개념으로, 그 이유는 다원예술 개념이 창작집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책집단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며 이 개념은 제도화와 범주화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유통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다원예술은 언제나 역동적인 실천으로 존재할 뿐 규정 가능한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 규정보다 비모더니즘적이고 비주류적이고 비가시적인 과거의 예술실천들을 발굴하여 현재화시킬 것을 요청함.
- 초연결사회에서 시각예술 창작지원에 대한 고용수의 연구(2018)에 따르면 한

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다원예술 분야가 탄생했을 당시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시각예술과 장르주의를 넘어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공모요강에서 제시하는 장르 구분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나 새로움에 대한 인식보다는 탈장르, 장르 간 융·복합에 관한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며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제2절 소결

### 1. 대안공간 개념의 확장태로서의 비영리 전시공간

#### 1) 국내 대안공간의 변화

□ 비영리성을 표방하며, 비주류 예술활동을 벌이고, ‘제도 바깥’에 관심을 기울이며, ‘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는 대안공간은 1990년대 말에 태동하였음. 1세대, 2세대 대안공간의 역사를 경유하며 2010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음.

#### 2) 해외 대안공간의 ‘예술가 운영(artist-run)’ 과 자기조직화(self-organized) 대두

□ 해외의 경우 글로벌 시대 자기조직화의 수행 공간으로서의 대안공간 개념이 부각됨에 따라 대안공간의 운영 방식을 기술하는 대표적인 두 용어로 ‘예술가 운영(artist-run)’ 과 ‘자기조직화(self-organized)’가 대두되고 있음. ‘예술가 운영’ 공간은 운영 주체인 예술가에 초점을 맞춰 예술가 커뮤니티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아방가르드한 예술 실천을 목적으로 하며 ‘자기조직화’ 개념은 글로벌 시대에 예술계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통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

#### 3) 신생공간의 탄생

□ 한국의 신생공간은 미술인뿐만 아닌 ‘젊은 예술가가 미술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낸

플랫폼' 일반을 총칭하며 이 신생공간의 의미 부여는 2010년대 자립 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도와 논의들을 '신생공간' 이라는 이름으로 거칠게 묶은 것임. 신생공간은 특정 시기 '새로 생긴 공간' 이 아니라 '공간을 새로 만드는' 특정한 방식이자 태도로 평가되고 있음.

#### 4) 비영리 전시공간의 다변화

- 비영리 전시공간의 양상은 대안공간, 신생공간 이외에 복합문화공간,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미술공간, 도시재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한 미술공간, 다원예술적 활동을 담보하는 공간 등의 세분화된 과업과 목적성을 띤 공간들의 출현에 따라 창작과 전시 중심의 생산자 중심의 공간에서 점차 그 동심원을 확장하여 향유층을 포괄하고 공유 개념을 담보해내는 공간으로의 개념의 확장태를 만들어가고 있음. 이에 따른 공간별 성격에 맞춘 정책적 방안 모색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과제로 도출됨.

## 제3장

---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

제1절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

제2절 :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제3절 : 소결

## 제1절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

### 1.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

#### 1) 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의 개념<sup>2)</sup>

□ 비영리단체의 개념 규정은 국가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국가의 역할이 클수록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좁게 규정되고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됨. 강하고 큰 정부를 지양하는 미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활동이 활발함. 따라서 비영리단체 개념을 규정하는데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기관도 아니고 영리 추구를 위한 기업도 아니지만, 자체의 관리절차를 가지고 특정한 공공목적에 봉사하는 단체로 규정함. 미국 비영리단체는 대체로 주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식적인 조직이며, 정부와는 별개의 사적 조직이고, 이윤 분배를 금지하고, 자율 관리, 자원봉사조직, 공익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함. 미국에서 비영리단체는 면세 혜택을 받는 조직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분류되고 관리됨. (박상필, 1999)

□ 한국에서는 비영리단체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법들이 다양하고 일반적인 개념 규정에 혼란이 있었음. 또한 제3섹터의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했음.

-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보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까지 포함됨. 즉 단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포함됨.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정부에도 기업에도 속하지 않음. (박상필, 1999)
- 비영리단체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여 있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자체의 관리절차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음. 이윤을 단체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 조직임. (박상필, 1999)

□ 비영리단체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음.

2) 본 절에서 '1)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의 개념', '2) 대안공간과 비영리성의 확장', '3)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은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이인수 교수의 원고를 수정, 편집한 것임.

- 첫째, 원칙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하여 세금 혜택을 받음. 둘째,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함. 셋째, 정부와 기업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가와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함.
- 비영리단체는 세금 규정, 단체의 목적, 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무엇보다 비영리 단체의 존재 가치는 사명감에 있으며, 한 사회와 그 사회 개개인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기 위해 존재함. 비영리 단체의 성과는 사명과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손익의 금액으로 성과를 측정하지 않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욕구를 창출하기도 함.(드러커, 1995)

## 2) 대안공간과 비영리성의 확장

- 예술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새로운 문화적 욕구 창출 및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공간을 포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은 비영리 단체의 개념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등장했던 대안공간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확장된 맥락에서 도출하는 것이 타당함.
  - 대안공간은 기존의 주류 미술관과 상업갤러리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예술 창작 및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등장했음. 즉 기성의 예술 규범과 시장의 논리에서 자유로운 대안적인 예술 공간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느슨하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띠고 영리 추구가 배제된 운영이 특징임.
- 따라서 1960년대 후반 등장한 이래 대안공간은 그 활동 동기 및 목적과 운영방식에서 비영리성을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게 함.
  - 대안공간은 예술 창작자뿐만 아니라 예술 향유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간 설립자 및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간 사용자 모두가 공간의 공유자라는 의식이 있음. 이로부터 비롯된 평등하고 수평적인 구조와 참여적인 운영 방식을 특징으로 함. 이러한 공간 운영을 위한 수익 사업은 영리의 추구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대안공간의 존재 자체와 그 곳에서 벌어지는 예술 활동들이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창작 주체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술

대중을 확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객 참여를 유도하여 결국 예술 활동 주체의 범위도 확장할 수 있음. 이는 대안공간이 실천하는 확장된 비영리성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3)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

□ 여기서는 앞서 검토한 비영리단체 개념과 대안공간 및 확장된 비영리성 개념을 바탕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을 규정하고자 함. 이러한 규정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이 선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대안공간의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정의된다는 점임.

- 우선 비영리성의 지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유번호증을 대안공간, 비영리 단체 등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개인 및 협·단체가 있음.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은 대안공간의 수행에서 비롯된 확장된 비영리성에 근거하여 정의될 수 있음. 비영리 전시공간은 예술 전시 기획 혹은 전시 공간 제공을 통하여 공간 사용자, 즉 예술 향유자와 예술 창작자의 이익을 추구함. 비영리성 추구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윤과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공간의 공공 영역에 재투입하는 것을 우선시 함. 영리적 활동을 주 목표로 하는 상업 화랑과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공간들임. 이들은 부분적으로 임대 및 서비스업, 예술품 및 골동품 매매업을 업종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비영리 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소극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보다는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전념한다는 점을 말함.(이상정, 2001) 따라서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와 전시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하는 공간임.
- 비영리 전시공간은 예술 생태계 내에서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향유와 유통 영역의 변경과 바깥에 위치하면서 예술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함.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운영주체는 예술가, 기획자, 다양한 방식의 예술 후원자 등 매우

포괄적일 수 있음.

-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공간이 있음.
-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하는 공간이 있음. 이는 지정학적 위치로서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공간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관련됨.
- 개별 비영리 전시공간의 수준을 넘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영리 전시공간은 예술을 통해 공익을 실현한다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므로 궁극적으로 사적인 소유 대상이 아니라 공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4) 공간의 공유 개념 증대

□ 현재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창작과 생산자 중심의 활동만큼 소통, 유대, 지식의 공유에도 활동의 방점을 찍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유 가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공유 개념에 익숙하도록 자라난 세대가 문화예술 활동의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그 토대가 성숙했음.

- 법학자인 로즈는 1986년 『공유지의 희극(The Comedy of the Commons)』에서 “공적재산(public property)” 바깥에 다른 종류의 “본래적으로 공적인 재산(inherently public property)” 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재산은 정부나 사적 주체 누구에 의해서도 완전한 통제되지 않는다고 전망함. 로즈는 특히 대표적인 예로 공공 광장을 제시하며 이 광장이 소통과 사교, 유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함.(로즈, 1986)
- 광장과 같은 공유지(the Commons)의 개념은 토지뿐만 아니라 공기, 물, 지하자원과 같은 공유의 자연재 및 문화, 언어, 무상교육, 공유기업 등 해당 공동체 성원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역사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자원 내지 재화를 모두 포괄함.(곽노완, 2007) 오스트롬은 자연자원 이외에도 지식과 문화재산이 많은 사람의 공동협력에 의해 생산된 공유지로, 지식공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봄.(Harvey, 2012)
- 공유 모델은 시장에서의 재산의 교환보다는 네트워크에서 공유할 수 있는

(shareable)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더 적절한 곳에서,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시장 자본보다 더 중요한 곳에서 더욱 유력한 모델임. (Rifkin, 2014) 리프킨은 인터넷과 함께 자란 젊은 세대는 공유 모델이 만개하는 문화적 전환에 대한 낙관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 세대를 관대한(generous) 세대 혹은 G 세대로 호명하며 아랍의 봄, ‘Occupy’ 운동을 확산시킨 주역으로 바라보며 이들 세대의 활동들이 급속히 팽창하는 시장경제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축소시켜나갈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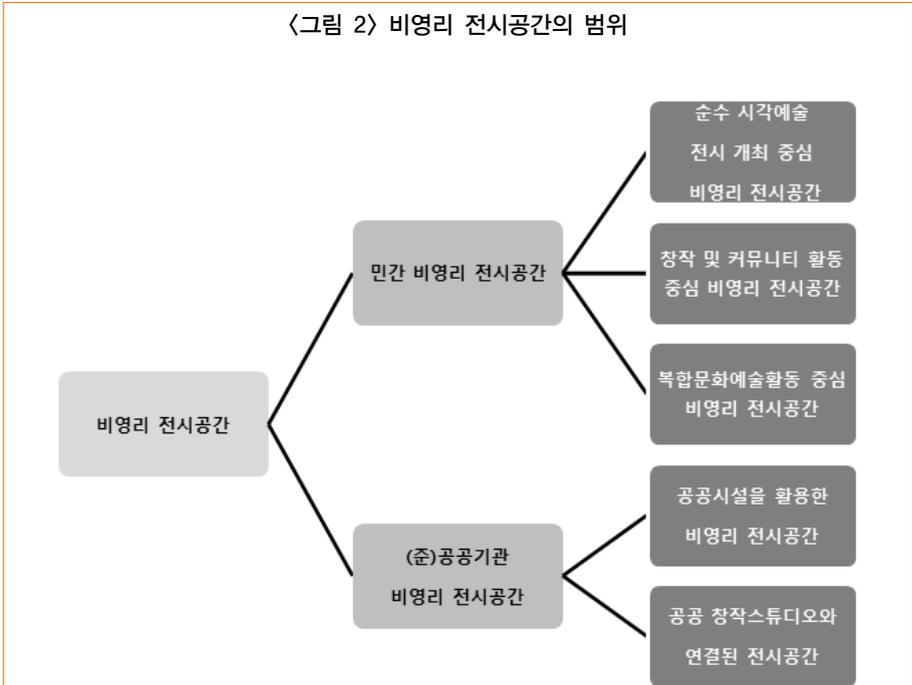
- 대안공간의 성장과 더불어 대안공간으로부터 학습하고 비영리성에 대해 고민하는 세대의 주축은 리프킨이 제시하는 G 세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익숙하게 자라났으며 비영리 전시공간의 철학과 실천에 공유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접목시키거나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 제2절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 1.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음.
  - 1)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가 운영하면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 2) (준)공공기관 비영리전시공간은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간임.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임.

〈그림 2〉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표 1〉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구분		내용
운영 주체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미술현장(민간)에서 부분적으로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기업과 관련 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가 운영하면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공공기관이 조성, 직접 운영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간.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

-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1) 순수 시각예술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2)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3)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세분화됨.

〈표 2〉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세부 범위

구분	내용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의 창작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 전시 개최를 통해 향유 문화 증진에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임. 전시 이외의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시' 라는 형태로 창작자, 기획자, 관람객을 매개함.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전시라는 단일하고 완결된 형태로 가시화되는 활동보다 예술가들이 운영과 작업을 병행하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또는 공간의 일부에 창작이 가능한 환경(작업실)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공간 또는 지역민과 함께 공동체 예술 활동,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조사와 연구 등에 중심에 두는 비영리 전시공간임. 또한 도시재생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또는 단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고, 운영 종료 후 지원사업을 통해 유지되는 전시공간임.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시각예술 장르와 전시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장르 융·복합적 예술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거나, 영리적 공간(카페, 서점, 공방, 레지던시) 내에서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활동이 실행되는 비영리 전시공간임.

-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위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서 구분지어지는 것은 아님. 많은 비영리 전시공간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범위를 결합하고 있기도 함. 이는 과거의 비영리 전시공간이 미술관이나 화랑이 아닌 '대안공간' 이라는 것에 한정되었던 목표를 지녔다면, 최근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안적 활동을 넘어 창작 환경과 전시 공간을 분리하지 않는 형태와 관람객의 일방적인 향유의 측면을 넘어 관람객, 지역민이 공간의 운영과 전시 제작에 깊이 관여하게 커뮤니티 예술, 공동체 예술 등의 흐름이 전시 공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지는 등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임.
- 나아가 전시공간 운영에만 한정되었던 것에서 운영을 위한 개인 자비 충당 활동 또는 수익을 운영에 재투입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카페, 서점 등이 결합되었기 때문임. 이밖에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가시화된 시각예술의 융·복합 경향과 비물질적인 작업에 맞는 전시와 활동 공간이 등장해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는 전통적인 장르 중심과 운영 방향에서의 영리, 비영리 간의 뚜렷한 경계는 와해되었음.

〈표 3〉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세부 범위

구분	내용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공공기관이 조성, 직접 운영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전시공간으로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가 개최되는 공간을 말함. 창작스튜디오(작업실)를 운영하지 않음.
공공 창작스튜디오와 연결된 전시공간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공공기관이 조성, 직접 운영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내에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가 개최되는 공간을 말함. 단,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됨.

-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은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전시공간을 말하며, 이는 다시 창작스튜디오(작업실)의 유무에 따라 1)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2)공공 창작스튜디오와 연결된 전시공간으로 다시 세분화됨.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은 2003년부터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신장시키고자 발간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이 시각예술 전시 관련 공간임. 이 총람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 전시공간을 담고 있지는 않음.
- 특히 2000년 이후 지역의 문화재단 설립이 급증하면서 문화재단 운영의 전시공간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하여 설립된 비영리 전시공간이 있으나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등록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소규모 공간, 일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전시 공간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공간이 있음. 이들을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범주화 할 수 있음.
- 1997년 이후로 국내에 조성되기 시작한 창작스튜디오는 폐교 활용 창작스튜디오에서 국공립 미술관과 연계되어 점차 늘어났음. 2000년 이후 지자체의 공립 창작스튜디오가 확충되었고 나아가 미술관, 지역문화재단과 별개로 폐 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관련 사업 등을 계기로 증가하였음. (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이러한 창작스튜디오는 공간 내에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시각

예술 관련 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제3절 소결

## 1.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범위

### 1) 예술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창출 및 충족하는 비영리 단체의 존재

- 비영리 단체의 존재 가치는 사명감에 있으며, 한 사회와 그 사회 개개인의 삶에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기 위해 존재함. 비영리 단체의 성과는 사명과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오는 것이며, 손익의 금액으로 성과를 측정하지 않음. 예술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새로운 문화적 욕구 창출 및 충족을 목적으로 함.

### 2)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정의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과 공유 가치 부상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은 선형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정의되는 특징을 지님. 비영리성의 지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되며, 이윤과 이익의 공적 재투입, 공익적 활동 전념 등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 생태계 내에서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향유와 유통 영역의 변경과 바깥에 위치하면서 예술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함.
- 현재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창작과 생산자 중심의 활동만큼 소통, 유대, 지식의 공유에도 활동의 방점을 찍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유 가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공유 개념에 익숙하도록 자라난 세대가 문화예술 활동의 주축으로 부상하면서 그 토대가 성숙했음.

### 3) 운영주체에 따른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과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의 범위 구분

- 한국 비영리 전시공간은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는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과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나누어짐.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민간에서 부분적으로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자 또는 단체가 운영하면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임.

(준)공공기관 비영리전시공간은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서 (준)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공간임. 이 또한 비영리성을 지향하고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를 개최하는 공간임.

#### 4)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활동과 목적에 따른 범위 구분

-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활동과 목적에 따라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세분화되며 이 세 가지 범위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서 구분지어지는 것은 아님. 많은 비영리 전시공간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범위를 결합하고 있기도 함.

#### 5)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창작 스튜디오 운영 특성에 따른 범위 구분

-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과 공공 창작 스튜디오와 연결된 전시공간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이들은 공통적으로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이지만, 창작 스튜디오의 유무에 따라 차이점이 있음. 즉 전자는 (준)공공기관이 조성, 직접 운영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전시공간이지만 창작스튜디오(작업실)를 운영하지 않음. 반면 후자는 (준)공공기관이 (준)공공기관이 조성, 직접 운영 또는 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창작스튜디오 내에서 반드시 전시공간을 보유하고 전시가 개최되는 공간을 말함. 단, 등록미술관 및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됨. 문화기반시설에 등록된 시설의 부속/하위 기관으로서의 창작 스튜디오는 상위 기관인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임.
- 본 연구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중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에 한정하여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과 지역문화재단의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유사 지원사업에서 신청 배제 대상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를 두고 있기 때문임.

## 제4장

---

### 비영리 전시공간의 최근 동향

제1절 : 최근 동향 분석

제2절 : 소결

## 제1절 최근 동향 분석

### 1. 대안적 시장 유통 구조에 대한 요구와 실천

- 2015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개최된 《굿-즈》는 상봉동에 있는 신생 공간 ‘반지하’에서 젊은 작가들이 저렴한 아트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굿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기획한 전시임. 《굿-즈》홈페이지에 따르면 본 행사는 동시대 미술의 환경/조건에 대해 고민하는 시각예술작가들이 자신의 작업/‘굿-즈’, 소량제작된 에디션, 작업의 파생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행사로 전시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작품들, 장소특정적 설치나 퍼포먼스처럼 형태가 없는 작업들, 기존의 아트페어가 다루지 않았던 젊은 작가들의 활동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마련됨. 총 80(명/팀)의 작가 및 신생공간 36(명/팀)의 기획 및 운영인력의 참여로 이루어졌음.
- 《굿-즈》는 문체부 산하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작가 미술장터(Visual Artists Market) 개설 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 미술시장 진입이나 아트페어 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신진작가 및 실력 있는 작가단체를 선정해 미술시장 진입을 돕고, 전시에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이었음. 《굿-즈》는 이례적으로 1회 개최를 시작과 끝으로 그 의미를 실험적 모델에 부여하며 이후 새로운 시장 유통 구조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요구와 실천을 쟁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 미술장터 프로그램은 기존 미술 생태계의 화랑을 거점으로 하는 판매 시스템과 변별력을 갖기 위해 일반적인 아트페어와는 달리 미술장터를 통해 얻는 판매수익금의 전액은 작가에게 전달돼 작가가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대중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미술품 소장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이를 위해 작품가를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기를 권고하기도 하였음.
- 《굿-즈》이외에 《유니온 아트페어》, 《더 스크랩》 등 작가 미술장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대안적인 아트페어의 영향력은 새로운 유통 구조의 상례화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켰으며 가시적 모델로는 홍대 앞 동교로의 신생공간 취미가에서의 《취미관 TasteView 趣味官》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작가들의 특별

한 에디션, 작업의 부산물, 작품과 굿즈, 소장품, 특별히 선별된 물품을 선보이는 기획이 이어졌으며 퍼포먼스 축제이자 동시대 시간 기반 예술 전반의 생산, 소비, 유통에 대한 질문이 담긴 《퍼폼》이 2017년 ~ 2018년 개최되었음.

- 《더 스크랩》의 실험적인 유통 플랫폼을 상업화시키려는 롯데백화점과 공간291의 사진 관련 복합문화공간 291 포토그램스 매장은 사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복합공간을 표방하며 (1) 사진, 전시 (2) 서적, 커뮤니케이션 (3) 스튜디오 (4) 카메라 총 네 개의 섹션을 구성하여 오픈(2019년 4월)하였으나 《더 스크랩》과 유통 플랫폼의 유사성이 제기되고 수익 배분 구조 안배의 불균형에 대한 쟁점을 낳았음.
- 신생공간과 20-30대 젊은 작가들이 주도하여 미술관계자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반응 또한 이끌어낸 행사들은 화랑, 페어, 옥션이라는 미술제도 안의 생태계에 진입의 난점과 구조적으로 작품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작품 제작의 양상을 점검하고, 예술 제도의 경계에 대한 고민을 표면화시키고 제기하는 장으로서 기능하였음.
- 미술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대안적 시장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 경계에서의 요구와 실천은 아방가르드 예술이 제도 미술에 등재되어 온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지속적인 기획이 모색되고 참여 작가 증대, 관람객의 관심 고조는 여전히 기존 시장 유통 구조가 담아내지 못하는 예술 주체들의 문제를 반증하고 있음.

## 2.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폐관의 주기

- 2019년 초 운영상의 어려움에 따른 경기도 수원시의 대안공간 눈의 폐관은 대안공간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 온 전국의 많은 비영리 전시공간과 미술관계자들에게 아쉬움과 비영리 전시 공간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낳았음. 안정적인 공간 운영에 진입한 1세대 대안공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여전히 공간운영비와 인건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해가는 홍보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비영리전시공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 신혜영의 2016년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신생 공간 폐관 목록과 2017년 초 케이크깬

러리, 지금여기와 같은 신생공간의 폐관 등은 신생공간의 생성과 종료의 사이클이 기존 대안공간들과는 다른 생리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2018년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세운 청계상가 일대의 공간 폐관의 양상은 저렴한 임대료의 요인에 따라 조성된 공간의 입지와 젠트리피케이션 쟁점이 맞물려 촉발되는 상황으로 파악됨. 최근 서울 을지로 일대에 작가 작업실과 비영리 전시공간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을지로 재개발의 문제는 창작과 전시 공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 야기될 우려를 낳고 있음.

〈표 4〉 신생공간의 변화

신생공간	신혜영(2016)	실태조사 (2018. 10 ~ 2019. 2)
전체	- 서울 33곳 (폐관 또는 일시적 프로젝트 9곳 포함)	-모집단 전국 100곳 -설문조사 회수 약 36곳 운영 확인
세운, 청계상가 을지로 일대	- 800/40 - 300/20 - 개방화로 - 우주만물	-공간 형 -사유지 -상업화랑 -중간지점 -스페이스바

- 2019년 3월에는 《박원순 개인전》(상업화랑)이라는 제목으로 심승욱, 오세린, 일상의실천, 정용택, 차지량, 최황, 한정림, CMYK 등 총 8 팀(11명)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을 ‘박원순 작가의 어시스턴트’ 로 규정하고 현 서울 시장의 전시 행정과 문화, 예술관을 조명하고 서울시의 사업들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시급한 쟁점을 전시로 엮어 내어 ‘철거식 도시재생’ 이라는 서울시의 표방에 의문을 제기했음
-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작은미술관 조성과 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된 공간들이 프로젝트의 시행 년도가 지나거나 운영 인력의 철수로 인한 공간 콘텐츠의 부재로 잠정적 휴관에 돌입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공간 설립과 운영을 희망하는 인력풀이 성장함에도,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은 운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민간 전시 공간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공간의 경우 공간만이 남은 상황은 국공립 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 공간의 효율적 기능에 대해 제고해볼 여지를 던지고 있음.

### 3. 포스트 신생공간에 대한 구상

- 2009년 파트타임스위트는 전시 기회를 기다리느니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고민의 일환의 콜렉티브(박재영, 이미연, 이병재)를 결성하여 불안정한 예술가의 조건을 드러내고 비합리적인 사회구조가 지배하는 젊은이들의 삶의 유형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구성해 내었으며 같은 해 철거를 앞둔 옥인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한 옥인 콜렉티브는 “개발에 대한 이원론적 찬반이나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폭을 넓히는 것” (옥인 콜렉티브 홈페이지 참조)을 과제로 콜렉티브 활동을 벌여왔음.
- 이와 같은 콜렉티브 활동은 60년대 후반부터 명맥이 이어진 다양한 소그룹 운동과는 변별점을 갖는데 ‘따로 또 같이’ 의 느슨한 연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시대 인식, 언제까지 펼쳐질지 모르는 불황과 위기에 전면적으로 전선을 긋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방식을 취함. 연대의 목적과 무게를 함께 견디고 세대의 미션을 완수한 위에 밀려오는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피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들 콜렉티브의 방식으로 임혀짐. (김현주, 2012)
- 파트타임스위트, 옥인 콜렉티브와 같은, 콜렉티브 형태의 작업 방식은 작품을 생산하고 전시를 조성하는 과업의 범위를 특정 시간과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프로젝트 형태로 전환하여 비정기적이지만 지속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초단발활동, 릴레이 탄산, 안팎도 비디오와 같은 활동은 전시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에 접속하여 활동을 펼치고 스크리닝하는 등 특정 ‘공간’ 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예술 행위가 아닌 활동의 범위 확장을 도모해 왔음.
- 신생공간이 여전히 개관하고 또 폐관하는 실정에서 포스트 신생공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나 순수 시각예술 전시 공간을 가장 큰 활동의 축으로 삼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운영 목적이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과 복합 문화적 활동의 양상으로 다변화되었듯이 고전적인 ‘전시’ 에 국한되지 않고 (글)쓰기, (이어)쓰기, 논쟁, 시기적 쟁점에 대한 활동의 묶음, 공간 밖으로의 활동의 전이 등 그 역할이 ‘공간’ 에 깊게 결속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와 웹 상에서의 활동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강정석은 ‘포스트-신생공간’에 대한 글에서 신생공간이 가진 게임적 규칙에 주목하여 ‘신생공간은 스마트폰에 의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공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의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구상’ 했음을 특징으로 파악함. 강정석은 신생공간의 운영자는 기존 전시공간의 대표나 기획자의 호명 대신 운영자로 분하여 게임의 룰을 따르는 플레이어가 되고, 참여 작가도 플레이어로 작동하는 구성을 목도하고 온-오프 라인에서의 연동된 역할을 간취해 냄. 비영리 전시공간에서 신생공간의 ‘플레이어’는 ‘다른 질감의 시간’을 분별하고 경험하는 행위자임에 주목함.(강정석, 2018)
- 비영리 전시공간이라는 창작산실의 방점이 현재는 물리적 ‘공간’의 유무가 지원의 현실적인 근거이나 향후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공간 인식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고, 변화한 공간 인식의 행위자를 파악하며, ‘전시’에서 다양한 ‘활동’으로의 무게 중심 변화의 이유를 추적할 필요가 있음.

#### 4.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정책 토론회(2018)의 시사점

- 제도화된 혹은 주류의 권세를 가진 것으로 보였던 대안공간 조차 존폐를 걱정하는 오늘의 조건에서 지금까지의 대안은 생태계 확립을 향한 대안은 아니었음. 대안공간이라는 용어에서 공간의 의미는 고정된 정체성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와 타협이 계속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잠재성을 암시하려는 의도에서 ‘가임 공간’으로의 재규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공간들이 연대했을 때의 가능성을 포괄할 수 있다고 봄.(서상호, 2018)
- 안소현은 제도화된 대안공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신자유주의적 미술제도에서 대안 공간의 역할을 모색하려고 함. 미술기관들이 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상황이 유연한 기회 제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소규모 비영리 공간들이 미술관의 손쉬운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을 만들어냄을 목도함에 따라, 대안공간은 미분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선별에 집중하고, 작업에 성격에 주목하며, 자기비판적 기능을 강화해 가면서 정당한 노동의 모델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함.(안소현, 2018)
- 미술을 위해 세팅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의 미술가가 찾아야 할 형식이 변화했으며

관객 또한 작업을 만나는 시간, 동선, 조명, 인터페이스가 변하고, 이 사소한 차이들이 전시라는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양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 스스로 예술을 책임져야하는 시대에서 예술의 가치, 분배의 규칙 등 급진적인 고민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함.(윤율리, 2018)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처럼 독자적인 진흥법으로 대안공간진흥법을 제정해야 하며, 대안공간과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공조를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하고, 대안공간 미래비전 수립을 위해 재사유와 공유 및 성찰의 시간을 요청함.(김종길, 2018)

## 5. 비영리 전시공간의 다양한 모색

### 1) 1세대 대안공간의 20주년: 대안의 유효함을 물음

- 1세대 대안공간들의 20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의 개관 20주년 기념전 《프리퀴 1999-2018》(2018.12.12. ~ 2019.1.11.)을 개최함. 작가주의 공간을 표방해 온 공간의 성격을 기반으로 작가-기획자-관람자를 화자로 설정하여 질문과 답변을 전시로 펼침. 사루비아 다방은 2013년 폐관의 위기를 후원회원 가입을 통해 큐레이터 중심의 회원제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극복했다고 밝히고 있음. 아트스페이스 풀은 20주년을 맞으며 기금마련전 《2019 풀이선다》(2019.2.28. ~ 2019.3.31.)를 기획하며 여전히 대안적 공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 필요한 '대안'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힘. 대안공간 루프는 20주년을 맞아 《예술, 시대의 각인: 대안공간 루프 20주년 아카이브 프로젝트》(2019.2.12. ~ 3.13)를 기획함. 과거를 회상해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루프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큐레이터들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서진석 대표 중심의 운영에서 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고 루프의 대표적인 사업인 실험적인 작가 발굴, 지원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부산 오픈스페이스 배는 안정적 공간 운영을 위해 부산 구도심으로 공간 이전을 계획 중임.

### 2) 비영리 전시공간과 작은미술관 사업의 안정적 결합태

- 대안공간으로 출발한 (사)대안공간마루는 2011년부터 폐쇄 방치돼 있던 남해의 보건진료소를 2015년 '남해 바래길 작은미술관'으로 꾸며서 작은미술관 사업에

동참하고 있음.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된 공간들이 공간 콘텐츠 부재로 휴관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감안할 때 대안공간의 운영 주체가 등록미술관이 없는 지역의 작은미술관 사업에 투입되어 공간 운영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수한 경우임.

### 3) 공간 성격의 다변화: 유연함과 선명함

- 신생공간으로 호명되었던 영등포 커먼센터 자리에 꾸러진 전시공간 위켄드와 2/W는 고정된 디렉터십이 아닌 다양한 참여 작가와 기획자가 공동으로 운영되며 위켄드와 2/W는 물리적 공간을 구획하기보다 유기적으로 합쳐지거나 나뉘어지는 공간을 표방함. 운영 주체와 공간의 유연함을 특징으로 삼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표방하거나 활동으로 드러내는 흐름도 포착하게 됨. 공간 힘은 예술정치공간을 표방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예술적 발언에 적극적인 입장을 띠며 산수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목표로 삼음.

### 4) 새로운 공간 주체 접속 모델 개발

- 문래동의 세븐플레이스(7Place)는 기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누구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서 관계가 연결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메이커 스페이스임. 다양한 장비와 워크숍 등 메이커스를 위한 인프라와 공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여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메이커들의 교류와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카페 보스토크X스페이스 공공연회는 식문화와 교류의 공간으로서의 카페의 정체성을 확고히 정착하면서 공간 내외부에서 전시와 지역 교류의 장을 꾸준히 개최하며 일상적으로 예술 문화를 경험하는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신발도매상가에 위치한 동대문 옥상낙원 DRP는 공간 입지의 도시·경제적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예술과 생활의 이질적인 거리감을 축소시켜 가기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음.

### 5) 기획의 내용과 형식으로서의 공유 개념

- 전시공간 d/p는 특정 기간 전시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앞으로 해야 할 전시, 아직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이어나가야 하는 전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나 끝이 나버린 전시에 대한 스터디, 워크숍, 세미나, 미팅, 그리고 작업

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여 이를 d/p의 전시이자 데이터로 아카이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전시와 공간의 일대일 대응 구도에서 공간이 여러 자리에서 펼쳐지는 ‘전시들’의 전시 장소로 재매개화 되는 전시와 아카이빙을 구상함. 복합문화공간 소네마리는 강좌와 세미나가 개최되는 인문학 연구실인 수유너머에 꾸며진 전시공간의 강점을 활용하여 미술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전시 주체에 연구실에 접속하는 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폐쇄적인 미술 생산, 전시, 유통의 구조를 개방화하고 있음.

## 제2절 소결

### 1. ‘공간’에서 ‘활동’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의 분화

#### 1) 대안적 미술 시장 유통 구조 모색

□ 미술제도의 기존 생태계 진입의 난점과 구조적으로 작품 판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작품 제작의 양상은 대안적 시장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 경계에서의 다양한 요구와 실천은 낳았음. 대안적 시장 구조에 대한 실험과 고민은 빠르게 제도 안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여전히 새로운 기획이 모색되고 참여 작가 수의 증대, 관람객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은 여전히 기존 시장 유통 구조가 담아내지 못하는 예술 주체들의 갈급한 문제를 반증함.

#### 2)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상 난점

□ 비영리 전시공간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공간운영비와 인건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변화해가는 홍보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비영리 전시공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임. 공간의 개관/폐관 주기는 각 공간의 운영상의 난점을 반영하기도 하나 젠트리피케이션 쟁점과 맞물려 촉발되기도 하며,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 운영되는 공간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미비로 효율적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신생공간 이후 ‘공간’에서 ‘활동’으로 변화 양상 추적 필요

□ 신생공간 논의에서 포스트 신생공간에 대한 논의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비영리 전시공간에서 특징적 활동 중에는 ‘공간’에 깊게 결속되지 않는 모습을 띠며, 이는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공간 인식 변화의 추이를 이해하고, 변화한 공간 인식의 행위자를 파악하며, ‘전시’에서 다양한 ‘활동’으로의 무게 중심 변화의 이유를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됨.

#### 4) ‘가임 공간’을 고려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비영리 전시공간을 고정된 정체성의 ‘장소’가 아닌, 잠재성을 지닌 ‘가임 공간’으로 고민을 확대해야하며,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비영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변화된 예술 환경에서 예술의 가치, 분배의 규칙을 고민하는 상상력과 이를 진흥시킬 정책적 비전의 수립이 요청되는 바임.

#### 5) 비영리성에 기반한 예술의 공공성 증진

- 비영리 전시공간의 새로운 모색은 대안공간, 신생공간과 같은 생성 시간에 따른 활동 목표의 변별점보다 공간이 처한 예술 생태계 환경에 따라 주체의 문제를 재편하고 성격을 다변화시키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따라서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인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활동,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복합문화예술 활동의 분류는 지향과 중심성에 대한 문제로 활동의 내용에서 명확한 파티션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영리 전시공간의 공통된 고민은 여전히 비영리성에 기반한 예술의 공공성 증진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제5장

### 비영리 전시공간 현황 분석

**제1절 : 모집단 수집 경로 및 방법**

**제2절 : 실태조사 개요**

1. 기초조사 개요
2. FGI 조사 개요

**제3절 : 실태조사 현황 분석**

1. 기초조사 현황 분석
2. FGI 조사 현황 분석

**제4절 : 소결**

## 제1절 모집단 수집 경로 및 방법

### 1) 조사대상 설정

- 앞서 문헌연구로부터 도출된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을 고려하고 운영 주체에 따른 범위인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과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을 모집단 조사 대상의 범위로 설정하였음.
-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발생적 의미보다 활동과 목적(지향점)에 따라 1)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2)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3)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모집단을 조사하였음.
-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 주체는 (준)공공기관이지만 공간의 물리적 조건에서 창작스튜디오(작업실)의 유무에 따라 1)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2) 공공 창작스튜디오와 연결된 전시공간으로 구분하고 모집단을 조사하였음.
- 공간적 범위: 전국
- 시간적 범위: 2016년 ~ 2018년  
(단, 작은미술관, 마을미술프로젝트 조성 공간 2015년 ~ 2018년)
- 조사 대상 설정 시점: 2018년 10월 ~ 12월

### 2) 조사 모집단 수집 경로 및 방법

- 2007년의 대안공간 실태조사 연구와 창작스튜디오 등과 같이 유사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존재했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실태조사를 시도했으나, 본 연구는 '비영리 전시공간' 연구로서 기존의 연구와 모집단의 성격이 크게 다르고 동일한 공간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더라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모집단을 설정해야 했음. 특히 '대안공간' 과 '신생공간' 에 한정되지 않는 다변화된 비영리 전시공간의 모집단의 특징을 고려하고자 했음.
- 또한 비영리 전시공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업화랑, 기업과 관련된 화랑 및 미술관을 배제하고 공공기관의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한 비영리 전시공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으며 전시 및 행사의 개최 이력 확인에 집중하였음. 전시공간을 운영 중이더라도 최근 3년간 활동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모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전시 개최 이력 확인은 국내 최대 시각예술 온라인 홍보 플랫폼 2개 사이트와 공인된 『문예연감』 2017년(2016년 기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음.

-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지역, 시간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모집단 확정 방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서울과 지역 간의 편차가 크고 운영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많은 수의 비영리 전시공간을 모집단의 대상으로 수집했음.
- 미술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지역의 시각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모집단에 추가하였음.
- 수집된 모집단 경로와 방법, 공간 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이 포함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대안공간 및 신생공간 목록의 **62곳**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정책 토론회 『비영리 전시공간 다시보기』의 (사) 비영리 전시공간협의회의 대안공간 정회원과 그 외 대안공간, 신생공간 목록의 **70곳**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년 ~ 2018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공간 (28곳 중 4곳(폐관 혹은 일시적 프로젝트) 제외) **24곳**
  - 서울문화재단 2017년 ~ 2018년 청년문화예술공간 지원사업 선정 공간(공연장 제외) **37곳**
  - 서울문화재단 제외 2016년 ~ 2018년 지자체 문화재단 시각예술 및 유사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선정 공간 **46곳**
  - 지자체 운영 문화기반 시설 미등록 공간(2018년 10월 1일 기준) **29곳**
  - 작은미술관 2015년 ~ 2018년 신규 조성 공간 **14곳**
  - 마을미술프로젝트 2015년 ~ 2018년 신규 조성지 중 전시공간 **10곳**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미술주간 2016년 ~ 2018년 참여 '비영리 전시공간' **33곳**
  - 학술논문 및 단행본 (33곳 중 14곳(폐관 혹은 일시적 프로젝트)폐관 확인 제외, 단, 폐관 1곳 Pre-Test를 위해 모집단 포함) **20곳**

- 문예연감 2017년(2016년 기준) **127곳**
- 온라인 신문 2016년 ~ 2018년 ‘비영리 전시공간’ 키워드 검색 등장 **59곳**
-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및 웹 홈페이지, 블로그 등장 **44곳**
- 《굿즈》(2015.10.14. ~ 10.18) 및 《서울바벨》(2016.01.19. ~ 04.05 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전시 참여 공간 **17곳**
- 온라인 시각예술 홍보 플랫폼 아트바바 2016년 ~2018년 최소 1회 이상 전시공간 **163곳**
- 온라인 시각예술 홍보 플랫폼 네오룩 2016년 ~2018년 최소 1회 이상 전시공간 **190곳**
- 김달진미술연구소 온라인 홈페이지 전시공간 중 ‘대안공간’, ‘기타’, ‘미분류’ 범주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판단되는 공간 **33곳**
-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 공간에서 ‘화랑’ 범주 중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판단되는 공간 **10곳**
-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The Artro(더아트로) 홈페이지 ‘Archive’ 범주 중 ‘Alternative art space’, ‘complex cultural space’, ‘non-profit art space’, ‘public art museum’ 중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판단되는 공간 **32곳**
- 『지지씨뮤지엄·전시관가이드 1』(경기문화재단 발행) 수록 공간 중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판단되는 공간 **4곳**
- 지역활동가 추천 비영리 전시공간 **10곳**

### 3) 모집단 현황

- 수집된 모집단에서 전국에 분포된 비영리 전시공간은 총 440곳으로, 서울 187곳, 경기 59곳, 부산 29곳, 강원 24곳, 대구 18곳, 광주 12곳, 전북 16곳 등의 순서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앞서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한 범주별로 살펴보면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이 323곳,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이 117곳으로 나타남.
- 수집된 모집단에서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총 323곳은 서울 47.99%, 경기 11.15%,

부산 5.26%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집된 모집단에서 전국에 분포된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을 앞장에서 살펴본 범주별로 세분화하면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은 총 159곳,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67곳,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97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범주화한 것으로 실제 운영진의 의견이나 실사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 수집된 모집단에서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총 159곳은 서울 65.4%, 경기 8.2%, 광주 5.0%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집된 모집단에서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총 67곳은 경기 23.9%, 서울 19.4%, 전남 10.4%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집된 모집단에서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총 97곳은 서울 39.2%, 강원 11.3%, 경기 7.2% 등의 순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수집된 모집단에서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로 세분화하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이 99곳, 창작스튜디오와 연결된 비영리 전시공간이 18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범주화한 것으로 실제 운영진의 의견이나 실사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표 5〉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지역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	합계
강원	16	8	24
경기	36	23	59
경남	7	3	10
경북	4	3	7
광주	13	3	16
대구	11	7	18
대전	7	4	11
부산	17	12	29
서울	155	32	187
세종	2	1	3
울산	3	1	4
인천	10	5	15
전남	10	1	11
전북	10	6	16
제주	12	2	14
충남	3	1	4
충북	7	5	12
총합계	323	117	440

〈표 6〉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지역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합계
강원	-	5	11	16
경기	13	16	7	36
경남	-	3	4	7
경북	1	2	1	4
광주	8	1	4	13
대구	5	2	4	11
대전	2	3	2	7
부산	6	5	6	17
서울	104	13	38	155
세종	1	1	-	2
울산	1	-	2	3
인천	5	4	1	10
전남	2	7	1	10
전북	2	2	6	10
제주	5	1	6	12
충남	1	-	2	3
충북	3	2	2	7
총합계	159	67	97	323

〈표 7〉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주별 지역별 분포 총괄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공공 창작스튜디오와 연결된 전시공간	합계
강원	5	3	8
경기	21	2	23
경남	2	1	3
경북	1	2	3
광주	3	-	3
대구	6	1	7
대전	3	1	4
부산	9	3	12
서울	27	5	32
세종	1	-	1
울산	1	-	1
인천	5	-	5
전남	1	-	1
전북	6	-	6
제주	2	-	2
충남	1	-	1
충북	5	-	5
총합계	99	18	117

**제2절 실태조사 개요**

**1. 기초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설정**

- 공간적 범위: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 모집단 중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323곳
- 조사 시점: 2019년 1월 ~ 2월

**2) 조사 방법**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조사지에 의한 이메일 설문 조사, 우편 설문 조사, 온라인 설문(모바일, 이메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모집단에서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71곳**
  - 한국예술연구소: **252곳**
    - 모집단에서 공간의 연락처가 확인된 58곳 온라인/이메일 조사
    - 모집단에서 공간 운영자의 연락처가 확인된 48곳 모바일 조사
    - 모집단에서 주소가 확인된 곳 58곳 우편 조사/이메일 조사/온라인 조사
    - FGI 조사에서 기초조사 포함시켜 41곳 온라인/이메일/방문 조사
    - 연락처 미상으로 47곳 조사 미 시행
- 최종 표본 수 : 총 **323개** (조사응답률 **32.2%**)
- 표본 구성

〈표 8〉 기초조사 지역별 표본 구성 (단위: 개)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회수	3	9	3	1	4	3	2	7	56	1	2	3	2	4	1	2	1	104

**3) 기초조사 방법과 설계**

- 일반운영현황 : 1) 전시공간 명칭(국문명, 영문명), 2) 소재시(시·도·군·구 주소), 3) 연락처(일반전화, 휴대폰), 4) 이메일, 5) 온라인주소(홈페이지, SNS),

6) 개관 연 월 일, 7) 대표자명, 8) 작성자명, 9) 작성자 직위

#### □ 기초조사 설문조사 설계의 단계

-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진 및 전문가 6인과 연구진이 참여한 자문회의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연구 전반과 비영리성의 개념,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 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 등 설문의 필수적인 내용을 검토함.
- 연구진은 2007년 『한국의 대안공간 실태연구』의 설문 항목, 『2017년 전국 미술관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설문 항목,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지원 양식 항목 등을 참고하여 설문지의 조사 항목을 1차로 설계함.
- 설계된 설문지를 비영리 전시공간 현재 운영진 1인과 폐관된 운영진 1인 총 2인을 대상으로 설문 항목의 적합성과 응답의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고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시행함.
- 연구진은 수정한 설문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검토하였음. 설문시간, 설문의 주제, 설문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조사’와 기초조사의 항목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FGI 조사’로 분리한 2종의 설문지를 확정함.

〈그림 3〉 기초조사 설문조사 설계의 단계



□ 기초조사 설문조사 설계의 방향 및 목적

- 다변화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영리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를 파악하고자 함.
- 공간의 비영리적 성격과 비영리성에 대한 중요도 인식 파악
- 사업자 등록 유무 파악을 통해 비영리 전시공간의 사업 형태 파악
- 공간의 부동산 형태 파악
- 공간의 대표자와 급여 받는 인력 파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인지 여부 파악 및 지원, 수행 이력 파악
- 기타 공공재원 지원사업 지원, 수행 이력 파악
- 공간 운영의 어려운 점 파악
- 재정적 지원 방식 외에 다른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정책 및 방안 파악

□ 기초조사 설문 항목

- 1) 공간의 활동 범위
- 2) 공간의 비영리적 성격 유무
  - 2)-1. **(비영리적 성격이 있을 때)**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 의 중요도
    - 2)-1-1.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에 대한 자유 서술
    - 2)-1-2. **(비영리적 성격이 없을 때)** 비영리 전시공간과 다른 성격
      - 2)-1-2-1. 비영리 전시공간과는 다른 성격에 대한 자유 서술
  - 2)-3. **(비영리적 성격의 유무 외 기타)** 자유 서술
- 3) 사업자 등록 유무
  - 3)-1. 사업자 유형
- 4) 공간의 부동산 형태(자가소유, 임대, 기타)
- 5) 공간 대표자의 연령대와 명 수
- 6)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인력
-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 공간지원사업 인지 여부

- 7)-1. 지원 이력
- 7)-2. 지원 후 선정되어 수행한 이력
-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지원 이력
- 8)-1. 지원 후 선정되어 수행한 이력
- 9) 공간 운영에서 어려운 점
-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방식의 필요한 지원 정책과 방식

## 2. FGI 조사 개요

### 1) 조사대상 설정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이메일 조사, 방문 조사
- 공간적 범위: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 모집단 중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모집단 323곳 중 41곳
- 조사 시점: 2019년 1월 ~ 3월

### 2)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지에 의한 이메일 설문 조사, 방문 조사

- 최종 표본 수 : 총 41개
- 표본 구성

〈표 9〉 FGI조사 지역별 표본 구성 (단위: 개)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총합계
회수	1	3			2	2	2	2	25			2		1	1			41

### 3) FGI 조사 방법과 설계

- 일반운영현황 : 1) 전시공간 명칭(국문명, 영문명), 2) 소재시(시·도·군·구·주

소, 3) 연락처(일반전화, 휴대폰), 4) 이메일, 5) 온라인주소(홈페이지, SNS), 6) 개관 연 월 일, 7) 대표자명, 8) 작성자명, 9) 작성자 직위

□ FGI 설문조사 설계의 단계는 기초조사 설문조사 설계의 단계와 같음.

□ FGI 설문조사 설계의 방향 및 목적

- 사업자 유형에 따른 업종 형태 파악
-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파악
- 전시공간에 대한 선호 명칭 조사와 이유
- 전시공간의 시설현황 파악
-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파악
- 운영조직 및 고용 현황 파악
- 운영 인력의 직무 현황 파악
- 재정운영 방식 파악
- 지원사업 공모 및 수혜 경험
-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

□ FGI조사 설문 항목

- 1) 사업의 업종 형태
- 2)-1. (기타의 경우) 사업자 상 업태 및 종목
- 2)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성
  - 2)-1.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성 비중
  - 2)-2. 기타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성
  - 2)-3. 전시공간 명칭 선호도
    - 2)-3-1. 선호의 이유
    - 2)-3-2. 항목의 전시공간 명칭 외 선호 명칭 자유 서술
- 3) 전시공간의 시설현황
  - 3)-1. 총 부지 면적

- 3)-2. 건물 총 면적
- 3)-3. 전시 전용 면적
- 3)-4. 전시공간의 용도와 규모
- 4) (전시공간 임대 **의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료
- 4)-1. 전시공간 이전 유무
- 4)-2. 전시공간 이전 사유
- 5)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 5)-1. 자체 기획전 유무
- 5)-1-1. 연 평균 자체 기획전 횟수
- 5)-1-2. 자체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
- 5)-2. 전시공간의 공모전 개최 유무
- 5)-2-1.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
- 5)-3. 유료 대관전 개최 유무
- 5)-3-1. 연 평균 유료 대관전 개최 횟수
- 5)-4. 외부 기획자 섭외, 공동 및 협업 기획전 개최 유무
- 5)-4-1. 외부 기획자 섭외, 공동 및 협업 기획전 개최 횟수
- 5)-5.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유무
- 5)-5-1.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대상
- 5)-5-2. 대상별 연 평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횟수
- 5)-6. 전시공간의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 유무
- 5)-6-1. 연 평균 자체 출판물의 개 수
- 5)-7.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 유무
- 5)-7-1. 연 평균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횟수
- 5)-7-2.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대상
- 5)-7-3.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내용

- 5)-7-4.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목적
- 5)-8. 시각예술 전시외 다른 프로그램 운영
- 6)-1. 전시공간의 연간 개관일 구성
- 6)-2. 평균 개관 시간
- 6)-3. 일평균 관람 인원
- 6)-4. 전시 1회당 평균 관람 인원
- 7)-1. 전시공간의 운영 조직
- 7)-2. 공간의 대표자 연령대
- 7)-3. 전시공간의 총 인력
- 7)-4.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총 인력
- 7)-5.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 7)-5-1. 공간의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고용형태
- 7)-5-1-1. 정규직 근로자 명 수, 평균 임금 금액
- 7)-5-1-2. 기간제 근로자 명 수, 평균 임금 금액
- 7)-5-2. 공간의 대표자와 비 상근 인력의 명 수, 평균 임금 금액
- 8)-1. 전시공간 대표자의 직무 3가지
- 8)-2. 전시공간 대표자의 중요한 직무 3순위
- 8)-3. 전시공간의 대표자와 상근 인력의 직무 비중 높은순 3가지
- 8)-4. 전시공간의 대표자와 상근 인력의 직무 비중 3순위
- 8)-5. 전시공간의 대표자와 비상근 인력의 중요한 직무 3순위
- 8)-6. 전시공간의 대표자와 비상근 인력의 직무 비중 3순위
- 8)-7.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의 어려운 점
- 9)-1.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총 수입 예산의 범위
- 9)-2.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 9)-3. 최근 3개년(2016년 ~2018년)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 9)-4.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총 지출 예산의 범위
- 9)-5.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 9)-6. 최근 3개년(2016년 ~2018년) 전시공간 운영 재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 9)-7. 전시공간 운영의 지출에서 어려운 점
- 10)-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인식 여부
- 10)-1-1. 지원 이력 유무
- 10)-1-1-1. 지원 해당년도
- 10)-1-2 지원 후 선정되어 수행 여부
- 10)-1-2-1. 수행 해당년도
- 1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지원 이력 유무
- 10)-2-1. 지원 해당년도
- 10)-2-2. 지원 후 선정되어 수행 여부
- 10)-2-3. 수행 해당년도
- 11)-1. 공간 운영의 가장 어려운 부분
- 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외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방식
- 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

### 제3절 실태조사 현황 분석

#### 1. 일반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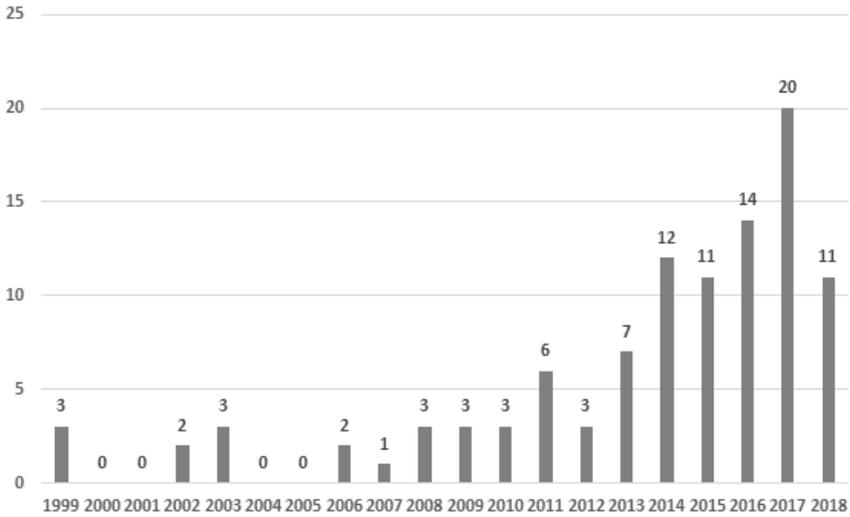
##### 1) 지역별 설립연도의 분포 (N=104)

- 전국에 분포한 비영리 전시공간의 설립연도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17곳,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87곳으로 나타남.
- 비영리 전시공간은 2010년 전까지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전후로 전국으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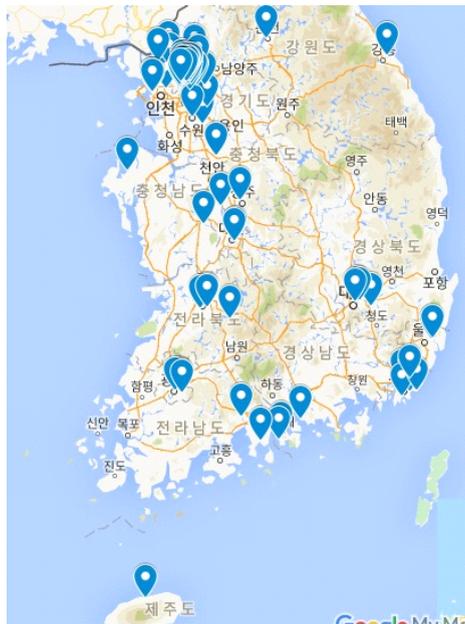
〈표 10〉 연도별 지역별 비영리 전시공간의 설립 수 (단위: 개)

	1999	2002	200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계	
강원									1						1	1	3	
경기		1	2			1							2	1	2		9	
경남													1	1		1	3	
경북															1		1	
광주												1	2		1		4	
대구				1			1								1		3	
대전															1	1	2	
부산			1				1			1		1	1		1	1	7	
서울	3				1	2	1	2	2	2	5	8	4	10	10	6	56	
세종									1								1	
울산									1						1		2	
인천		1										1		1			3	
전남												1		1			2	
전북				1							1		1		1		4	
제주											1						1	
충남									1							1	2	
충북								1									1	
총합계	3	2	3	2	1	3	3	3	3	6	3	7	12	11	14	20	11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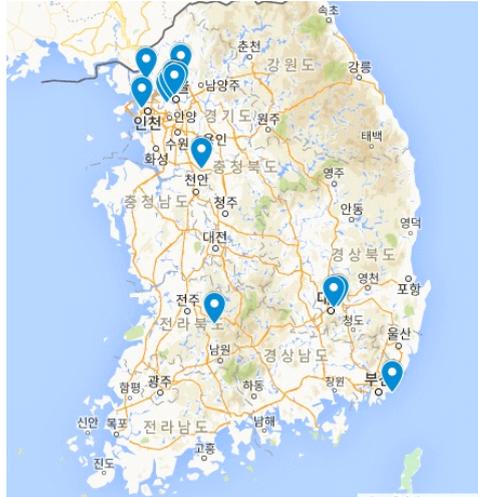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비영리 전시공간 설립 수 (단위: 개)



〈그림 5〉 전국 104곳 비영리 전시공간의 분포 (2019년 3월 현재)



〈그림 6〉 1999년 ~ 2009년 설립 비영리 전시공간 17곳의 전국 분포



〈그림 7〉 2010년 ~ 2018년 설립 비영리 전시공간 87곳의 전국 분포



## 2) 자체 홈페이지 또는 SNS 운영 (N=104)

- 설문에 응답한 104곳 중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SNS를 어느 하나라도 운영 중인 곳은 86곳,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SNS를 어느 하나라도 운영 중이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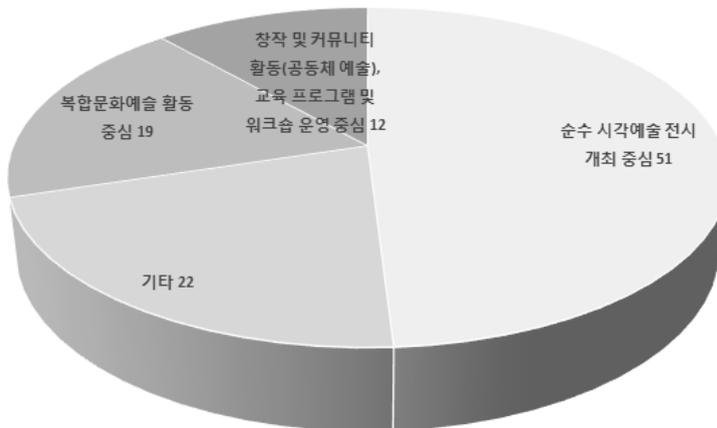
\* 일러두기: 기초조사 현황 분석 및 FGI조사 현황 분석의 개방형 질문에 응답한 공간의 명칭은 연구목적 외에 사용,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함에 따라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임의의 번호를 사용함. 따라서 개방형 설문 결과에 등장하는 동일한 임의의 번호가 동일한 공간을 지시하지 않음을 밝힘.

## 2. 기초조사 현황 분석

### 1)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 (N=104)

- 104곳의 설문 응답 중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선택한 공간은 51곳, 기타 22곳,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19곳,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공동체 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중심 12곳으로 나타남.

〈그림 8〉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 (단위: 개)



### 1)-1 기타로 응답한 공간의 활동 범위 중 주요 내용 (N=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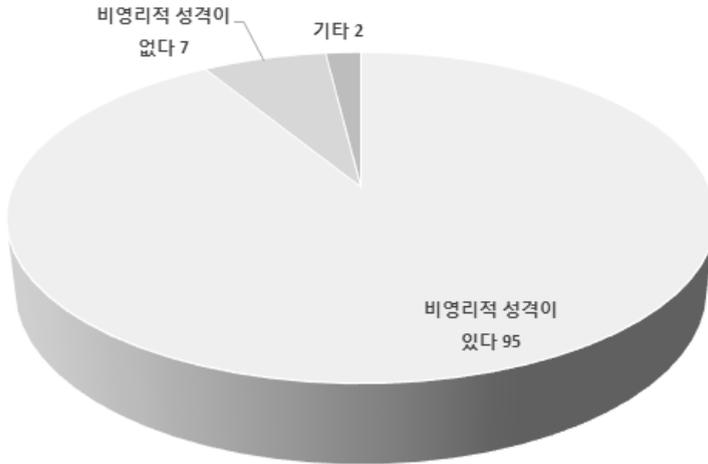
□ 22곳이 활동 범위를 서술하였는데,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와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이 경계 없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8곳,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과 복합문화예술 활동이 경계 없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1곳, 세 가지 활동 범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곳은 2곳으로 나타남. 이밖에 자유롭게 서술한 공간은 11곳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기\_A1) 시각을 포함한 실험, 대안예술, 국제교류, 네트워크 활동
- (인천\_A1) 도시와 공간, 공동체와 생태, 정치성과 로컬리티 관련 리서치 기반의 큐레이팅 활동, 전시, 프로젝트, 연구와 조사,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포럼을 운영함.
- (인천\_A2) 미술과 건축의 접점에서 도시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시, 출판, 세미나, 워크숍,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서울\_A1) 도시에서 공간이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고 활동함. 스콧을 활동의 범위로 추구하기도 하며 일상성 안에서 예술의 의미화를 중요시 함.
- (서울\_A2) 문화예술, 생활양식 일반에 관련된 콘텐츠를 다룸. 콘텐츠의 구현 방식을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음.
- (서울\_A3) 창작 활동과 시각예술 복합문화공간을 동시에 수행함.
- (서울\_A4) 작업실 및 순수 시각예술 전시장으로 활동함.

### 2) 전시공간의 비영리적 성격 (N=104)

□ 104곳 중 95곳이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응답함. 7곳은 비영리적 성격이 없다고 응답함. 2곳은 '기타' 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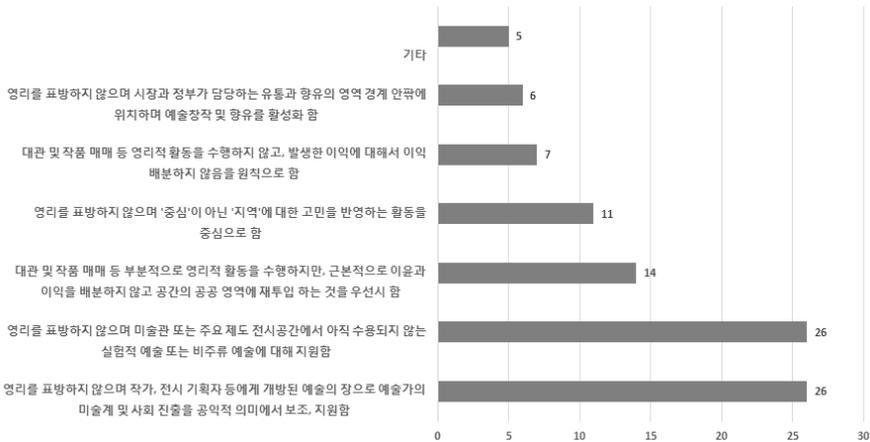
〈그림 9〉 전시공간의 비영리적 성격



### 2)-1 (비영리적 성격이 있는 경우) 전시공간의 비영리성 중 가장 중요한 점 (N=95)

- 앞의 항목에서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응답한 95곳 중 26곳이 비영리성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 전시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 이라고 응답함. 다른 26곳이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라고 응답함.
- 이밖에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이익 배분 없이 공간의 공공영역에 재투입 우선시” (14곳),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중요시” (11곳),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이익 배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7곳),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예술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 함” (6곳), 기타 (5곳)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전시공간의 비영리성 중 가장 중요한 점 (단위: 개)



2)-1-1 ‘기타’ 로 응답한 공간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 주요 내용 (N=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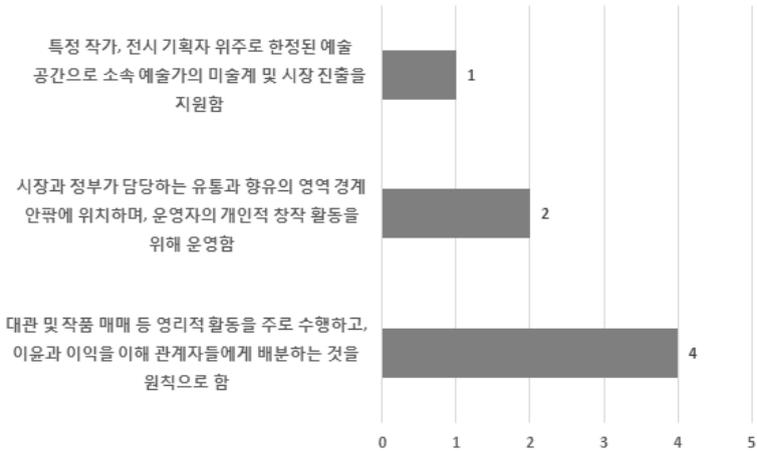
- (서울\_A1) 지원금 규모의 축소로 커뮤니티 형태로 사업 성격이 변함. 무료 대관 전시도 보류 중임.
- (서울\_A2) 대안적 미술시장 형성을 위한 영리적 성격을 가짐.
- (서울\_A3) 자생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영리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제도 안팎 예술가들을 보조함. 예술가의 작업 및 행정 보조, 예술 작품의 시민 향유, 소비 기회 창출, 새로운 예술 실험.
- (제주\_A1) 결코 이윤이 발생할 수 없는 예술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

2)-2 (비영리적 성격이 없는 경우) 비영리 전시공간과 다른 성격 (N=7)

- 비영리적 성격이 없다고 응답한 7곳 중 4곳이 비영리 전시공간과의 다른 성격으로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이윤과 이익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고 응답함.
- 2곳은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운영

자의 개인적 창작 활동을 위해 운영한다” 고 응답함. 1곳은 “특정 작가, 전시 기획자 위주로 한정된 예술 공간으로 소속 예술가의 미술계 및 시장 진출을 지원” 한다고 응답함.

〈그림 11〉 비영리 전시공간과 다른 성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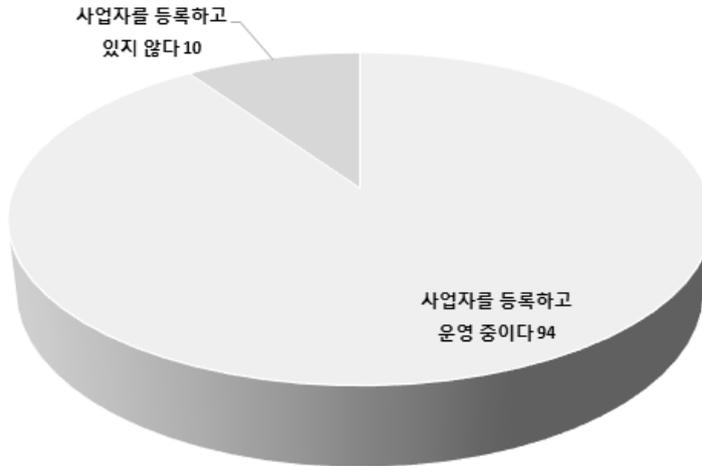
2)-3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로 응답한 이유 (N=2)

- (서울\_A1) 작가에게 무료로 오픈하는 공간,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작가들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제품화, 상품화하는 단계까지 지원함.
- (서울\_A2) 상황에 따라 영리, 비영리 등 여러 가지 면으로 읽힐 수 있음.

3) 사업자 등록 및 운영 (N=104)

- 104곳 중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곳은 94곳으로 나타났고,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10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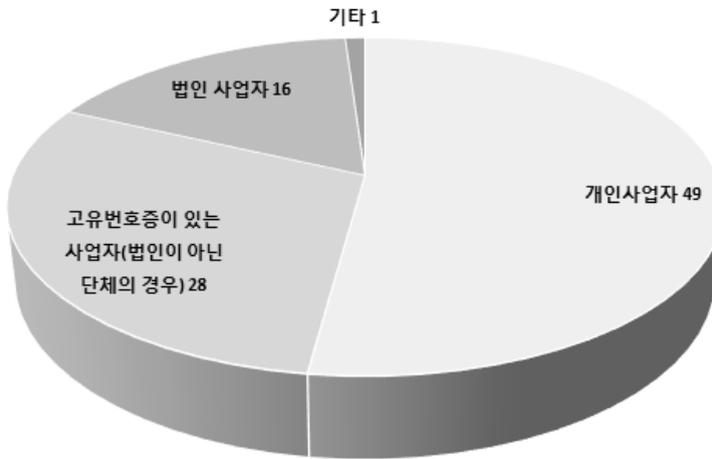
〈그림 12〉 사업자 등록의 유무 (단위: 개)



### 3)-1 등록된 사업자의 유형 (N=94)

-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94곳 중 그 유형이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한 곳은 49곳,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라고 응답한 곳은 28곳, 법인 사업자라고 응답한 경우는 16곳, 기타로 응답한 곳은 1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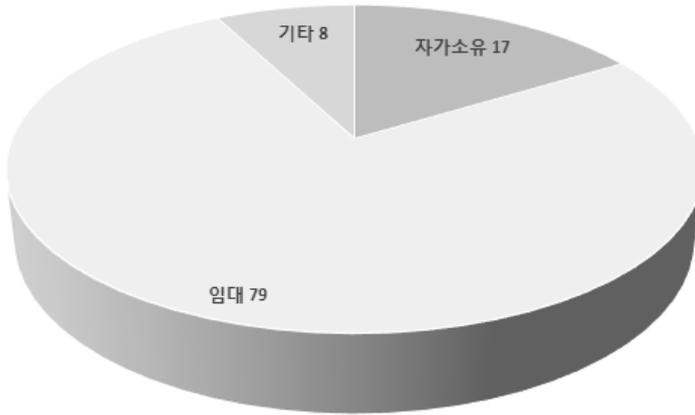
〈그림 13〉 등록된 사업자의 유형 (단위: 개)



#### 4) 전시공간의 형태 (N=104)

- 104곳 중 전시 공간이 임대인 경우는 79곳, 자가 소유인 곳은 17곳, 기타는 8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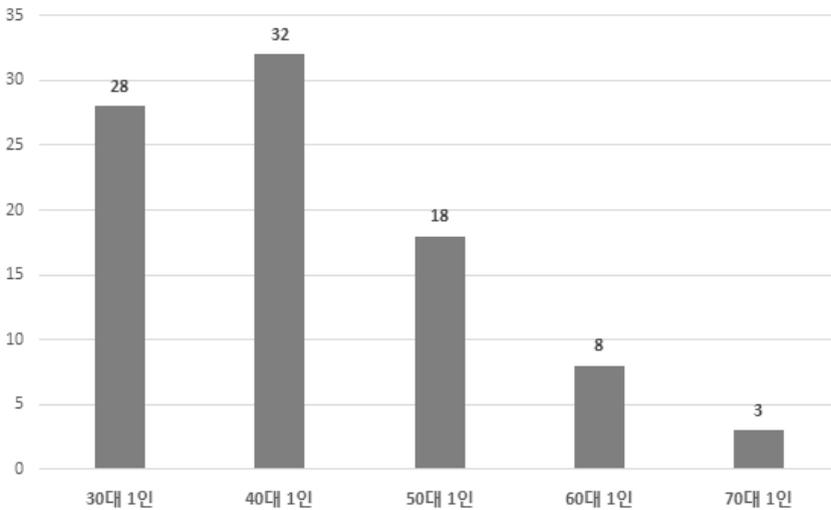
〈그림 14〉 전시공간의 형태 (단위: 개)



#### 5) 공간의 대표자 연령대 (N=104)

- 104곳 중 1인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곳은 89곳, 1인을 초과하는 곳은 15곳으로 나타남. 1인이 대표자로 운영 중인 89곳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1인이 3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30대 1인 28곳, 50대 1인 18곳, 60대 1인 8곳, 70대 1인 3곳으로 나타났음. 한편 20대가 대표자로 운영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3인과 30대 1인이 공동 대표자로 있는 1곳이 유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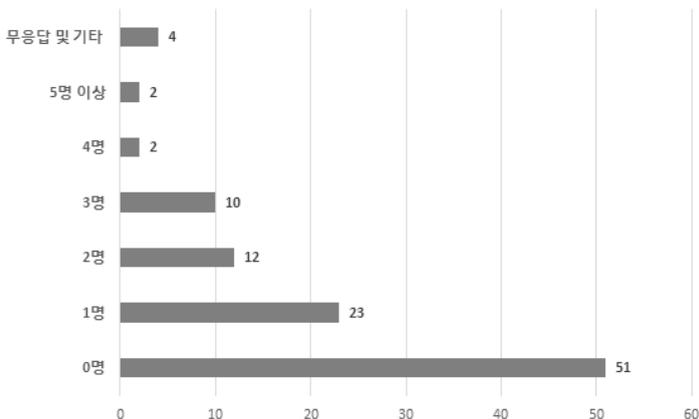
〈그림 15〉 공간의 대표자 연령대 (단위: 개)



6) 급여를 받는 총 인력 (N=104)

□ 51곳이 급여를 받는 인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1명이 급여를 받는 곳은 23곳, 2명이 급여를 받는 곳은 12곳, 3명이 급여를 받는 곳은 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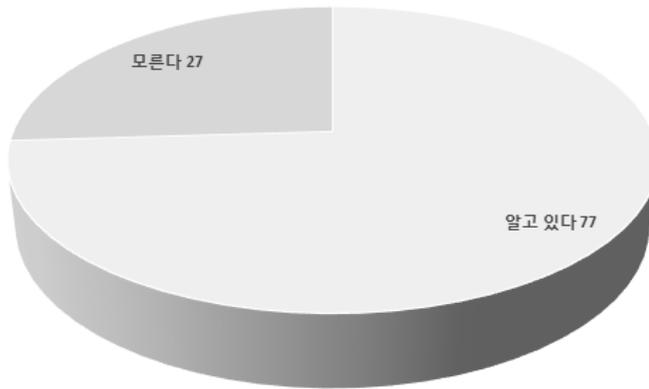
〈그림 16〉 급여를 받는 총 인력 (단위: 개)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인지 유무 (N=104)

□ 77곳이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7곳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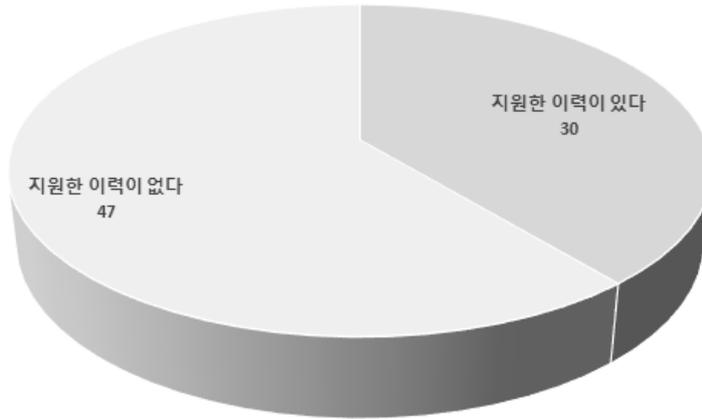
〈그림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인지 유무 (단위: 개)



7)-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이력 (N=77)

□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77곳 중 사업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 곳은 30곳으로 나타났고, 지원한 이력이 없는 곳은 47곳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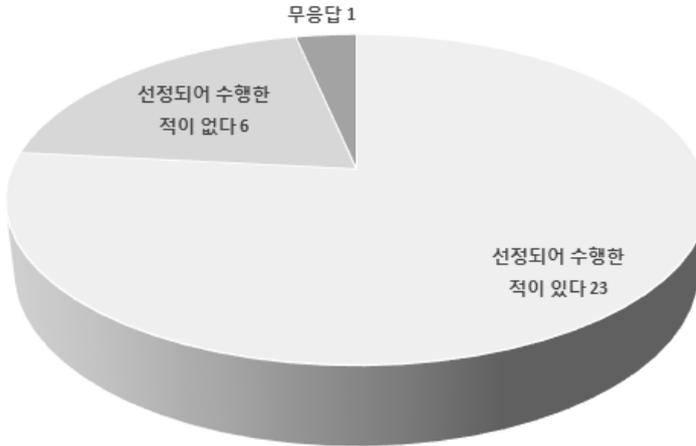
〈그림 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이력 (단위: 개)



7)-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선정 및 사업 수행 경험 (N=30)

- 지원 이력이 있다고 답한 30곳 중 선정으로 이어져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간은 23곳으로 나타남. 6곳은 선정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곳이 무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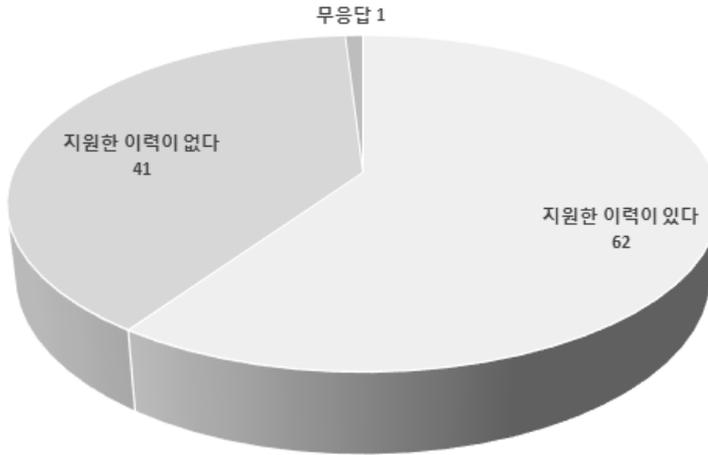
〈그림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지원 선정 및 사업 수행 경험 (단위: 개)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지원 이력 (N=104)

□ 62곳이 지원 이력이 있다고 답했으며, 41곳이 지원한 이력이 없다고 답함. 1곳이 무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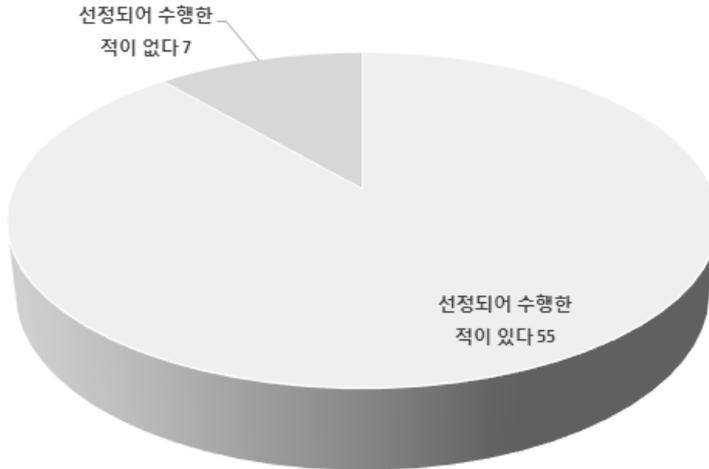
〈그림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지원 이력 (단위: 개)



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 수행 경험 (N=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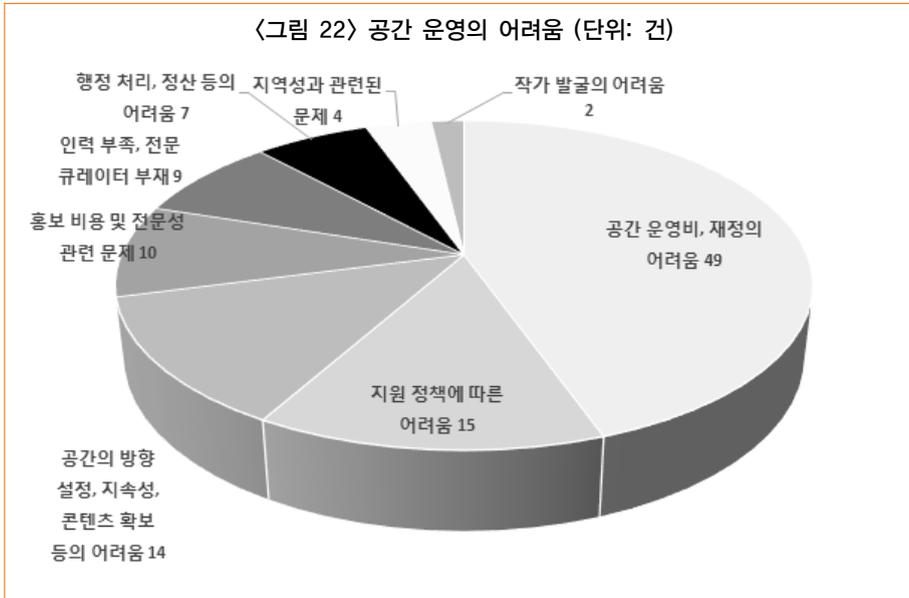
- 지원 이력이 있다고 답한 62곳 중 선정으로 이어져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간은 55곳으로 나타남. 7곳은 선정되지 못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경험 (단위: 개)



#### 9) 공간 운영의 어려움 (N=101, 무응답=3)

- 104곳 중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지 않은 3곳을 제외한 101곳의 의견(복수 응답 포함 110건)을 범주화 하여 분석한 결과 1) 공간 운영비, 재정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언급했음. 그 다음으로 2) 지원 정책에 따른 어려움, 3) 공간의 방향 설정, 지속성, 콘텐츠 확보 등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4) 홍보 비용 및 전문성 문제, 5) 인력 부족, 전문 큐레이터 부재, 6) 행정 처리의 어려움, 7) 지역성과 관련된 문제, 8) 작가 발굴의 어려움 등을 꼽았음. 설문에 응답한 어려움들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기 보다 서로 연관되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임. 주요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간 운영비 재정적 어려움) 인건비와 임대료, 공간 유지비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언급했으며 지역 간, 공간의 활동 범위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서술하였음. 일부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공간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활동과 병행하면서 공간을 운영해야 하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기도 했음.

- (경기\_A1) 운영을 위한 경제 활동과 작가의 삶 병행의 어려움.
- (경남\_A1) 공간 유지의 어려움.
- (경북\_A1) 재정의 어려움.
- (광주\_A1) 재정적 안정성.
- (대구\_A1) 재정적인 어려움. 후원이 아닌 개인 기관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
- (대전\_A1) 임대료, 시설관리비 등 재원 조성의 어려움.
- (부산\_A1) 기본 운영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음. 인건비가 부족하며 운영의 지속성 예측을 판단하기 어려움.
- (세종\_A1) 공간 운영의 자금이 부족함.
- (서울\_A1) 비영리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 등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움.

- (서울\_A2) 비영리로 운영하면서 재원 조달을 운영자의 외부 인건비, 사업 수당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과 운영진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워 많은 전시를 수용하기 어려움.
- (울산\_A1) 운영 자금이 부족함.
- (인천\_A1)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공간 운영의 어려움과 기획 역량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움.
- (전남\_A1) 전시공간 운영비 부족함.
- (전북\_A1) 운영 활동이 개인 경비와 노동으로 집약되고 있음.
- (제주\_A1) 대표자 사례비, 기획자 등 인건비와 임대료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충남\_A1) 좋은 기획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함.
- (충북\_A1) 장소 운영비, 기획자 인건비 부족,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유지의 어려움.

□ (지원 정책에 따른 어려움) 지원 정책, 지원사업과 관련된 어려움(지원 자격, 단기적 사업 등)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었음. 특히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 실태조사에 따른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 정책의 부재 등을 꼽았음.

- (강원\_A1) 카페형 전시공간으로 지원 자격 불가.
- (경기\_A1) 공간 현황을 무시한 일괄적 제도 수립, 운용, 적용에 따른 어려움.
- (경기\_A2) 직접 실태조사 후 공간에 맞는 지원책 마련 필요.
- (광주\_A1) 보조금 사업자에서 대표의 정당한 대가 체계(기획비)의 부재.
- (대구\_A1) 공간의 특수성 이해 및 관리 필요.
- (부산\_A1)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지원금이 적어 규모에 맞는 단기적 다수의 사업을 지원, 실행해야 함.
- (서울\_A1)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몰이해, 다각적 전시공간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서울\_A2) 중장기 프로젝트 준비와 실행의 어려움, 계량적 평가 지표에 따른

결과 보고서의 불합리성.

- (서울\_A3) 공공의 역할을 민간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치가 판단되거나 기초예술 생태계 지원처럼 민간 공간의 생태계 조성 지원의 계기, 지속적인 재원 마련의 기회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공간의 방향 설정, 지속성, 콘텐츠 확보 등의 어려움) 비영리성 추구의 문제, 자립의 문제, 대안적 담론 형성 문제, 공간의 정체성 및 콘텐츠 유지 등 공간의 내적인 문제와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시설 유지, 법적인 문제, 네트워크 부재의 문제를 어려움으로 꼽았음.

- (강원\_A1) 생존이 우선이며 자립은 그 다음의 일임.
- (광주\_A1) 대안적 담론을 제시하는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현실적 어려움.
- (부산\_A1)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간 독립의 필요성.
- (서울\_A1) 자체 수익 구조 개발의 어려움.
- (서울\_A2) 공간 정체성 유지의 어려움.
- (서울\_A3) 공간의 특성상 입주자 대표가 다수이고, 법적인 문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
- (서울\_A4) 열린 공간으로서의 콘텐츠 지속성 유지의 어려움.
- (서울\_A5) 공간의 네트워크 부족, 많은 전시 공간들의 단발적 운영으로 자료 아카이브가 안 되고 있어 유사 공간들과의 맥락 만들기 어려움.
- (서울\_A6) 수익 구조의 문제, 미술 생태계의 연대 필요.
- (울산\_A1) 지속적인 공간 컨셉 유지의 어려움.

□ (홍보 비용 및 전문성 부족) 복합문화예술활동을 공간의 활동 범위로 삼는 공간들 일부가 홍보비 및 홍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또한 시각예술 전시 개최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공간의 물리적 접근성으로 인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언급하였음.

- (강원\_A1) 홍보의 어려움.
- (경기\_A1) 홍보 경비 충당.

- (부산\_A1) 언론 노출, 매거진 등을 통한 부산 작가 홍보.
- (부산\_A2) 외진 곳에 위치하여 홍보에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
- (서울\_A1) 공간 홍보,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험과 만족도 제공.
- (서울\_A2) 대형 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 비해 적은 홍보 비용.
- (서울\_A3) 홍보와 마케팅의 어려움.

□ **(인력 부족, 전문 큐레이터 부족)** 1인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나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전문 큐레이터가 부재한 이유로 인력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음.

- (대구\_A1) 인력 부족과 인력 확충을 위한 경제적 여유 부족.
- (부산\_A1) 예산의 문제로 전문 큐레이터 부재, 상주 인력 없음.
- (전남\_A1) 인력 부족.
- (전북\_A1) 1인 운영으로 인한 업무 과중.
- (서울\_A1) 인력 교체의 문제.
- (서울\_A2) 인력 부족.
- (서울\_A3) 상근 인력 고용의 어려움.

□ **(행정 처리의 어려움)** 지원금 신청부터 정산, 결과 보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행정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개별적인 행정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 (경기\_A1) E-나라 도움 예산 집행과 정산.
- (경남\_A1) 민원 처리.
- (광주\_A1) E-나라도움 시스템은 공간 운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
- (서울\_A1) 공간의 정체성과 지원서식 제출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 위한 행정 서식 작성.
- (서울\_A2) 개인 사업자 회계 어려움.
- (전남\_A1) 공모 지원 작성의 어려움.

- (부산\_A1) 지원과 정산에 50% 이상의 소모적인 에너지 투자.
- (전북\_A1) 행정상 서류작성과 집행절차의 어려움(E-나라도움).

□ **(지역성과 관련된 문제)** 지역에 위치한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저변 확대를 하기 어려운 환경, 지역성 연구의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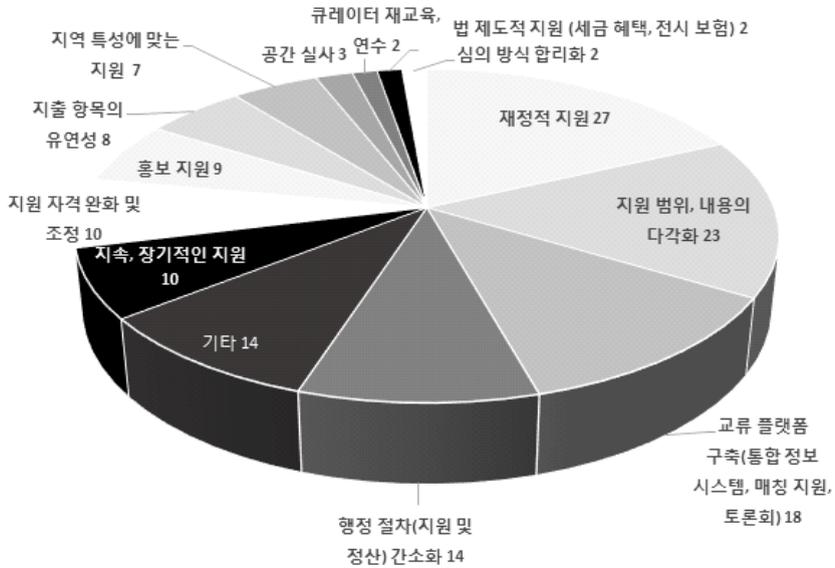
- (경북\_A1) 지역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인천\_A1) 지역성에 대한 비평이나 대안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
- (경기\_A1)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심과 지역 양 극단의 인식으로 정체성 확보 어려움.
- (부산\_A1) 지역의 전문 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잦은 인력 교체.

□ **(작가 발굴의 어려움)** 일부 영리적 활동을 하고 있는 복합문화예술활동의 전시공간이 작가 발굴의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 (경기\_A1)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시 희망 작가 찾는 데 어려움.
- (충남\_A1) 신진작가 발굴.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방식 (N=99, 무응답=5)

〈그림 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방식 (단위: 건)



- 104곳 중 필요한 지원 정책이나 방식을 서술한 99곳의 의견((복수응답 포함 149건)을 범주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응답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재정적 지원’ 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재정적 지원에는 인건비 지원, 공간 시설 유지 보수비 지원, 임대료 지원, 운영비 지원, 지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서술하였음.
-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 지원 정책이나 지원 방식은 1) 지원 범위, 내용의 다각화 2) 교류 플랫폼 구축(통합정보시스템, 매칭 지원, 토론회 개최 등), 3) 행정 절차(지원 및 정산) 간소화, 4) 기타(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5) 지속, 장기적인 지원, 6) 지원 자격 완화 및 조정, 7) 홍보 지원, 8) 지출 항목의 유연성, 9)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10) 공간 실사, 11) 큐레이터 재교육 및 연수, 12) 법 제도적 지원(세금 혜택, 전시 보험 등), 13) 심의 방식의 합리화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의견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연관되거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기도 함. 주요 의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 범위, 내용의 다각화)** 전시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범위의 공간의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공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공간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전시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매칭 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내에서도 비주류 공간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 (강원\_A1) 지원사업 대상의 다양화.
- (경기\_A1) 지원 내용에서 신작 창작 2회는 사립미술관 지원 내용에 적합할 뿐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과의 변별성이 없음.
- (경기\_A2) 전시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
- (경기\_A3) 비영리 전시공간 내에서도 비주류 공간 지원 확대.
- (광주\_A1) 다른 전시공간과의 협업 프로젝트 지원 필요.
- (대구\_A1) 대관 사업을 병행하는 비영리 전시공간과 차등화 지원 필요.
- (부산\_A1) 지원 내용의 다각화 필요.
- (서울\_A1) 타 지원사업 간 연계와 매칭 지원.
- (서울\_A2) 신작 2회의 전시는 프로그램의 깊이를 위해 불필요한 조항임.
- (서울\_A3) 기업과 개인의 예술후원을 위한 네트워크 개발 및 매칭 지원, 현장분석을 토대로 지원사업 프로그래밍.
- (서울\_A4) 시각예술에 국한하여 비영리전시공간을 포방하는 것보다 영리와 비영리를 오가며 장르 개방, 탈 장르적인 예술 활동을 추구하고 있음. 현재의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공간의 규정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울산\_A1) 비영리성의 다양한 개념 존중 필요.
- (인천\_A1) 지원 내용 미술(전시) 중심이 아닌 다각화 필요, 아카이브, 연구,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 인정 필요.
- (전북\_A1) 공간 개별 상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필요.

□ **(교류 플랫폼 구축(통합정보시스템, 매칭 지원, 토론회)** 공간에서 전시하는 작가, 기획자 등의 정보와 공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과 비영리 전시공간 간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경기\_A1) 전시 작가 데이터베이스 공유.

- (대전\_A1) 신규 비영리 전시공간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 (대전\_A2)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 네트워크를 통한 운영 방식 공유, 전문 기획자 매칭을 통한 신진 작가 큐레이팅 지원.
- (부산\_A1)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타 공간에 대한 정보, 사업 가이드, 컬설팅 등 도움이 필요함. 비영리 전시공간의 운영 현황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채널이 필요함.
- (서울\_A1)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들 간의 정보 공유 등 정기적인 네트워크.
- (서울\_A2) 전시 통합 홍보 플랫폼.
- (서울\_A3) 비영리 전시공간 허브.
- (서울\_A4)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사회적 홍보 및 특징 안내, 비영리 전시공간 아카이브 및 맵 구축, 배포.
- (서울\_A5) 공간과의 네트워크, 여러 공간간의 공동 프로젝트 지원 제도, 작가들에게 직접 공간을 설명하는 자리 마련.
- (서울\_A6) 비영리 공간 간의 혹은 비영리 공간에 대한 네트워킹.
- (서울\_A7) 생성되고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홍보.
- (전북\_A1) 타 공간과의 교류 확장 프로그램.
- (충남\_A1) 신진데이터 베이스 구축.

□ (행정 절차(지원 및 정산) 간소화) 지원사업의 지원에서부터 재정시스템인 'E-나라 도움' 사용 불편, 정산 결과물의 정량화 어려움 등을 언급함.

- (대구\_A1) 사업지원과 정산과정에서 행정적 관리 협조.
- (부산\_A1) 예산 규모에 비해 정산,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타 사업보다 과중되어 있고 어려움.
- (서울\_A1) E-나라 도움 시스템의 비효율성.
- (서울\_A2) 정산 절차 완화(행정지원).
- (서울\_A3) 결과물 정량화에 대한 부담감.

- (서울\_A4) 정산 보조 업무를 위한 세무사 지원.
- (서울\_A5) 정산의 비효율성(E-나라도움).
- (서울\_A6) 결과 보고서 작성의 편의, 정산 미흡 단체의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식을 보장하되, 전반적인 정산의 유연성을 보장 필요.
- (인천\_A1)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어려움.
- (전북\_A1) 행정적 미숙으로 지원금 혜택 포기, 좌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함, 서류를 잘 갖추는 곳이 지원금을 따내는 문제 개선되어야 함
- (제주\_A1) E-나라 도움 폐지.

□ (기타(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 공간 운영에 관한 컨설팅 지원, 국가 시각예술 지원 정책과의 괴리, 근본적인 지원사업의 변화를 언급함.

- (경남\_A1) 신인 발굴이나 신인 작가에 대한 기회 제공에 관한 정책.
- (서울\_A1) 지원 정책의 내용과 분야가 섬세해 질수록 비영리 전시공간의 정의, 범위가 협소해 짐. 규정이 제도 안팎의 공간들을 발목 잡아서 정부 지원 선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함.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 외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
- (서울\_A2) 경제 자립을 위한 코디네이팅.
- (서울\_A3) 세무 행정 컨설팅 지원.
- (서울\_A4) 비영리공간을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유연함 필요.
- (서울\_A5) 아티스트 피와 지원 공모 사이 의무 이행 괴리.
- (인천\_A1)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의 성격이 있는 공간에 공공에 준하는 지원 필요.
- (인천\_A2) 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필요.
- (전북\_A1) 전문가와의 연계.
- (제주\_A1) 아티스트 피 지원의 현실화는 공간 지원금 확대와 연계, 서울 이외의 시도 등에 있는 공간에 맞는 토론회 개최, 정산 합리화 토론회 개최 및 연구, 프로그램이 아닌 공간 지원, 사람 중심 지원.

- **(지속, 장기적인 지원)** 단 년 사업으로 공모, 실행되는 사업에서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지원 방안의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 (경기\_A1)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정책 기조와 상호 신뢰.
  - (경기\_A2)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연속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 (대구\_A1) 중장기적 프로그램 활성화
  - (서울\_A1) 장기적 지원.
  - (서울\_A2) 장기적인 지원 방식의 도입.
  - (서울\_A3)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연속적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 (서울\_A4)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 (서울\_A5)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 (서울\_A6) 단년도 사업 지양, 장기적 안목에서 성장 지원 모색 필요.
- **(지원 자격 완화 및 조정)** 지원 자격 년 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운영 방식과 목적은 비영리성을 지향하나 사업자 등록자 상의 형태가 제한되어 지원이 불가한 지원 자격의 개선을 요구함.
- (경기\_A1) 지원 자격 년 수 제한 완화.
  - (광주\_A1) 지원 자격에서 공간 운영 연수 보다 활동실적에 초점 필요.
  - (부산\_A1) 지원 자격과 신청의 까다로움.
  - (부산\_A2) 지원 자격 요건 완화 필요.
  - (서울\_A1) 지원 자격 년 수 제한 완화.
  - (서울\_A2) 자격 조건 3년 부과에 대한 조사 연구 필요.
  - (서울\_A3) 운영방식과 목적은 비영리이나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됨.
  - (서울\_A4) 진입 장벽 낮추기, 시작형, 성장형, 안착형 구분 제고.
- **(홍보 지원)** 홍보와 홍보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강원\_A1) 홍보와 홍보인력 지원.

- (경기\_A1) 홍보.
- (경기\_A2) 전시 홍보를 위한 공공적 의미의 방법 모색과 다양한 지원(미술 전문 잡지 등에서의 홍보 비용 할인).
- (광주\_A1) 홍보.
- (서울\_A1) 공식적인 홍보.
- (서울\_A2) 홍보 인력 확보, 매체 확보의 어려움으로 플랫폼 마련 필요.

□ **(지출 항목의 유연성)** 사업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였음.

- (경기\_A1) 지출 가능 항목의 한계 개선.
- (대구\_A1) 지원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규제 완화.
- (서울\_A1) 가능한 전시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처리가 모두 가능한 항목 마련 필요.
- (서울\_A2) 지원금 사용처의 현실화.
- (서울\_A3) 지출가능 항목의 한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서울\_A4) 유동적인 지출 항목.
- (서울\_A5)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고 예산 사용 조율 필요.
- (서울\_A6) 지출 가능 항목의 한계.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지역에 위치한 전시공간의 경우 지역에 맞는 물리적, 미술 생태계 구조 등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 (경기\_A1) 지역에서 꾸준한 평가가 이루어진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파트너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기회 필요.
- (경북\_A1)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입각한 고려.
- (부산\_A1)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역 학생, 주민에게 예술 향유 기회 제공 프로그램 마련 필요,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 방지 마련책 필요.
- (인천\_A1) 서울은 시각예술 중심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이 운영 중이고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생활예술, 매개 위주의 활동 지원이 많음. 따라서 이에 특화된,

-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을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필요.
  - (충북\_A1)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예술을 매개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사업 생성.
  - (울산\_A1) 지역적 특색 고려.
  - (부산\_A1) 경쟁구도 아닌 지역과 비영리 전시공간 간의 협력 체계 장려를 통한 공동 추진 사업 구상.
- **(공간 실사)** 공간에 대한 실사,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서울\_A1) 공간의 실사 파악 필요.
  - (서울\_A2) 공간 실태 조사 후 지원 심의.
  - (세종\_A1) 현장 실사를 통한 공간에 맞는 장기적 지원 정책 필요.
- **(큐레이터 재교육, 연수)** 전시공간의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 및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서울\_A1) 큐레이터 재교육 워크숍, 해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연수단원 프로그램이 학예 자격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서울\_A2) 큐레이터와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법 제도적 지원 (세금 혜택, 전시 보험))** 현행의 미술관 관련 법적 지원 제도를 비영리 전시공간에도 일부 적용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음.
- (광주\_A1) 사립미술관에 해당되는 미술작품 관세 및 운반비 감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가능.
  - (서울\_A1) 전시 보험 등 공간 운영에 대한 현실적, 제도적, 법률적 지원 필요(현재 1억 미만의 전시는 보험을 들 수 없음. 반드시 사업자가 필요하고 화이트큐브 기준의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심의 방식 합리화)** 지원 심의의 평가 방식과 기준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 (서울\_A1) 사업의 실적에서 전시뿐만 아니라 교류 등 활동 평가 다각화, 계획만큼 과거 활동 실적에 대한 정성적 평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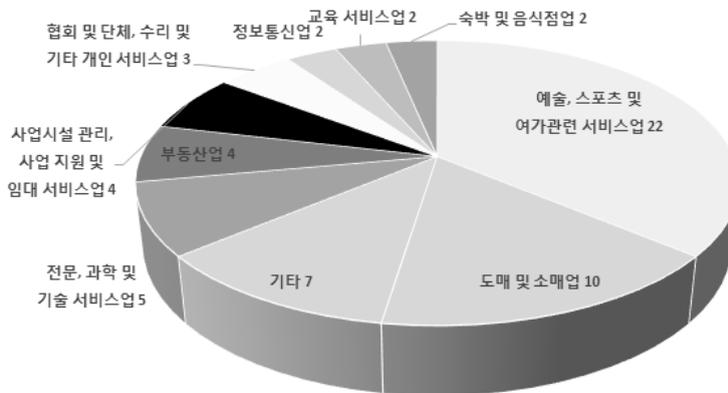
- (서울\_A2) 심의기준 배분의 적절성.

### 3. FGI조사 현황 분석

#### 1) 사업자 등록의 업종 형태 (N=41, 복수 응답 포함(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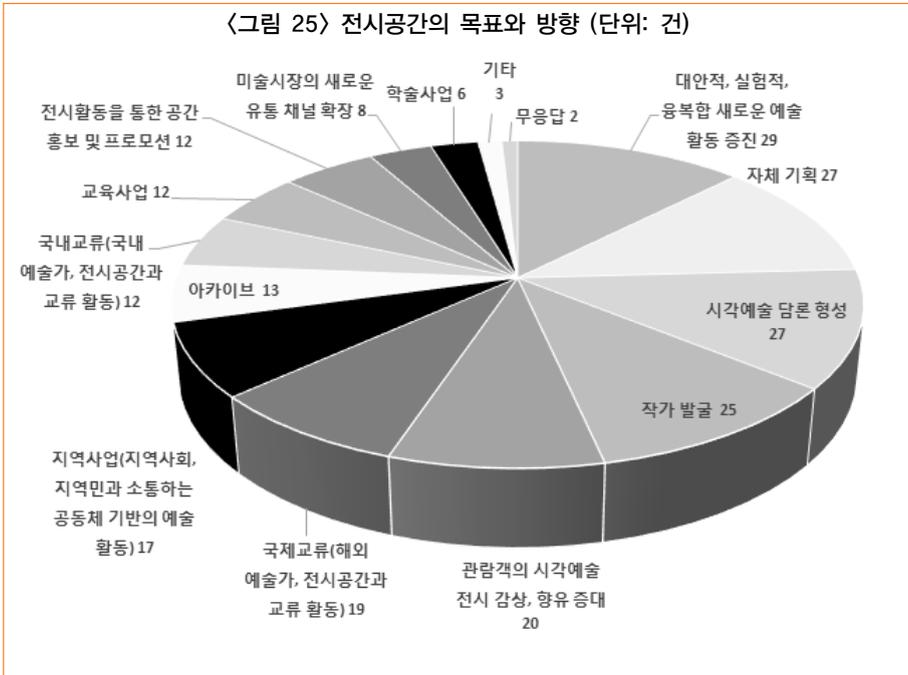
- FGI 조사 대상 전시공간 41곳은 1곳이 사업자 등록의 업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7곳이 1개의 업종, 13곳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총 61개의 사업자 등록 업종 형태를 살펴본 결과, 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도매 및 소매업, 3) 기타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그림 24〉 사업자 등록의 업종 형태 (단위: 건)



#### 2)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N=41, 복수 응답 포함(232))

- FGI 조사 대상 전시공간 41곳 중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1개만 응답한 곳은 2곳, 2개 이상 응답한 곳은 39곳으로 나타남.
-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총 232건의 목표와 방향을 살펴보면 1)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2) 자체 기획, 3) 시각예술 담론 형성, 4) 작가 발굴, 5) 관람객의 시각예술 전시 감상, 향유 증대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2)-1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높은 비중 3순위 (N=33, 복수 응답 포함(99))

□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의 높은 비중을 응답한 33곳의 높은 비중 3순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1 순위에 작가 발굴, 2 순위에 자체 기획, 3 순위에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으로 나타났음.

**<표 11>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높은 비중 3순위 (단위: 건)**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작가발굴	11(33)	2(4)	5(5)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6(18)	9(18)	5(5)
자체 기획	5(15)	10(20)	2(1)
시각예술 담론 형성	5(15)	5(10)	6(6)
지역사업(지역사회,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 활동)	5(15)	3(6)	3(3)

관람객의 시각예술 전시 감상, 향유 증대	1(3)	2(4)	1(1)
국제교류(해외 예술가, 전시공간과 교류 활동)	0	1(2)	5(5)
미술시장의 새로운 유통 채널 확장	0	1(2)	1(1)
교육사업	0	0	3(3)
아카이브	0	0	1(1)
기타	0	0	1(1)
국내교류(국내 예술가, 전시공간과 교류 활동)	0	0	0
학술사업	0	0	0
전시활동을 통한 공간 홍보 및 프로모션	0	0	0
무응답	0	0	0
합계	33(99)	33(66)	33(33)

## 2)-2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N=9)

□ 41곳 중 9곳의 전시공간이 설문에서 설정한 항목과 다른 목표와 방향을 서술하였음.

- (인천\_A1) 미술계를 문제시 하는 교란, 해체, 열린 활동, 작가주의가 아닌 문화 민주주의 표방, 지역기반 활동.
- (서울\_A1) 권력 지향이 아닌 예술 작업에 내재한 사유를 통한 현실 문제에 관한 의식 공유.
- (서울\_A2)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출전' 기획 진행, 젊은 미술시장 형성을 위한 '아트러버 캠프' 진행.
- (서울\_A3) 카페가 우선이고 예술은 후 순위
- (서울\_A4) 예술 서비스 정보공유플랫폼 구축.
- (서울\_A5)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작가 지원, 사회 공헌으로서의 문화 소외 지역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서울\_A6) 지역 기반 공유공간 관련 활동.
- (서울\_A7) 개인의 욕망을 발견하고 명확해지면서 확장해 갈 때, 이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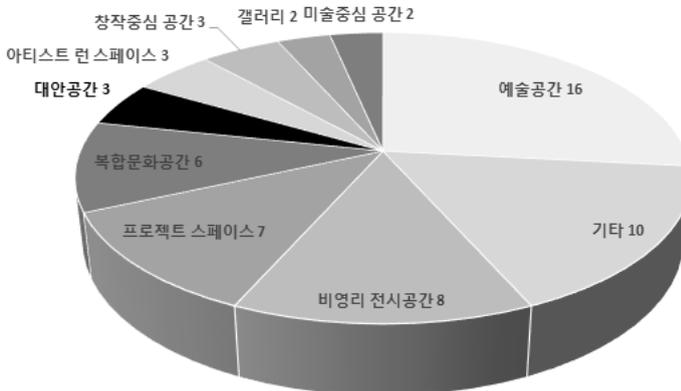
확산될 수 있는 욕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함. '예술로 목욕합니다'라는 모토 하에 그것이 예술로서 생활 양식 전반을 일컫는 문화에 복합적으로 구축되어져 갈 수 있는 장르 무관, 무경계(사람과 사람의 만남) 교류 공간으로 성장해 가는 방향성.

- (서울\_A8) 광학미디어 중심의 매체 연구 및 기획.

### 3)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 (N=41, 복수 응답 포함(60))

- 41곳 중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을 1개 선택한 곳은 25곳, 2개 이상을 선택한 곳은 14곳, 무응답 2곳으로 나타남.
-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총 60건의 선호 전시공간 명칭을 살펴본 결과, 1) 예술공간, 2) 기타, 2) 비영리 전시공간, 3) 프로젝트 스페이스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남.

〈그림 26〉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 (단위: 건)



#### 3)-1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에 대한 선호 이유 (N=16)

##### □ 예술공간

- (대전\_A1) 대안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선택.

- (대전\_A2) 기존의 대안공간이 지닌 인식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명칭을 선호함.
- (서울\_A1)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젝트.
- (서울\_A2) 기존의 대안공간이 정부와 지자체 기금의 절대적인 의존도가 높아 대안공간을 표방하는 형식적 틀을 반대함.
- (서울\_A3) 대안공간, 갤러리와 같이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서임.

#### □ 비영리 전시공간

- (서울\_A1) 해외에 소개하기에는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용이함. 그러나 영리 자체 목적이 아니기에 비영리 전시공간을 선호함.
- (서울\_A2) 특정 성격이 규정되지 않아서 선택함.

#### □ 프로젝트 스페이스

- (경기\_A1)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기존의 대안공간 이후 방향성, 독일 사례를 참조함.

#### □ 복합문화공간

- (서울\_A1) 다양한 실험, 다원적 활동.

#### □ 대안공간

- (부산\_A1) 1세대 시작 단체로서 지속가능한 대안공간의 역할과 초기 한국미술계에 대한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임.
- (서울\_A1) OOOO는 199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안공간임.

#### □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 (경기\_A1) 작가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공간제공형' 공간.
- (서울\_A2) 작가들이 운영하는 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임.

#### □ 창작중심 공간

- (서울\_A1) 레지던시 공간이 포함됨, 창작자(생산자) 중심 공간.

□ 갤러리

- (서울\_A1) 가장 중립적인 명칭이며, 종종 작품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임.

□ 미술중심 공간

- (서울\_A1) 미술 분야에 대한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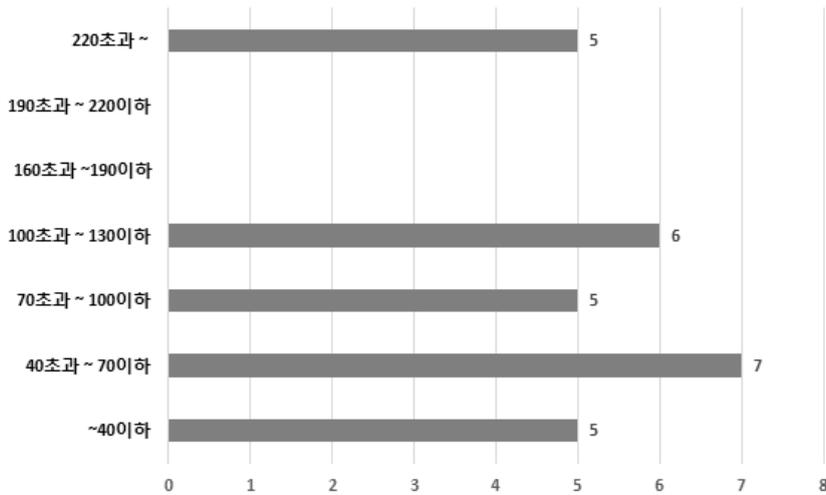
3)-2 위의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선호하는 전시공간 명칭 (N=12)

- (광주\_A1) 공유공간.
- (광주\_A2) 독립예술공간, 독립큐레이터그룹.
- (대구\_A1) 실천비평공간(철학이나 미술담론 등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비평하는 공간).
- (서울\_A1) 전시경험의 공간.
- (서울\_A2) 예술기업.
- (서울\_A3) 전시공간.
- (서울\_A4) 전시공간.
- (서울\_A5) 비영리 아트센터.
- (서울\_A6)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생활양식, 전반을 일컫는 문화와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공간.
- (서울\_A7) OOOO.
- (인천\_A1) 외부 호명은 대안공간이지만 기존의 흐름에 묶일 필요는 없음.
- (제주\_A1)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문화공간.

4) (전시공간이 임대인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 비용 (N=30)

- 전시공간이 임대라고 응답한 30곳 중 무응답 2곳을 제외하고 28곳의 월 임차 비용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100만 원 이하가 17곳, 100만 원 초과가 11곳으로 나타남.

〈그림 27〉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 비용 (단위: 개,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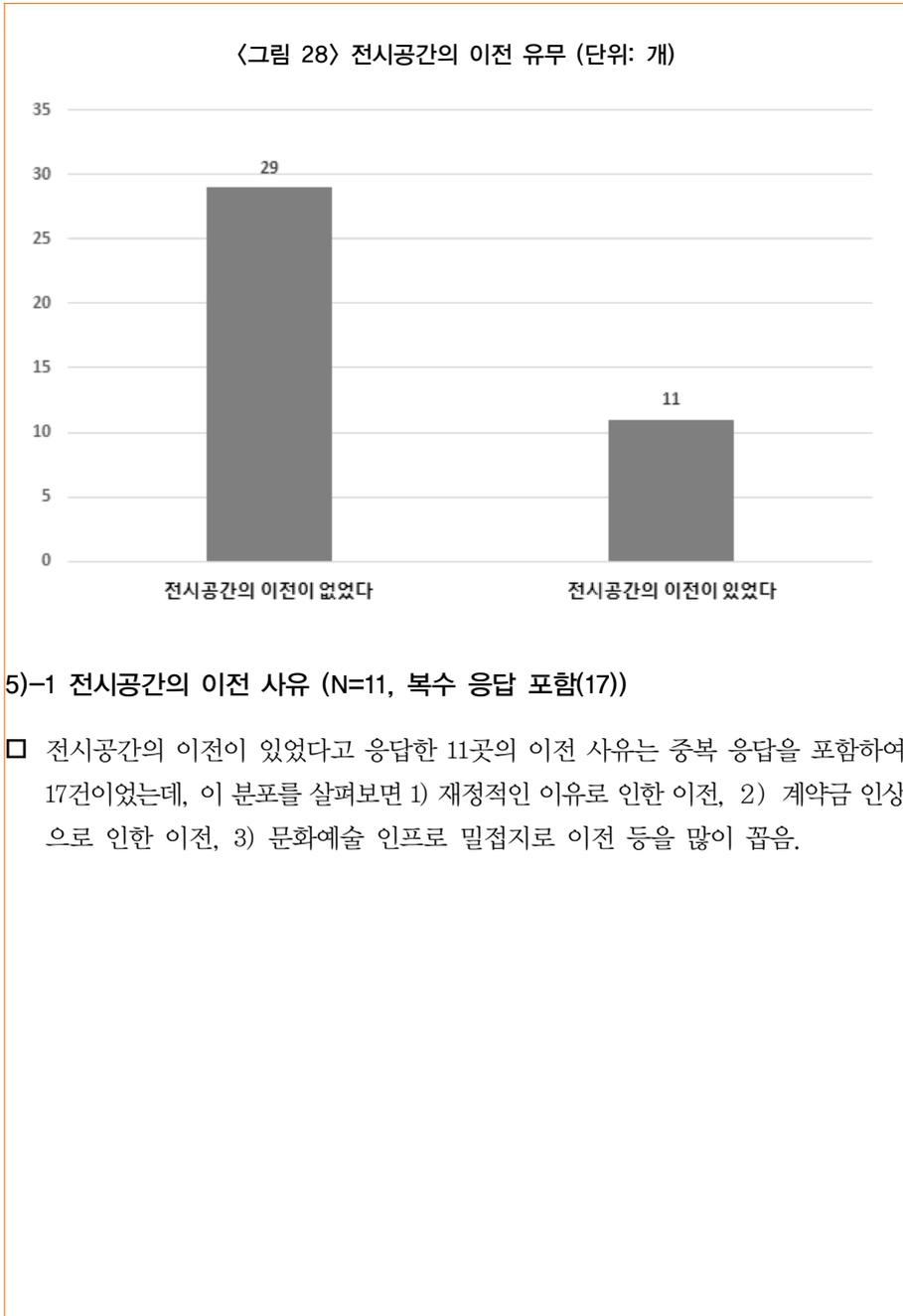


- 광주 최저 12만 원(부지면적 70평), 최고 20만 원(부지면적 22.39평), 대구 최저 30만 원(부지면적 40평), 최고 94만 원(부지면적 29평), 대전 최저 40만 원(부지면적 모름), 최고 50만 원(부지면적 34평), 부산 최저 55만 원(부지면적 43평), 최고 100만 원(부지면적 100평) 인천 최저 70만 원(부지면적 30평), 최고 120만 원(부지면적 120평), 서울 최저 40만 원(부지면적 15평), 최고 580만 원(부지면적 모름)으로 나타남.

##### 5) 전시공간의 이전 유무 (N=40, 무응답=1)

-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40곳 중 전시공간의 이전이 있었다고 응답한 곳은 11곳, 이전이 없었다고 응답한 곳은 29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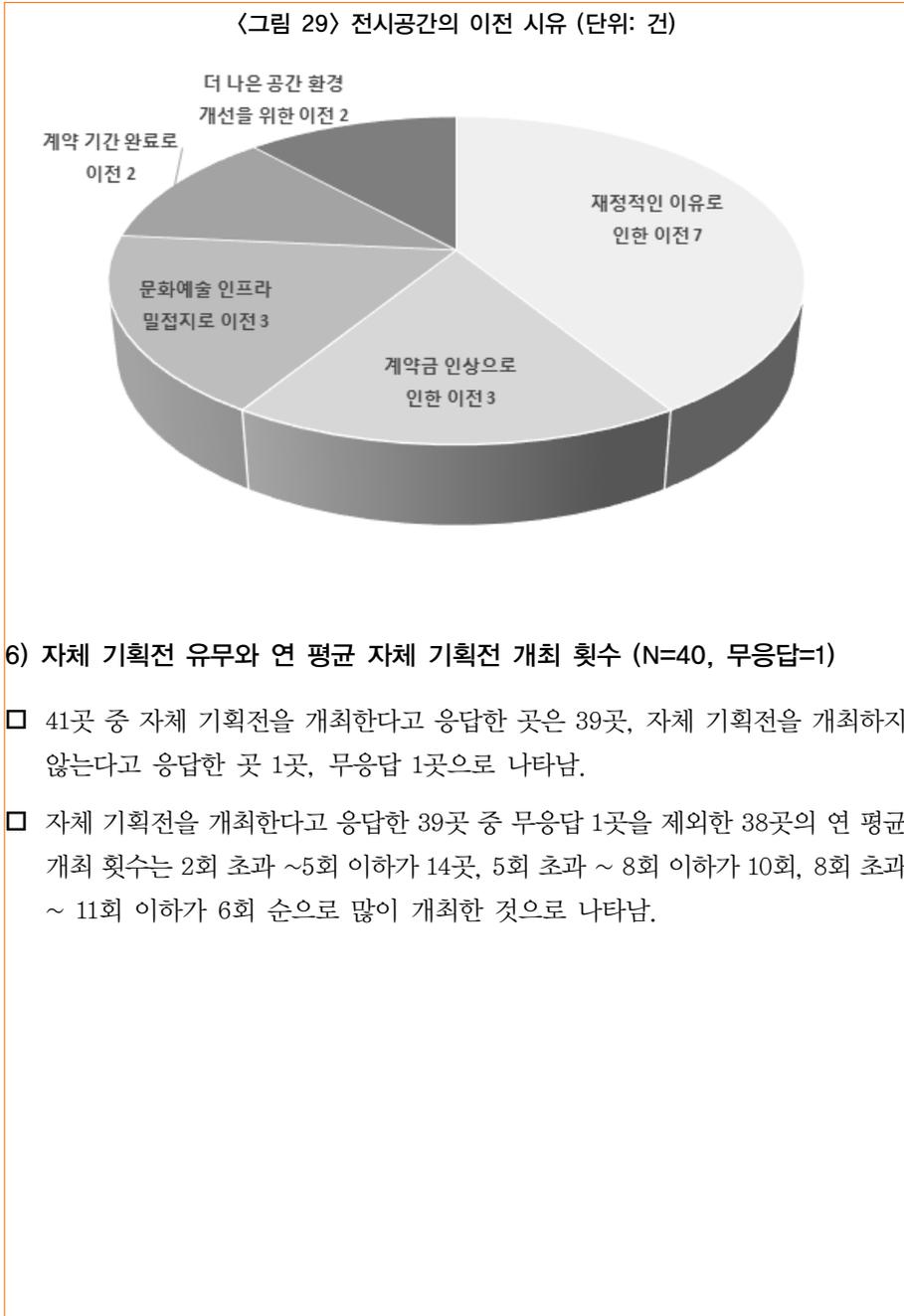
〈그림 28〉 전시공간의 이전 유무 (단위: 개)



#### 5)-1 전시공간의 이전 사유 (N=11, 복수 응답 포함(17))

- 전시공간의 이전이 있었다고 응답한 11곳의 이전 사유는 중복 응답을 포함하여 17건이었는데, 이 분포를 살펴보면 1)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이전, 2) 계약금 인상으로 인한 이전, 3) 문화예술 인프로 밀집지로 이전 등을 많이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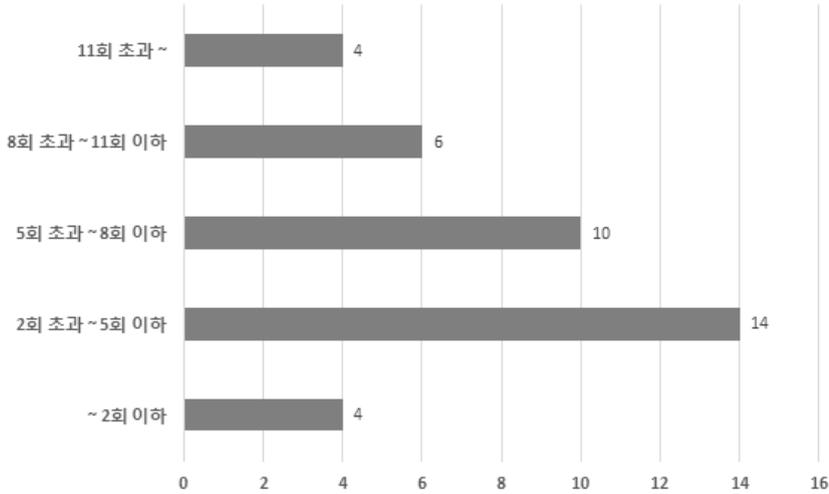
〈그림 29〉 전시공간의 이전 사유 (단위: 건)



#### 6) 자체 기획전 유무와 연 평균 자체 기획전 개최 횟수 (N=40, 무응답=1)

- 41곳 중 자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곳은 39곳, 자체 기획전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곳 1곳, 무응답 1곳으로 나타남.
- 자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39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한 38곳의 연 평균 개최 횟수는 2회 초과 ~5회 이하가 14곳, 5회 초과 ~ 8회 이하가 10회, 8회 초과 ~ 11회 이하가 6회 순으로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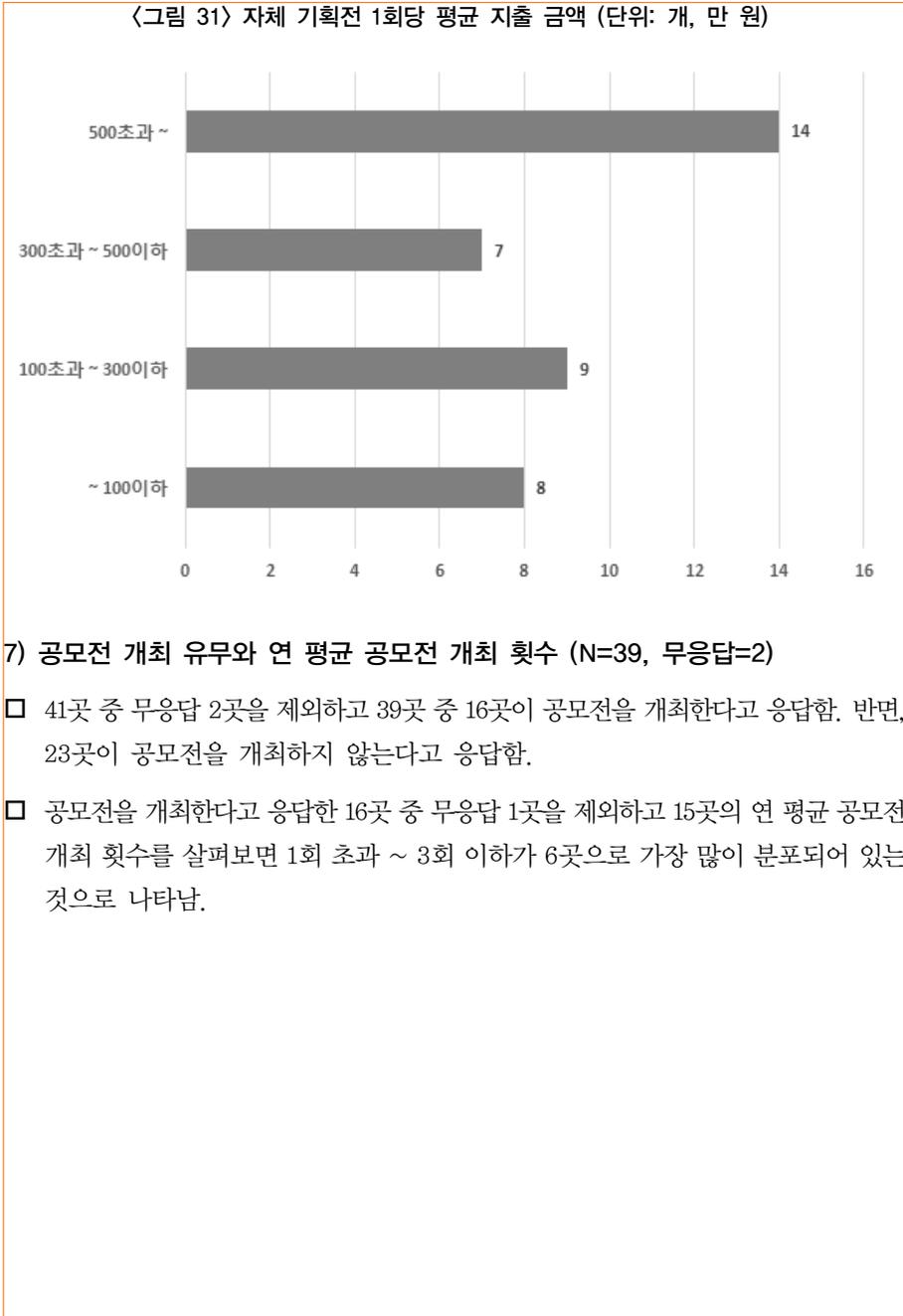
〈그림 30〉 연 평균 자체 기획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 6)-1 자체 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 (N=38, 무응답=1)

□ 자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39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한 38곳의 자체 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은 500만 원 초과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가 9곳으로 나타남. 1회당 500만 원 이하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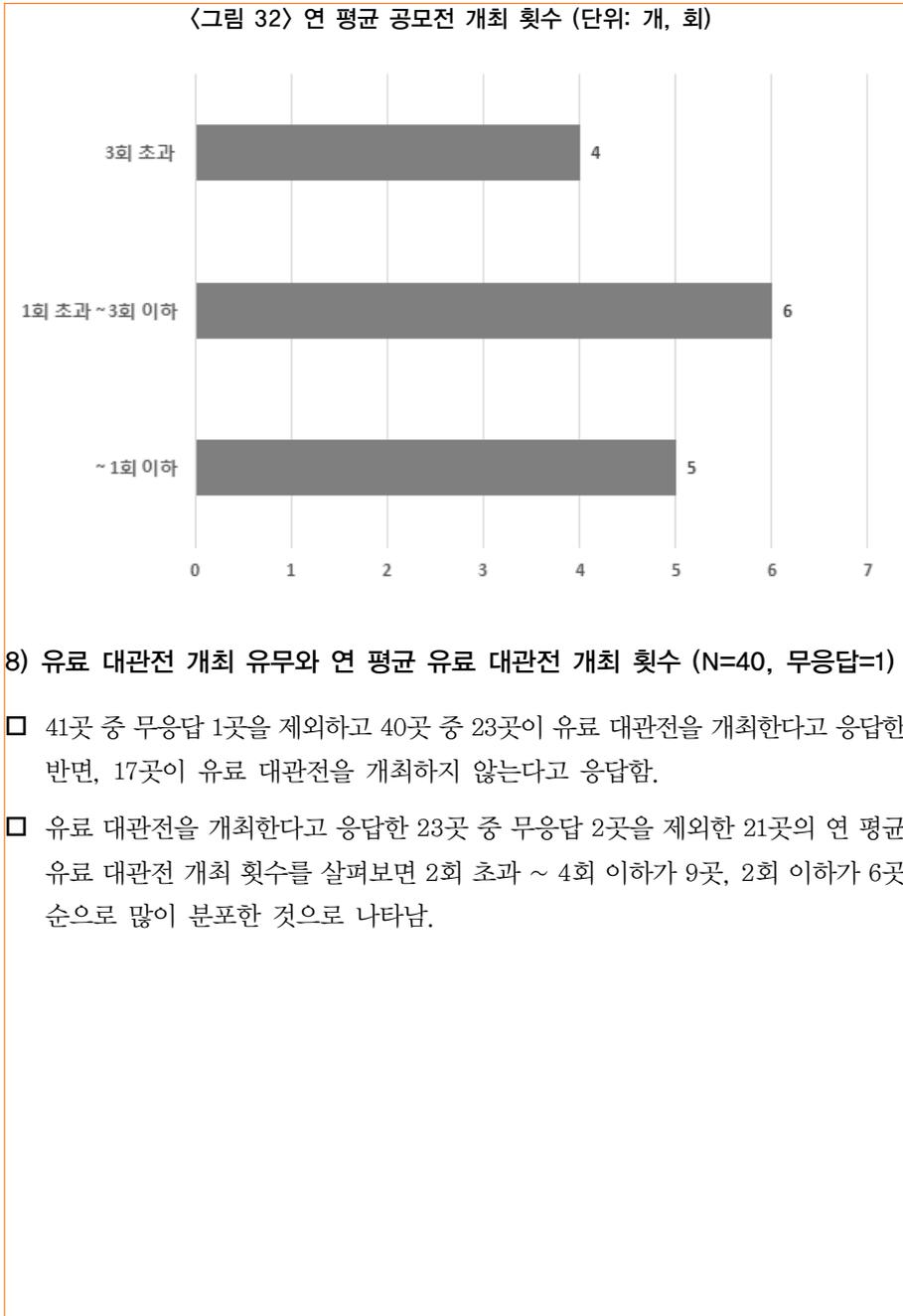
〈그림 31〉 자체 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 (단위: 개, 만 원)



#### 7) 공모전 개최 유무와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 (N=39, 무응답=2)

- 41곳 중 무응답 2곳을 제외하고 39곳 중 16곳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함. 반면, 23곳이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16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15곳의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회 초과 ~ 3회 이하가 6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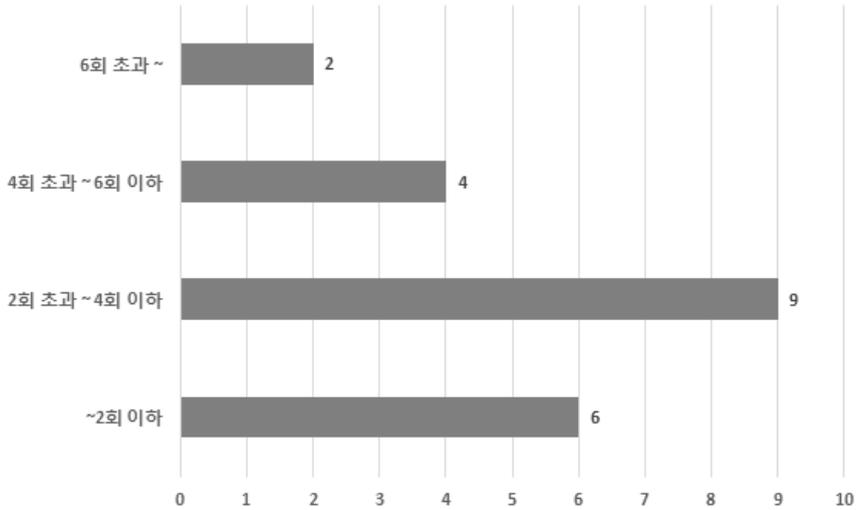
〈그림 32〉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8) 유료 대관전 개최 유무와 연 평균 유료 대관전 개최 횟수 (N=40, 무응답=1)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40곳 중 23곳이 유료 대관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반면, 17곳이 유료 대관전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유료 대관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23곳 중 무응답 2곳을 제외한 21곳의 연 평균 유료 대관전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2회 초과 ~ 4회 이하가 9곳, 2회 이하가 6곳 순으로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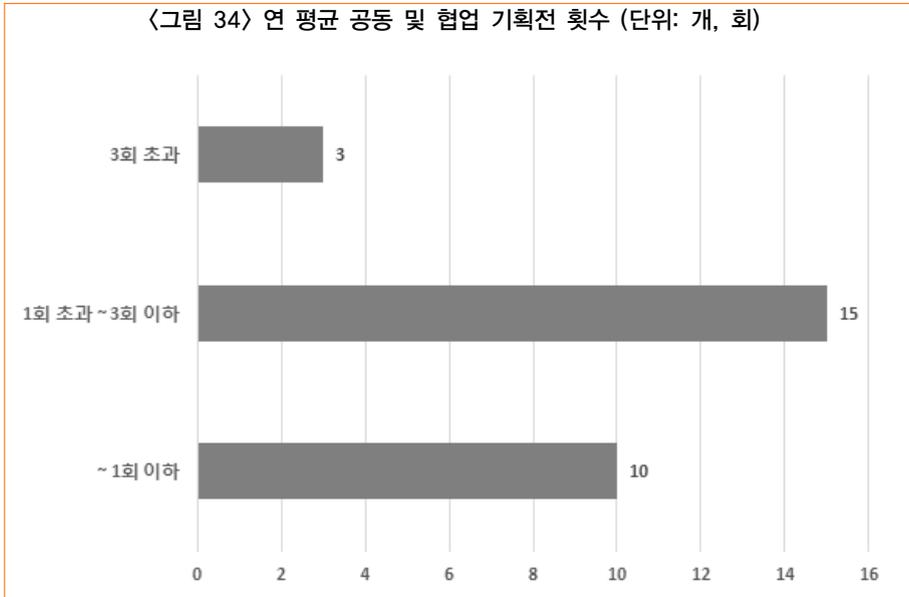
〈그림 33〉 연 평균 유료 대관전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9) 외부 기획자 섭외, 공동 및 협업 기획전 개최 유무와 연 평균 공동 및 협업 기획전 횟수 (N=40, 무응답=1, 단위: 개)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40곳 중 30곳이 외부 기획자와 공동 및 협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반면, 10곳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외부 기획자와 공동 및 협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30곳 중 2곳(프로젝트, 불규칙)을 제외하고 28곳의 연 평균 외부 공동 및 협업 기획전 횟수를 살펴보면, 1회 초과 ~ 3회 이하가 15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1회 이하는 10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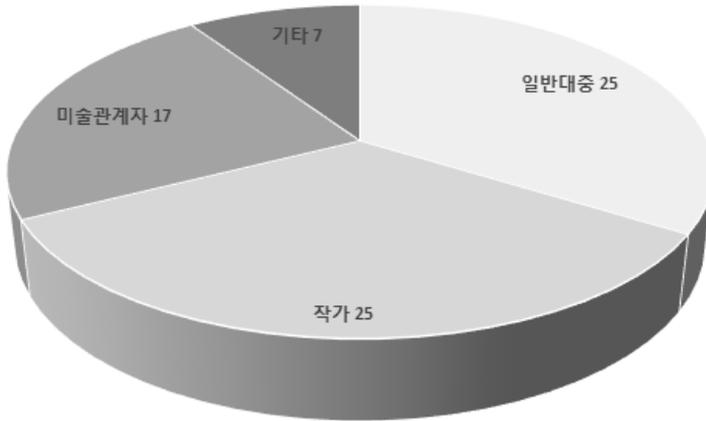
〈그림 34〉 연 평균 공동 및 협업 기획전 횟수 (단위: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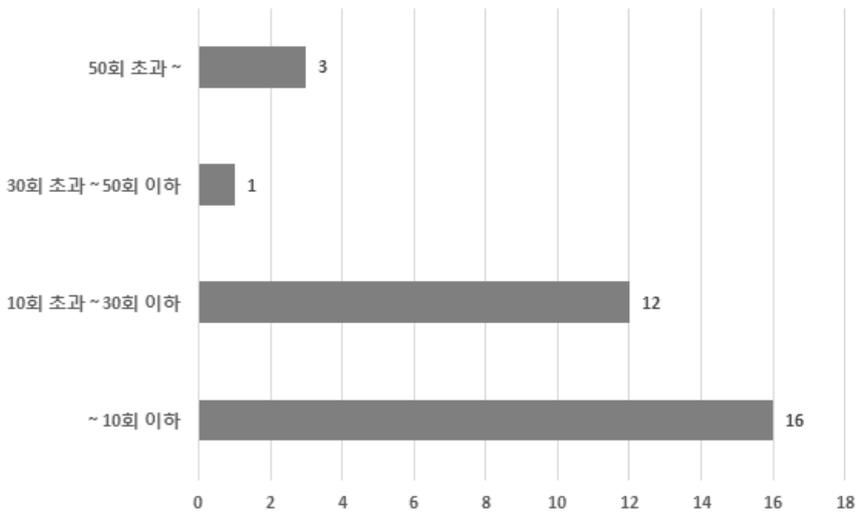
10)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개최 유무 및 프로그램의 대상, 연 평균 개최 횟수 (N=40, 무응답=1)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한 40곳에서 33곳이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반면, 7곳이 개최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개최한다고 응답한 33곳의 교육 대상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74건 중 일반대중과 작가가 각각 25건으로 나타났고, 미술관계자 17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남.
- 개최한다고 응답한 33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32곳의 연 평균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0회 이하 개최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10회 초과 ~ 30회 이하가 12곳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50회를 초과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응답한 곳은 3곳으로 나타났음.

〈그림 35〉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의 대상 (단위: 건)



〈그림 36〉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의 연 평균 개최 횟수 (단위: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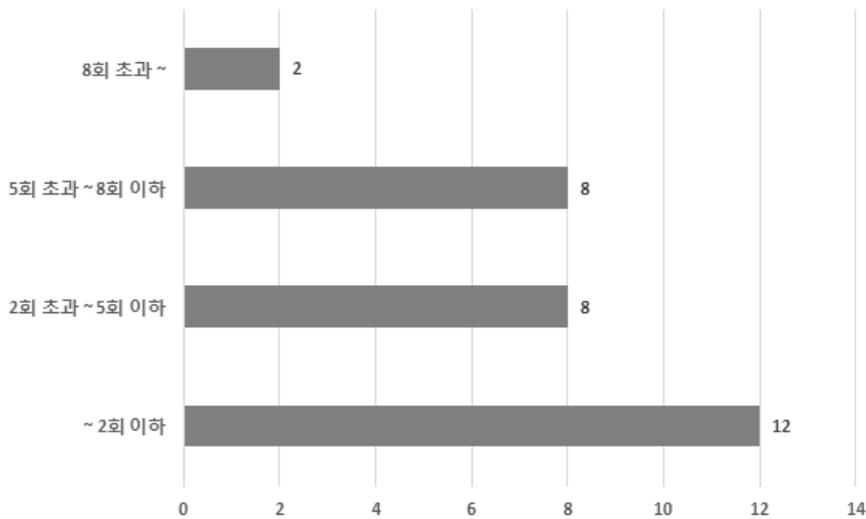


11)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 발행 유무 및 연 평균 발행 수 (N=40, 무응답=1, 단위:

개)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한 40곳 중 31곳이 자체 출판물을 발행한다고 응답한 반면, 9곳이 자체 출판물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자체 출판물을 발행한다고 응답한 31곳 중 1곳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30곳에서 연 평균 자체 출판물을 2회 초과 ~ 8회 이하로 발행하는 곳은 16곳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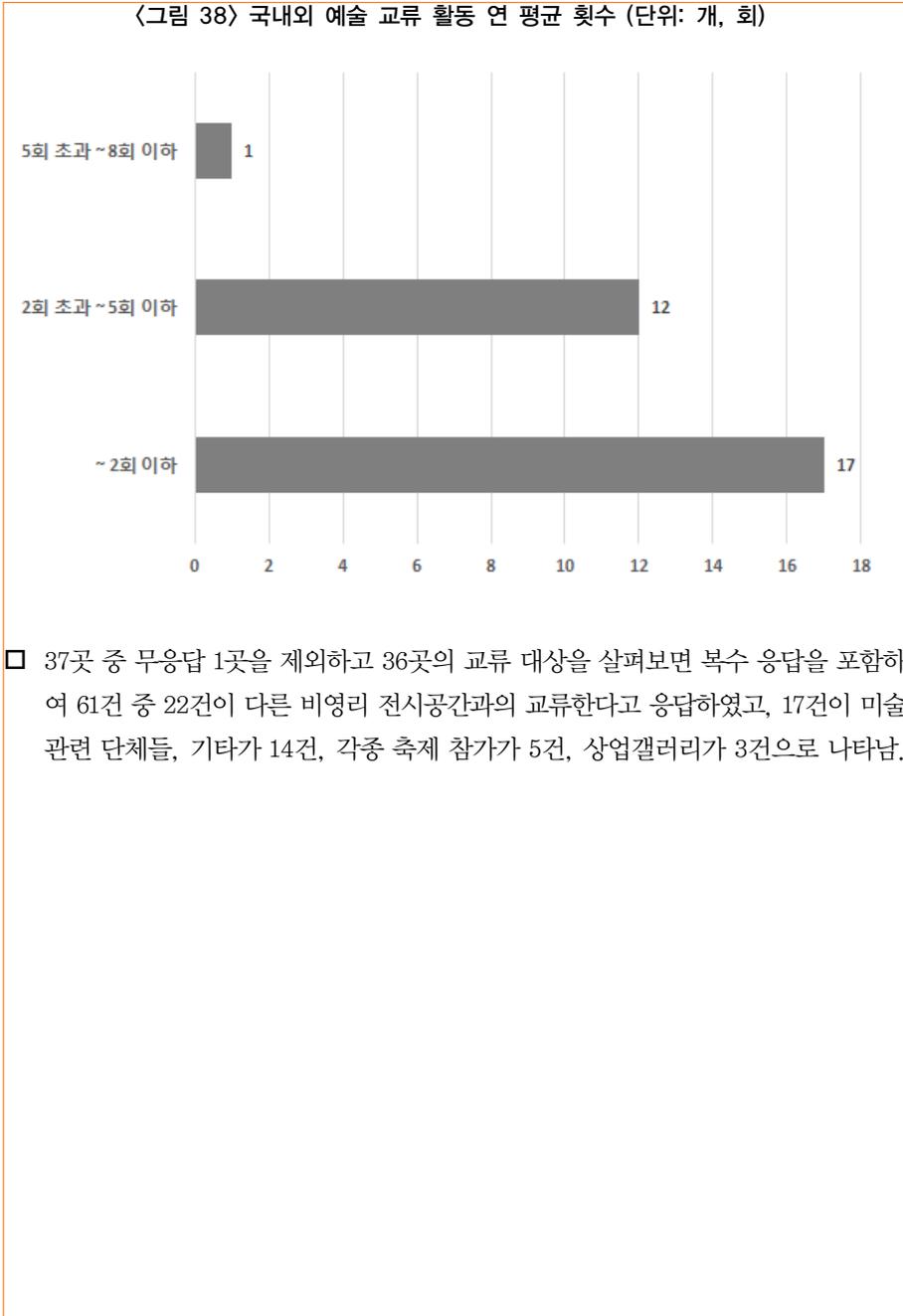
〈그림 37〉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 연 평균 발행 횟수 (단위: 개, 회)



12)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 유무 및 연 평균 횟수, 교류 대상, 교류 내용, 교류 목적 (N=40, 무응답=1,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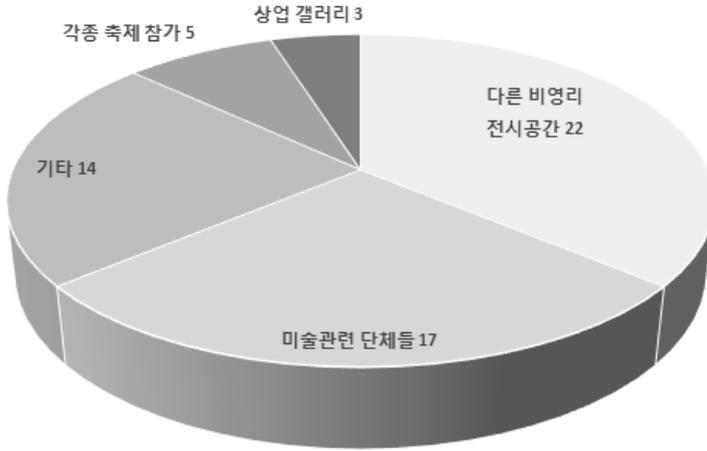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한 40곳 중 37곳이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3곳이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교류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37곳 중 7곳(상시적, 측정하기 어려움으로 응답한 2곳 과 무응답 5곳)을 제외하고 30곳 중 연 평균 2회 이하로 개최 하는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 연 평균 횟수 (단위: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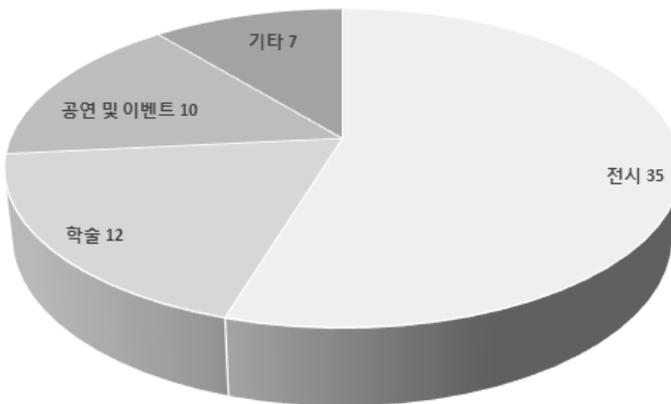
- 37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36곳의 교류 대상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61건 중 22건이 다른 비영리 전시공간과의 교류한다고 응답하였고, 17건이 미술 관련 단체들, 기타가 14건, 각종 축제 참가가 5건, 상업갤러리가 3건으로 나타남.

〈그림 39〉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대상 (단위: 건)



□ 37곳 중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64건 중 교류의 내용이 전시가 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술이 그 뒤를 이어 12건,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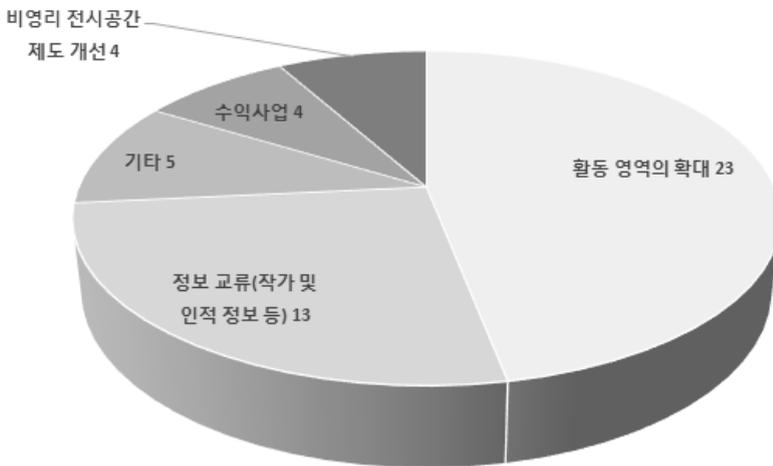
〈그림 40〉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내용 (단위: 건)



및 이벤트가 10건, 기타가 7건으로 나타났다.

- 37곳 전시공간의 교류의 목적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49건 중 활동 영역의 확대가 23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보 교류(작가 및 인적 정보 등), 기타, 수익사업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41〉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의 목적 (단위: 건)



### 13) 시각예술 전시 외 다른 프로그램 운영 (N=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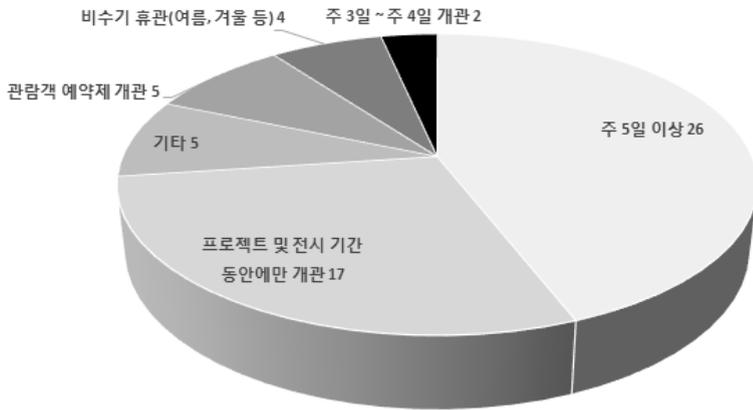
- 41곳 중 24곳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시각예술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_A1) 워크숍 운영(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 (경기\_A2) 사운드 작업 공연, 지역 아트마켓 참여.
  - (광주\_A1) 타장르와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시각예술 담론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세미나 및 공동창작, 파티 등 운영.

- (대전\_A1) 연극, 무용, 도시(주제)가 있는 다원예술 활동, 융복합적 활동에 기반한 오픈 전시.
- (서울\_A1) 인문학자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와 공부.
- (서울\_A2) 어른을 위한 동화책 읽기 워크숍, 문화관련 강연 및 모임, 해외 중요 행사 정보 공유 세미나.
- (서울\_A3) 무용, 음악(대중음악), 융합 공연.
- (서울\_A4) 연극, 공연과 같은 실험적인 퍼포먼스 공연.
- (서울\_A5) 오픈 스튜디오, 아티스트 네트워크 파티, 펀드-레이징 이벤트, 스코리닝, 다원예술 공연.
- (서울\_A6) 세미나, 워크숍, 마을예술창작소, 비평연구프로젝트.
- (서울\_A7) 다원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상영, 세미나, 파티, 워크숍, 축제 등.
- (인천\_A1) 현장에 따라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 (전북\_A1) 영화 상영.
- (제주\_A1) 공연, 영상상영회, 공동체 활동, 강좌, 세미나, 워크숍, 출판, 레지던시.

#### 14) 연관 개관일 구성 (N=41, 복수 응답 포함(59))

- 41곳의 연관 개관일 구성을 살펴보면,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59건 중 주 5일 이상 개관이 26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고, 프로젝트 및 전시 기간 동안에만 개관 17건, 기타 5건, 관람객 예약제 개관 5건, 비수기 휴관(여름, 겨울 등) 4건, 주3일~주4일 개관 2건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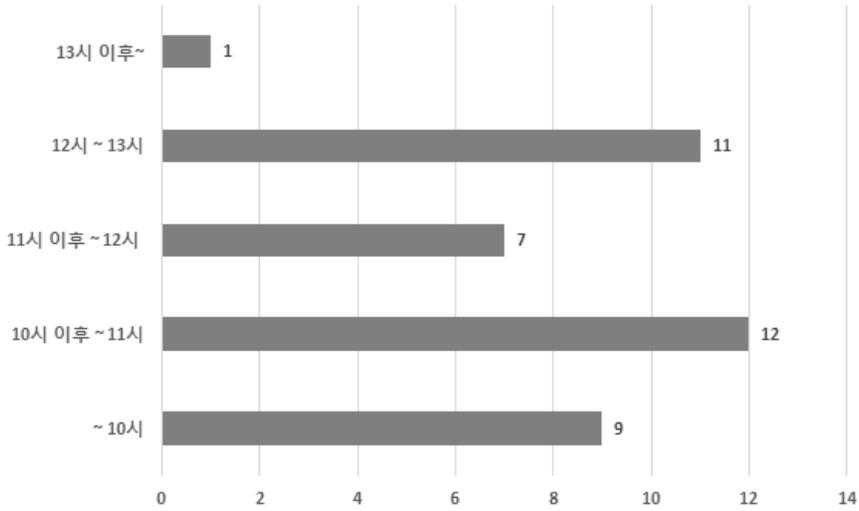
〈그림 42〉 연관 개관일 구성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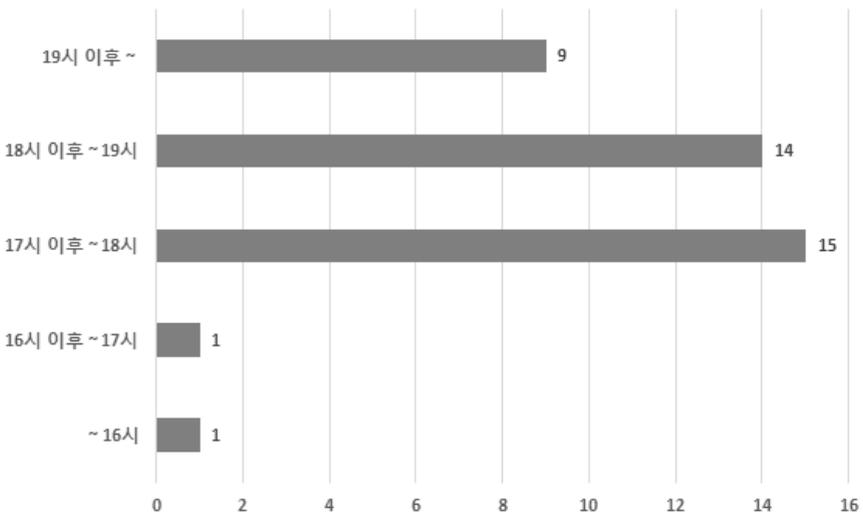
#### 15) 평균 개관 시간 (N=41, 무응답=1)

- 41곳 중 무응답을 제외한 40곳 중 평균 개관 시간에서 여는 시간이 10시 이후 ~ 11시가 1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2시 ~ 13시 11곳, 10시 이전 9곳, 11시 이후 ~ 12시 7곳, 13시 이후 1곳으로 나타났음.
- 41곳 중 무응답을 제외한 40곳 중 평균 개관에서 닫는 시간은 17시 이후 ~ 18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18시 이후 ~ 19시 14곳, 19시 이후 9곳, 17시 이전이 2곳으로 나타났음.
- 40곳이 응답한 평균 개관 시간의 중간값은 7시간임.

<그림 43> 평균 개관 시간 중 여는 시간 (단위: 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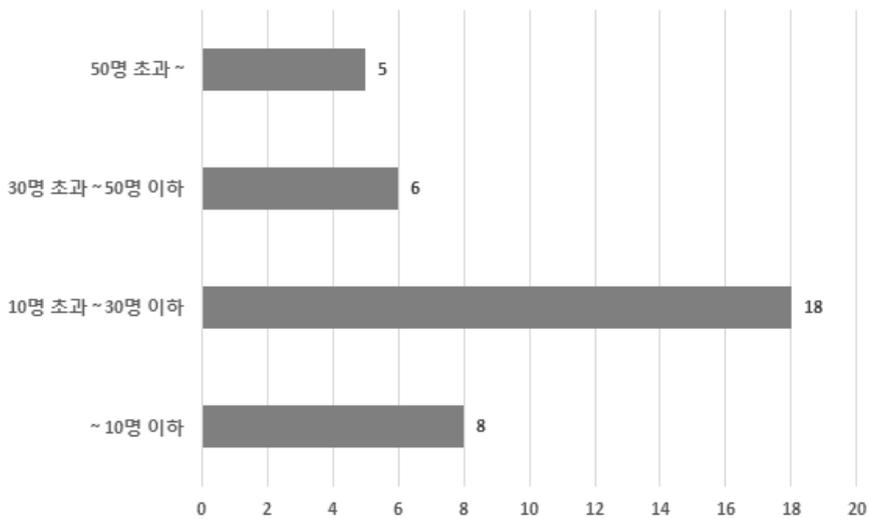
<그림 44> 평균 개관 시간 중 닫는 시간 (단위: 개, 시)



#### 16) 일평균 관람인원 (N=37, 무응답=4)

- 41곳의 중 무응답 4곳을 제외하고, 37곳의 일평균 관람인원은 10명 초과 ~ 30명 이하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10명 이하가 8곳, 30명 초과 ~ 50명 이하가 6곳, 50명을 초과하는 곳이 5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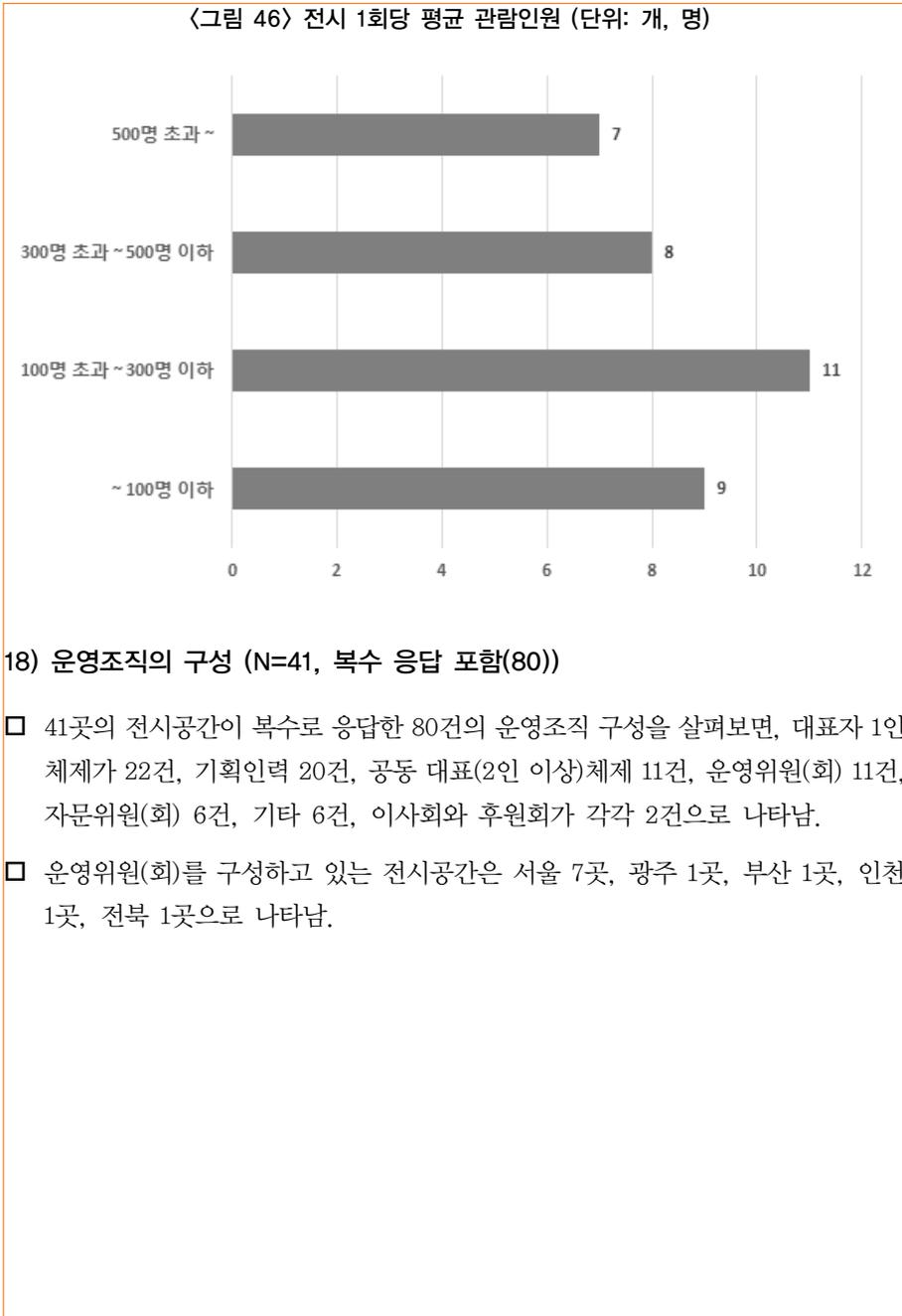
〈그림 45〉 일평균 관람인원 (단위: 개, 명)



#### 17) 전시 1회당 평균 관람인원 (N=35, 무응답=6)

- 41곳의 중 무응답 6곳을 제외하고, 35곳의 전시 1회당 평균 관람인원은 100명 초과 ~ 300명 이하가 11곳, 100명 이하가 9곳, 300명 초과 ~ 500명 이하가 8곳, 500명을 초과하는 곳이 7곳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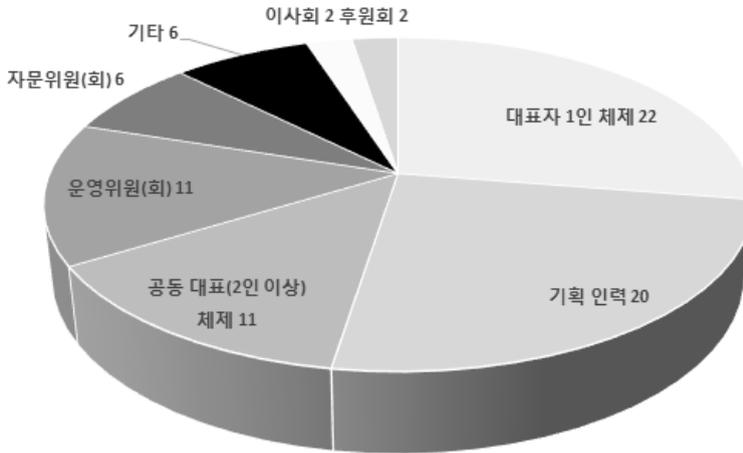
〈그림 46〉 전시 1회당 평균 관람인원 (단위: 개, 명)



#### 18) 운영조직의 구성 (N=41, 복수 응답 포함(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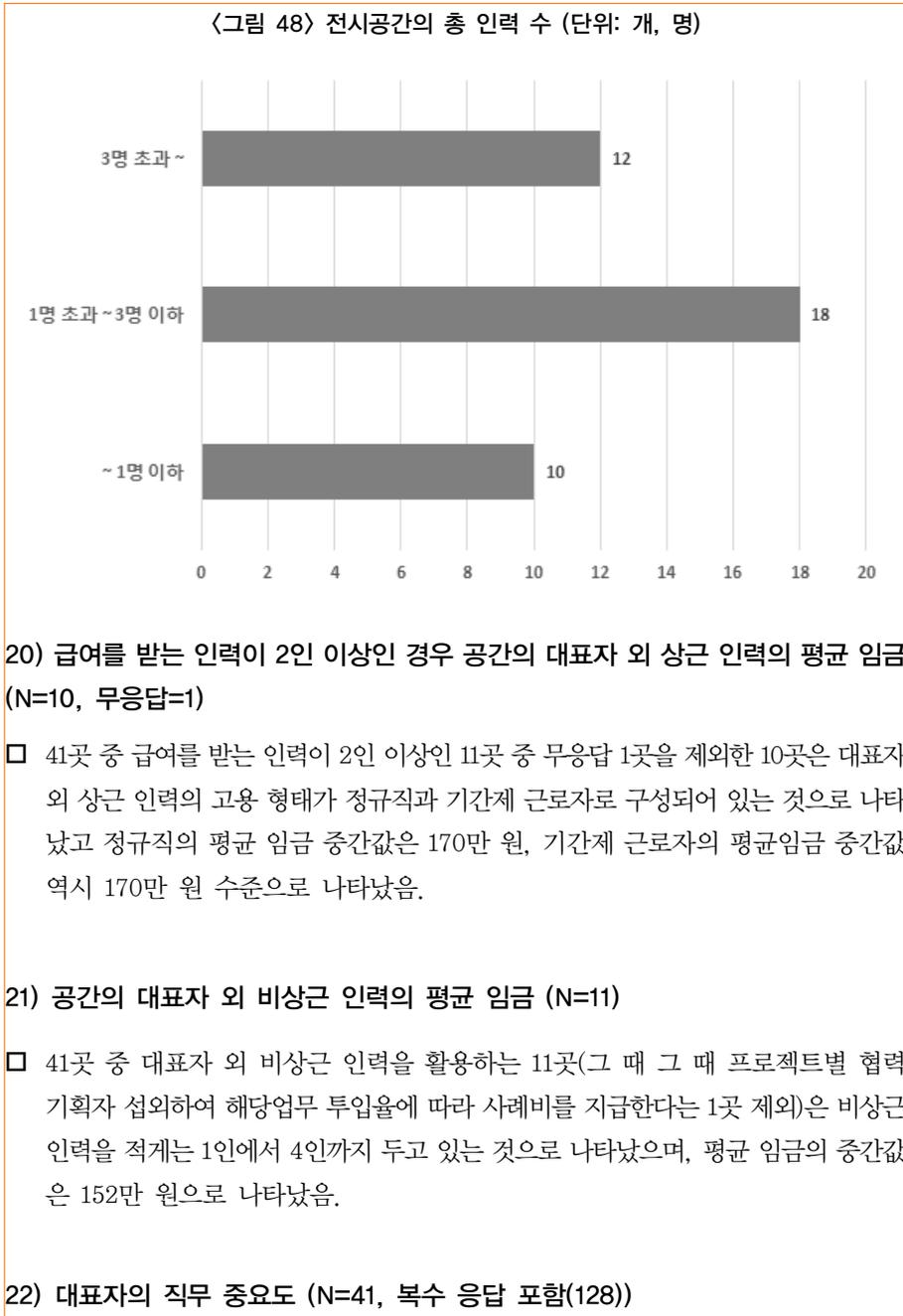
- 41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80건의 운영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대표자 1인 체제가 22건, 기획인력 20건, 공동 대표(2인 이상)체제 11건, 운영위원(회) 11건, 자문위원(회) 6건, 기타 6건, 이사회와 후원회가 각각 2건으로 나타남.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시공간은 서울 7곳, 광주 1곳, 부산 1곳, 인천 1곳, 전북 1곳으로 나타남.

〈그림 47〉 운영조직의 구성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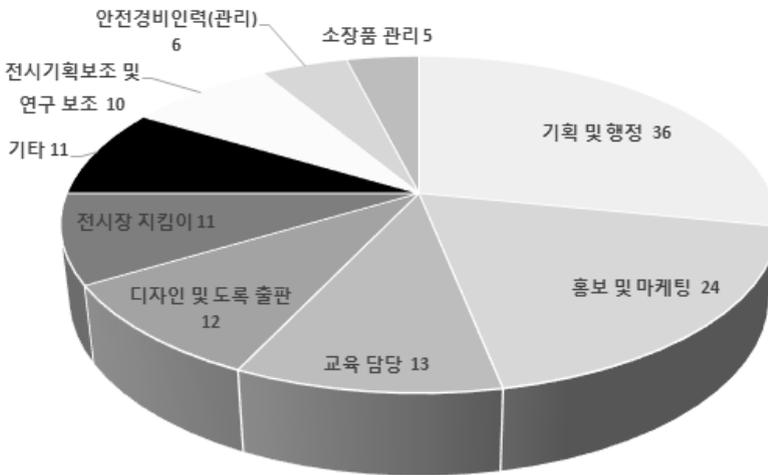
## 19) 전시공간의 총 인력 (N=40, 무응답=1)

- 41곳 중 무응답 1곳을 제외하고, 40곳 중 전시공간의 총 인력은 1명 초과 ~ 3명 이하가 18곳, 3명 초과가 12곳, 1명 이하가 10곳으로 나타남.



- 41곳의 대표자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직무로 복수로 응답한 128건의 분포를 살펴 보면, 기획 및 행정이 36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홍보 및 마케팅 24건, 교육 담당 13건, 디자인 및 도록 출판 12건, 전시장 지킴이 11건, 기타 11건,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10건, 안전경비인력(관리) 6건, 소장품 관리 5건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22)-1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3순위 (N=28, 복수 응답 포함(84))

-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3개 이상을 응답한 28곳의 높은 비중 3순위 복수 응답 84건을 살펴보면 기획 및 행정, 교육 담당, 홍보 및 마케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 대표자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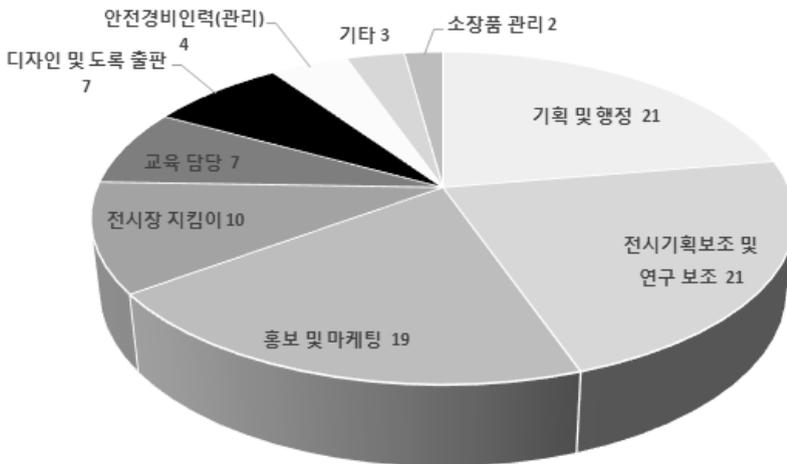
대표자의 직무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기획 및 행정	27(81)	1(2)	0(0)
홍보 및 마케팅	0(0)	15(30)	5(5)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0(0)	2(4)	3(3)
교육 담당	0(0)	6(12)	2(2)

디자인 및 도록 출판	0(0)	3(6)	5(5)
전시장 지킴이	0(0)	0(0)	8(8)
소장품 관리	0(0)	0(0)	0(0)
안전경비인력(관리)	0(0)	0(0)	1(1)
기타	1(3)	1(2)	4(4)
합계	28(84)	29(56)	28(28)

23)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N=28, 무응답=13, 복수 응답 포함 (94))

□ 41곳 중 무응답 13곳을 제외한 28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94건의 분포를 살펴보면, 기획 및 행정 21건,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21건, 홍보 및 마케팅 19건, 전시장 지킴이 10건, 교육 담당 7건, 디자인 및 도록 출판 7건, 안전경비인력(관리) 4건, 기타 3건, 소장품 관리 2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50〉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23)-1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N=27, 무응답=14, 복수 응답 포함(81))**

□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를 3개 이상 응답한 27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81건의 직무 중요도 3순위를 살펴보면, 기획 및 행정, 홍보 및 마케팅,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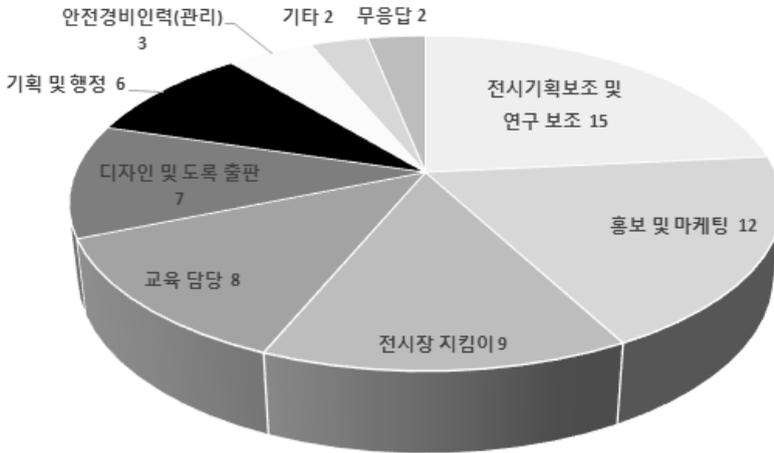
〈표 13〉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직무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기획 및 행정	16(48)	4(8)	0(0)
홍보 및 마케팅	3(9)	8(16)	8(8)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4(12)	7(14)	6(8)
교육 담당	0(0)	4(8)	2(2)
디자인 및 도록 출판	0(0)	2(4)	3(3)
전시장 지킴이	2(6)	1(2)	4(4)
소장품 관리	0(0)	0(0)	1(1)
안전경비인력(관리)	1(3)	0(0)	1(1)
기타	1(3)	1(2)	2(2)
합계	27(81)	27(54)	27(27)

**24)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N=24, 무응답=17(설문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음), 복수 응답 포함(64))**

□ 41곳 중 무응답 17곳을 제외한 24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 64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15건, 홍보 및 마케팅 12건, 전시장 지킴이 9건, 교육 담당 8건, 디자인 및 도록 출판 7건, 기획 및 행정 6건, 안전경비인력(관리) 3건, 기타 2건, 무응답 2건으로 나타남.

〈그림 51〉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단위: 건)



24)-1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N=17, 무응답=19, 복수 응답 포함(51))

□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를 3개 이상 응답한 17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51건의 직무 중요도 3순위를 살펴보면, 기획 및 행정,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4〉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중요도 3순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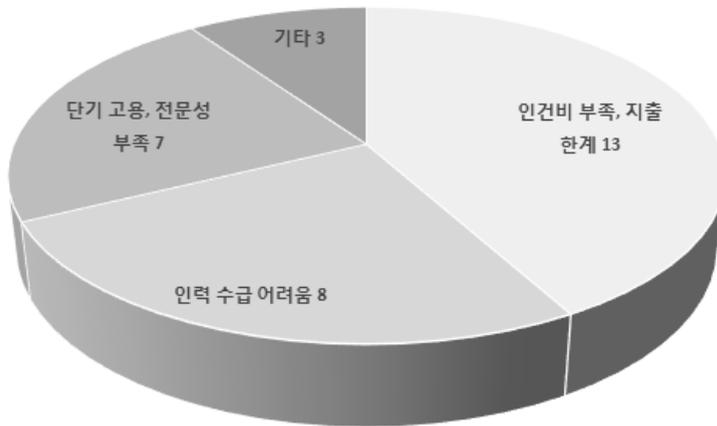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의 직무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기획 및 행정	5(15)	0(0)	0(0)
홍보 및 마케팅	1(3)	6(12)	3(3)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7(21)	4(8)	1(1)
교육 담당	2(6)	4(8)	1(1)
디자인 및 도록출판	0(0)	2(4)	3(3)
전시장 지킴이	2(6)	1(2)	5(5)

소장품 관리	0(0)	0(0)	0(0)
안전경비인력(관리)	0(0)	0(0)	3(3)
기타	0(0)	0(0)	1(1)
합계	17(51)	17(34)	17(17)

**25)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 (N=24, 복수 응답 포함(31))**

□ 41곳 중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을 서술한 24곳의 의견을 범주화하고 복수 응답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인건비 부족, 지출 한계 13건, 인력 수급 어려움 8건, 단기 고용, 전문성 부족 7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남. 각 범주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

〈그림 52〉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 (단위: 건)



**□ 인건비 부족, 지출 한계**

- (경기\_A1) 인건비 부족.

- (광주\_A1)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 (대구\_A1) 공간운영에 최소 3명의 상근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 (인천\_A1) 지원 상 인건비 지급은 정규직은 불가능함. 인건비 확보 필요.

#### □ 인력 수급 어려움

- (경기\_A1) 지역 인력 수급 어려움.
- (경기\_A2) 지역 공간으로서 전문 인력 구인의 어려움.
- (광주\_A1) 인력 부족.
- (대구\_A1) 1인 기획부터 안전관리요원까지 모두 담당해야 함.
- (서울\_A1) 1인 운영 체제로 인해 공간 인력이 충원되었으면 함.
- (서울\_A2) 적합한 인력 조달의 어려움.
- (서울\_A3) 공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한 추가 인력 배치의 어려움. 매 해 펀딩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계획 및 디자이너 고용 방식에 변화가 있음.
- (서울\_A4) 기획 인원 1인이 다양한 직무를 복합적으로 담당.

#### □ 단기 고용, 전문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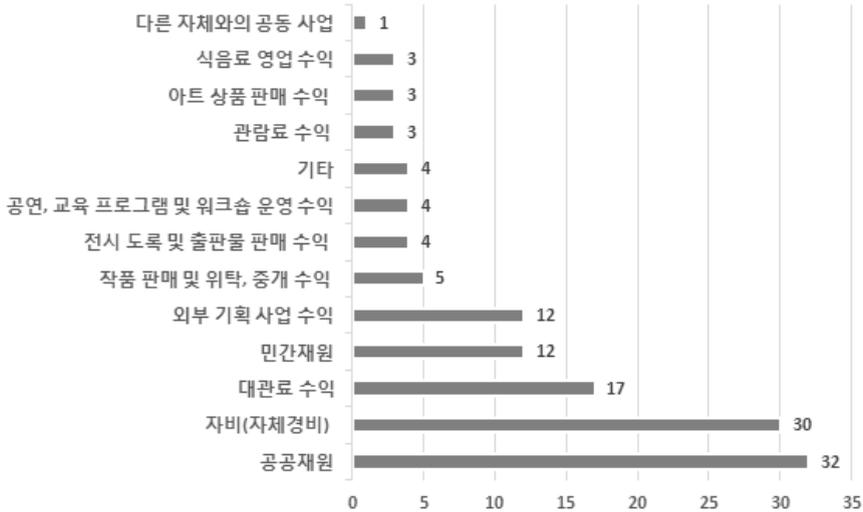
- (대구\_A1) 비 규칙적 근무환경, 전문적인 담당이 있을 수 없는 구조.
- (부산\_A1) 예산관계로 단기고용이 대분이라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반복되는 교육의 과정 답습.
- (서울\_A1) 연수단원 기한 한계.
- (서울\_A2) 전시 진행 어려움(현수막 설치 등).
- (서울\_A3) 1년 단위의 공간 지원금은 장기간 연구에 어려움.
- (인천\_A1) 프로젝트별 비상근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관계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지속성 부족.

#### 26)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N=41, 복수 응답 포함(130))

□ 41곳의 전시공간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로 응답한 130건의 분포를 살펴보

면, 공공재원 32건, 자비(자체경비) 30건, 대관료 수익 17건, 민간재원 12건, 외부 기획사업 수익 12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3〉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단위: 건)



26)-1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최근 3개년(2016년 ~ 2018년) (N=31, 복수 응답(93))

□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3개 이상 응답한 31곳의 전시 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93건의 구성 비율이 높은 3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 자비(자체경비), 민간재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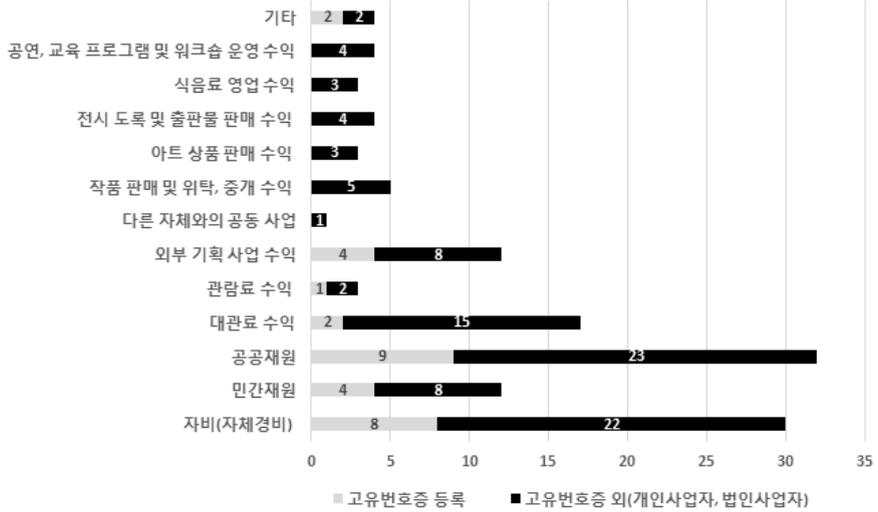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자비(자체경비)	10(30)	4(8)	11(11)
민간재원	0(0)	8(16)	2(2)
공공재원	14(42)	5(10)	6(6)
대관료 수익	1(3)	6(12)	4(4)
관람료수익	0(0)	1(2)	2(2)

외부 기획 사업 수익	5(15)	4(8)	1(1)
다른 자체와의 공동 사업	0(0)	0(0)	1(1)
작품 판매 및 위탁,중개수익	0(0)	0(0)	1(1)
아트 상품 판매 수익	0(0)	0(0)	2(2)
전시 도록 및 출판물 판매 수익	0(0)	1(2)	1(1)
식음료 영업 수익	1(3)	0(0)	0(0)
공연,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수익	0(0)	1(2)	0(0)
기타	0(0)	1(2)	0(0)
합계	31(93)	31(62)	31(31)

#### 26)-2 고유번호증 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의 운영 자원 중 수입 항목 비교 (N=41, 복수 응답 포함(130))

- 41곳의 전시공간 중 등록된 사업자의 유형이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법인인 아닌 단체의 경우)’ 10곳과 그 외 31곳(개인사업자(27곳), 법인사업자(4곳))의 운영 자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로 응답한 130건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고유번호증 사업자는 그 외 사업자와 달리 프로그램 운영 수익, 도록 판매 수익, 아트상품 판매 수익, 작품 판매 및 위탁 중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유번호증 외 사업자가 고유번호증 사업자에 비해 대관료 수익을 운영 자원 중 일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유번호증 사업자의 수입 항목은 1) 공공자원, 2) 자비(자체경비), 3) 민간자원, 외부 기획 사업 수익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고유번호증 외 사업자의 수입 항목은 1) 공공자원, 2) 자비(자체경비), 3) 대관료 수익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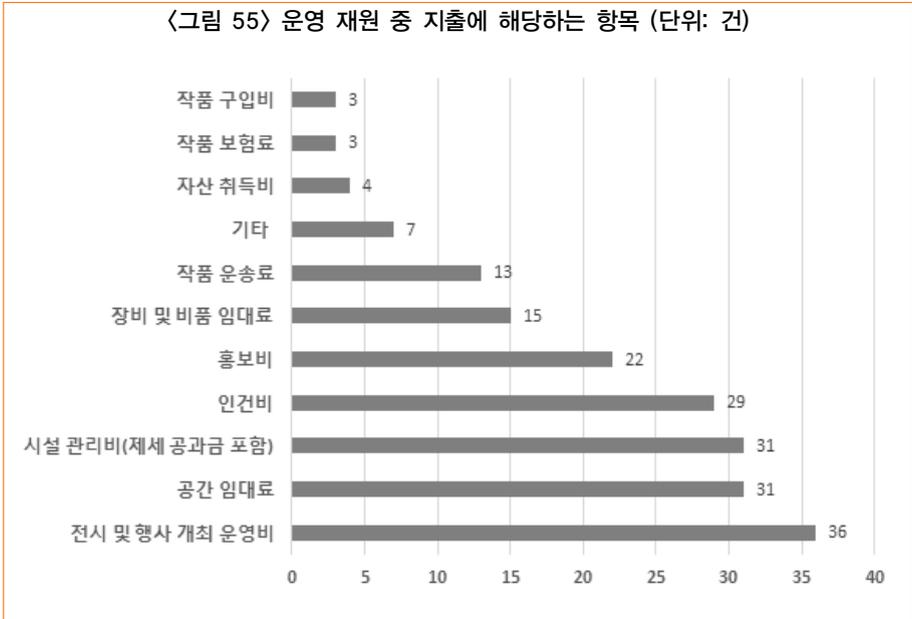
〈그림 54〉 고유번호증 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운영 자원 중 수입 항목 비교 (단위: 건)



27)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N=41, 복수 응답 포함(194))

□ 41곳의 전시공간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복수로 응답한 194건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시 및 행사 개최 운영비 36건, 공간 임대료 31건, 시설 관리비(제세 공과금 포함) 31건, 인건비 29건, 홍보비 22건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5〉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단위: 건)



27)-1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2016년 ~ 2018년) (N=35, 복수 응답 포함(105))

□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3개 이상 응답한 35곳의 전시공간이 복수로 응답한 105건의 구성 비율이 높은 3순위를 살펴보면, 전시 및 행사 개최 운영비, 공간 임대료, 인건비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구성 비율 3순위 (최근 3개년(2016년 ~ 2018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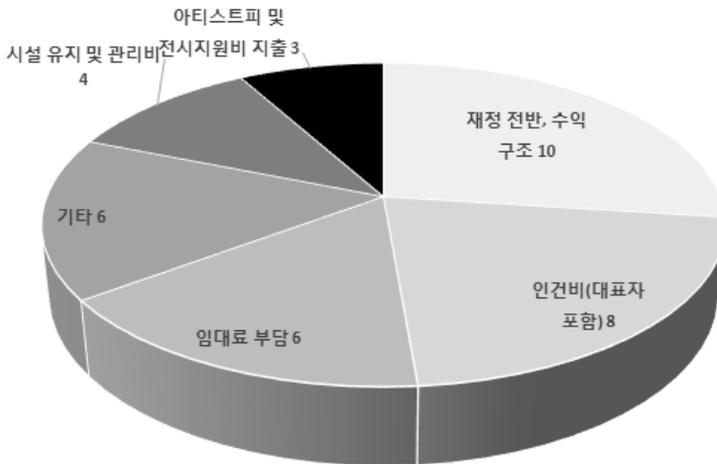
운영 자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	1순위 (값×3)	2순위 (값×2)	3순위 (값×1)
인건비	10(30)	12(24)	6(6)
공간 임대료	11(33)	10(20)	5(5)
전시 및 행사 개최 운영비	13(39)	10(20)	6(6)
시설 관리비(제세 공과금 포함)	0(0)	2(4)	10(10)
자산 취득비	0(0)	0(0)	0(0)
작품 운송료	0(0)	0(0)	1(1)

작품 보험료	0(0)	0(0)	0(0)
작품 구입비	0(0)	0(0)	0(0)
홍보비	0(0)	0(0)	2(2)
장비 및 비품 임대료	0(0)	0(0)	2(2)
기타	1(3)	1(2)	3(3)
합계	35(105)	35(70)	35(35)

28) 전시공간 운영의 지출 부분에 어려운 점 (N=24, 복수 응답 포함(37))

□ 41곳의 전시공간 중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을 서술해 준 24곳의 의견을 범주화하고 중복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비영리 전시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재정 전반, 수익 구조의 어려움, 인건비(대표자 포함), 임대료 부담, 기타, 시설 유지 및 관리비, 전시지원비의 순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음.

〈그림 56〉 전시공간 운영의 지출 부분에 어려운 점 (단위: 건)



□ 재정 전반, 수익 구조

- (광주 A1)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은 부업을 통한 수익으로 운영될 수 없는 대표

의 자비 부담의 어려움.

- (대구\_A1) 지원금 외 모든 지출을 대표자가 책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생길 수 없는 구조.
- (서울\_A1) 전시공간 운영만으로는 수익이 전혀 안 나서 적자만 누적됨.
- (서울\_A2) 불안정한 재정 확보.
- (서울\_A3) 프로젝트 추진 비용 등 공간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역할 부담이 큼.

#### □ 인건비(대표자 포함)

- (광주\_A1) 대표 인건비 불인정.
- (대구\_A1) 직원의 희생 필요.
- (부산\_A1) 비영리전시공간 특성상 고학력 전문인력을 위한 편성 기준이 매우 적음.
- (서울\_A1) 비영리 공간의 특성상 임금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함, 공공재원을 통한 기획, 인건비 지출이 어려움.

#### □ 임대료 부담

- (대전\_A1) 대관 전시가 일정하지 않음에 비해 매달 나가는 임대료 부담.
- (서울\_A1) 임대료 부족.
- (서울\_A2) 임차료 등 매달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큼.
- (제주\_A1) 공간 임대료 등은 보조금 집행 불가.

#### □ 기타

- (대구\_A1)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의 부재.
- (부산\_A1) 물가 인상율에 비해 공공기금의 상승률 없음.
- (서울\_A1) 개인 사업자 회계 업무 어려움.
- (인천\_A1) 지원 항목의 일관성이 없음(임대료, 인건비), 정책의 잦은 변화.
- (제주\_A1) E-나라 도움 시스템 어려움.

#### □ 시설 유지 및 관리비

- (경기\_A1) 전시공간 시설 및 보완 경비가 필요하나 자부담 능력이 약함.
- (대전\_A1) 시설관리비 부족.
- (서울\_A1) 설치 인력 및 자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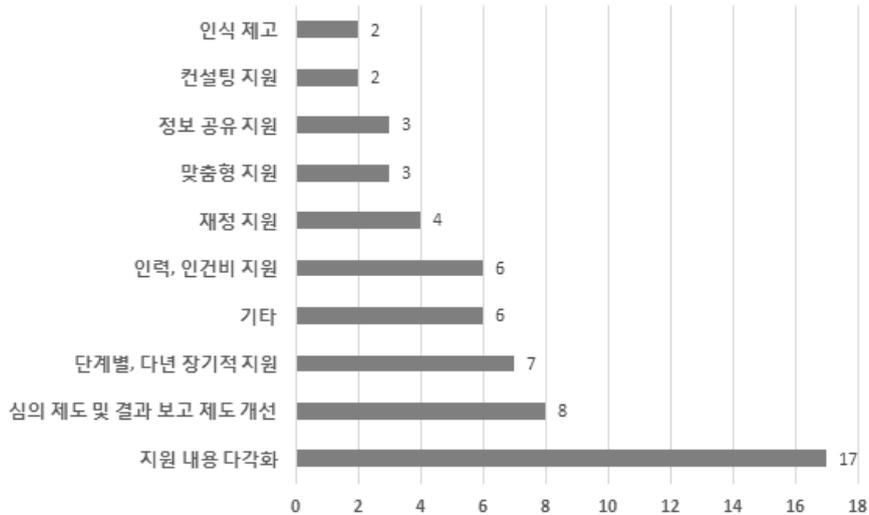
**□ 아티스티피 및 전시지원비 지출**

- (대구\_A1) 전시 진행비 작가 부담 불가능, 아티스트 피 또는 전시비용 제공 불가.
- (서울\_A1) 작가 제작비 지원의 한계.
- (서울\_A2) 전시지원금 책정이 불가능해 작품 제작과 작가 지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 (N=34, 복수 응답 포함(58))**

- 41곳의 전시공간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서술해 준 34곳의 의견을 범주화하고 중복을 포함하여 살펴보면, 지원 내용 다각화, 심의 제도 및 결과 보고 제도 개선, 단계별, 다년 장기적 지원, 기타, 인력, 인건비 지원, 재정 지원, 맞춤형 지원, 정보 공유 지원, 컨설팅 지원, 인식 제고를 꼽았음.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그림 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 (단위: 건)



#### □ 지원 내용 다각화

- (광주\_A1) 아카이브와 연구 지원.
- (광주\_A2) 지원사업 내용의 다각화, 전문기획 인력 매칭 및 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간 협업프로젝트.
- (대전\_A1) 활동의 경계에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
- (대구\_A1)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의 필요성 제고, 예술 향유 목적과 전문인 활동 프로모션을 위한 구분 지원, 수익창출을 하는 곳에 대한 운영 리서치 및 분리 필요.
- (부산\_A1) 공간 지원 내용의 다각화 필요.
- (서울\_A1) 장르 예술 중심의 전통적인 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 (서울\_A2) 공간 지원 유연화, 공간의 성격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R&D를 위한 실험이 필요.
- (서울\_A3) 다양한 분야별 지원, 비영리/영리 공간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

- (서울\_A4) 안정된 공간 지원(임대료 및 운영주체 발굴,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매개).
- (서울\_A5) 다원적, 실험적 예술 경향 공간 지원 필요. 전시지원, 공간지원이라는 구분으로 한정지을 수 없음.
- (서울\_A6) 발전 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해외 사례) 10년 이상 공간 증축 지원.
- (서울\_A7) 전시 외 학술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형식 지원.
- (서울\_A8) 지원내용의 다각화, 현장 상황에 맞는 실질적 지원 필요, 대규모 공간이 아니라 소규모 독립공간 지원 필요.
- (서울\_A9) 국내 및 국제 교류 사업 지원, 아카이브 별도 지원.

#### □ 다년, 단계별 장기적 지원

- (광주\_A1) 회계연도 종료와 익년 지원사업 선정 사이의 공백으로 인한 비수기 기간의 획일화, 다년간 단계별 지원사업 운영.
- (서울\_A1)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사업 도입 필요.
- (서울\_A2) 다년간 사업 지원이 필요함.
- (서울\_A3) 다년간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사업.
- (서울\_A4) 다년간 단계별 지원사업 도입.
- (전북\_A1)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

#### □ 심의 제도 및 결과 보고 제도 개선

- (부산\_A1) 비영리 전시공간의 다양한 성격과 운영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표는 일원적임.
- (부산\_A2) 평가위원들의 비 전문성, 심의와 평가의 구분에 따른 정확한 평가의 부재, 심사시 피상적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인지도에 좌우되는 선정.
- (서울\_A1) 경쟁과 결과를 조장하지 않는 지원방식으로 변해야 함.
- (서울\_A2) 등급별 지원정책과 객관적 평가를 위한 심사 평가 제도.
- (서울\_A3) 양적 성과 이외에 전시의 내용 및 담론 형성 등 질적 평가가 좀

더 반영되어야 함.

- (서울\_A4) 성과 위주의 선별과 평가 개선.
- (서울\_A5) 사업 종료 후 공간에 대한 평가 공개 및 공유(현 제도에 있는지 파악 필요), 결과보고서 공개를 통한 신뢰성 형성, 지원사업 실효성을 위한 피드백 필요.

#### □ 기타

- (서울\_A1) 공간소유주와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방식(소유주 세제혜택으로 임대료 인하 및 동결).
- (서울\_A2) 정산 업무 간소화, 정산업무의 과정으로 지원사업 지원 안함.
- (서울\_A3) 비영리 전시공간 어워드.
- (서울\_A4) 비영리 전시공간 용어 재정 및 활동 지원 자격, 범주의 조정, 지원 자격 범주 세분화(신진, 성장, 쇠퇴), 공간지원 공개 토론회, 비영리 용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서울\_A5) 지원해 보지 않아서 모름.
- (전북\_A1) 서울과 지방의 현황에 맞는 사업 선정해야 함, 노력하는 전시공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장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

#### □ 인력, 인건비 지원

- (서울\_A1) 비영리 전시공간 만들 위한 마케팅 전문 인력 지원.
- (서울\_A2) 홍보 마케팅 인력 개발 지원.
- (서울\_A3) 전문기획인력 지원 확대, 연수단원제도의 한계, 경력직 큐레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서울\_A4) 기획인력 관련 인건비 부분 증대, 소규모 콜렉티브 기획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함(협업자 인건비), 전문인 컨설팅.
- (서울\_A5) 전문 기획 인력 및 단기 운영 인력 급여 지원, 기업 연계 사회공헌, 홍보마케팅 등 협력 지원 방안 마련.
- (전북\_A1) 인력지원 고려 필요함, 지방에서는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움.

#### □ 재정 지원

- (대전\_A1)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
- (부산\_A1) 예산의 증액과 중장기적 지원 필요.
- (전북\_A1) 재정 지원.

#### □ 맞춤형 지원

- (경기\_A1) 기관 특성과 자율성에 기인한 장기적 맞춤형 지원제도 수립, 사전 컨설팅제도 실시 후 적절한 맞춤형 지원.
- (광주\_A1) 각 비영리 전시공간의 구성과 성격에 맞는 차별적 지원정책 필요.
- (대구\_A1) 실태조사 확대 및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개편.

#### □ 정보 공유 지원

- (광주\_A1) 체계적 공간 운영, 노하우 공유.
- (서울\_A1) 비영리 전시공간 간 커뮤니케이션.
- (서울\_A1) 통합사이트 구축 및 홍보.

#### □ 컨설팅 지원

- (대전\_A1) 전시공간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서울\_A1) 전문인 컨설팅.

#### □ 인식 제고

- (서울\_A1) 전시공간의 담론 생산 중요성 인식 필요.
- (서울\_A2) 예술/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인식 제고, 미술장 확대.

### 제4절 소결

#### 1) 비영리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 다변화

-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를 활동의 주요 범위로 삼는 공간이 전체 104곳의 49.0%로 나타난 반면,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복합문화예술 활동, 기타 서로의 경계를 허무는 곳이 51.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시각예술 전시 개최에 한정하지 않고 공연예술, 도시 연구,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되었음

을 시사함. 또한 FGI 조사 결과의 시각예술 전시의 다른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41곳 중 24곳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을 서술하였음.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FGI 조사 결과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 역시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활동을 추구하며 자체 기획, 시각예술 담론 형성, 작가 발굴 등을 우선으로 삼고 있음. 목표와 방향이 기획 전시 개최보다는 대안적이고 새로운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대안공간’이라는 명칭보다는 중립적 의미를 담은 ‘예술공간’ 또는 ‘비영리 전시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GI 조사 결과 자체기획전, 유료 대관전, 외부 기획자와 협업 기획전,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자체출판물 발행,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었음. 공모전은 시행하지 않는 곳이 더 많았음.
  - FGI 조사 결과 39곳 중 39곳이 자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 평균 개최 횟수는 2회 초과 ~ 5회 이하가 14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39곳 중 16곳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 평균 공모전 개최 횟수는 1회 초과 ~ 3회 이하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41곳 중 30곳이 외부 기획자 섭외, 공동 협업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연 평균 1회 초과 ~ 3회 이하가 15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40곳 중 33곳이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은 일반대중과 작가 대상이 많았으며, 연 평균 10회 이하가 16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40곳 중 37곳이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 평균 2회 이하가 17곳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교류의 대상은 다른 비영리 전시공간, 미술관련 단체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교류의 내용은 전시, 학술, 공연 및 이벤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류의 목적은 활동 영역의 확대, 정보 교류(작가 및 인적 정보 등)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2) 비영리적 성격 지향

- 설문에 응답한 공간의 91.3%(95곳)가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답하면서 비영리성 중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 기획자 등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 (26곳)과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 지원하는 것” (26곳)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즉, 과거 한국 현대미술의 장에서 대안공간이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했던 실험적, 비주류 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도 비영리 전시공간의 중요한 역할이며, 나아가 공간 이용자들에게 개방하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위한 보조적 장치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냄.

- 즉, 소수의 작가, 기획자, 대표가 공간을 전유하며 영리적 목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다수의 작가, 기획자, 향유자를 위해 공간을 개방, 공유하는 공간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적 방향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3) 현실적인 삶을 위해 부분적인 영리적 활동 수행과 재정난 반복 순환

- 전체 104곳의 90.3%가 사업자를 등록하고 공간을 운영 중이며, 그 유형은 개인사업자가 고유번호증, 법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중인 94곳 중 고유번호증을 등록하고 운영 중인 곳이 28곳으로 29.8%를 차지하며 원칙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곳이 각각 49곳, 16곳으로 이들의 비율은 94곳 중 절반이 넘는 69.1%를 차지하고 있음.
- FGI 조사 결과 사업자의 업종은 예술 및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작품 매매를 위한 도매 및 소매업, 도서나 도록 등을 출판하기 위한 출판업, 도록제작 및 기타 운영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이 가능한 디자인업, 임대업 등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운영 중에 있음. 또한 운영 재원 중 수입에서 알 수 있듯이 대관료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 기획사업과 활동으로 운영비 재투입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영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카페와 같이 영리적 활동을 하는 전시공간의 운영지는 청년예술 공간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간을 대관해 주어야 하는 이행의 의무와 영리적 사업장에서 단골손님의 이탈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FGI 조사 결과 공간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병행하고 자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지원사업을 위한 결과물(실적)을 생산해 낼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함. 또한 작가가 운영하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의 형태인 경우 작업과의 병행이 어려운 점, 기획자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공간의 경우 외부 활동이 제약되어 결과적으로 공간 운영과 생업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음.

#### 4) 임대 형태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 임대료 지출에 대한 부담감

- 전체(104곳)의 76.3%가 임대의 형태로 전시공간을 운영 중에 있음.
- FGI 조사 결과 임대료는 지역별,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28곳 중 100만 원 이하가 60.7%, 100만 원 초과가 39.3%로 나타남.
- FGI 조사 결과 몇몇 전시공간은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의 수혜를 통해 임대료 지출이 가능해진 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소속 지역문화재단은 공간 지원사업이 부재하거나 임대료 지출이 불가능하여 부담감을 갖고 운영 중에 있다고 호소하였음.

#### 5) 공간의 인력과 인건비 부족

- 전체(104곳)의 85.6%의 공간이 대표자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음. 또한 수도권과 지역을 망라하고 비영리 전시공간의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을 언급하였음. 특히 복합문화예술활동을 추구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카페 갤러리 등)의 경우 그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하였음.
- FGI 조사 결과 급여를 받는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약 170만 원 선으로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대표자는 기획 및 행정,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담당 등의 순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은 기획 및 행정,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순으로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표자 외 비상근 인력은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보조, 홍보 및 마케팅, 전시장 지킴이 등의 순으로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음.

- FGI 조사 결과 운영 인력을 관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인건비 부족을 꼽았으며 단기 고용을 해야 하거나 연수단원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인해 교육의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하였음.

####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인지도에 비해 지원 이력 저조

- 전체(104곳)의 74.0%가 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인지하고 있는 공간 중 39.0%만 지원한 경험이 있음. 개방형 설문에서 언급한 지원금 신청부터, 정산, 결과 보고에 이르는 행정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자격 부적합이 그 이유로 추정됨.
- 실제 FGI 인터뷰 중에서 한 대표자는 과거에는 공간 지원을 했었고 선정되어 수행한 적이 있었지만, E-나라 도움 사용의 불편함은 신청서를 공모 기간 내에 탑재하는 단계에서부터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고 하였음. 이 일을 보조해 줄 사람이 없어서 기금 지원을 포기한지 오래되었다고 말한바 있음.

#### 7) 타 공공재원 의존도 높음

- 전체(104곳)의 59.6%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지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88.7%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FGI 조사 결과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공재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재원에 의한 재정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함.

#### 8) 재정적 지원이 우선, 그 다음 비재정적 지원 방식 및 장기적 정책

- 비재정적 지원보다 재정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음.
- 비재정적 지원 정책이나 방식으로는 지원 범위, 내용의 다각화, 교류 플랫폼 구축, 행정 절차 간소화, 지속, 장기적 지원, 지원 자격 완화 및 조정, 홍보 지원, 지출 항목의 유연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공간 실사, 큐레이터 재교육 및 연수, 법제도적 지원(세금 혜택, 전시보험), 심의 방식 합리화 등을 꼽음.
- FGI 조사 결과 비재정적 지원 방식 및 장기적 정책으로 지원 내용 다각화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두드러졌음.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에서 일부 운영진들은 지원 자격에서 운영 실적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은 용인하더라도, ‘자가 소유의 공간에서 비영리적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 3년’ 과 ‘임대의 공간에서’ 비영리적 의미를 실천하려고 분투하는 3년 ‘은 다르다며 숫자상 운영 실적 만이 아닌 자격 요건의 합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진 중 특히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고 지적함.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에서 공간의 자생력 확보 및 시장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컨설팅을 통한 공간 운영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함.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토론회가 수도권에서만 개최되었다고 지적하며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FGI 현장 실사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공간진흥법(가칭) 제정은 전시공간 의무 등록화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뿐 자율성과 실험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진취적인 방향을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FGI 현장 실사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회계연도에 따른 단기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거론하며, 장기간 운영된 비영리 전시공간을 국가가 선별, 평가 후 매입하여 비영리 전시공간 허브로 조성하는 장기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임대료 지출 항목이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임차인 세제 혜택 등으로 임대료 상승 방지 및 임대료 일부 간접 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제6장

---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사업 분석과 비교

제1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분석

제2절 : 서울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

제3절 : 지역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

제4절 : 소결

## 제1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분석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sup>3)</sup>

#### 1) 공모 안내 분석

- 2016년과 2017년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사립미술관, 대안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며,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됨. 2018년은 사업목적에 일부 수정하여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를 추가함.
- 2016년은 2년간 연속 지원 사업 중 2년차 지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단 년 지원으로 변경됨. 신청 자격은 “대안공간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공간” 으로 큰 변동은 없었음.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최소 3년 이상의 개관 실적이 요구되었음.
  - 앞서 실태조사의 일반현황의 설립연도는 지원 시점인 2017년 12월 말을 고려했을 때, 1999년 ~ 2014년 설립이 48곳, 2015년 ~ 2017년 설립이 45곳으로 나타났음. 1999년 ~ 2017년 사이에 설립된 93곳 중 45곳이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2016년 ~ 2017년 창작 신작 기획전 3회 개최를 사업의 결과물로 요구되었으나 2018년 2회 개최로 변경 및 완화되었음.
- 2017년 지원 결정 금액은 2016년 대비 2천 8백만 원 증가했으나 2018년 지원 결정 금액은 2017년 대비 7천 5백만 원 감소했음. 지원 규모는 2016년 ~ 2017년 변동이 없다가 2018년 A급, B급, C급이 각각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씩 하향 조정되었음.
- 지원 항목은 2016년 인건비 운용 기능이 명시되었고, 2017년부터는 전시 개최 및 공간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2018년은 기획전, 전시연계 프로그램 소요 경비 지원으로 운용 범위가 축소되었음.
- 2018년부터는 공모 안내 지원 심의기준에서 “전년도 평가결과” 항목이 삭제되고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의 공모사업의 '사업공모', '사업결과' 등을 참고하여 분석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20%→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40%)의 비중이 상향 조정되었음.<sup>4)</sup>

- (참고) 2019년 심의기준에서 2018년의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40%)는 → “공간의 운영의 안전성” (20%)이 신설되면서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0%)는 비중이 하향 조정되었음.

□ 선정 발표는 2016년은 4월, 2017년은 2월, 2018년은 3월이었으며 발표 시기의 일관성은 다소 부족했음.

4) 2018년 공모 안내 상 심의기준에서 ‘전년도 평가결과’ 는 없어졌지만, 전년도 평가결과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님. 심의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이 동일하게 평가한 뒤 기존 사업은 전년도 평가 20%와 해당년도 심의 80%가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었음. 신규 사업의 경우 2018년도 사업계획 심의 100%로 반영되었음.

〈표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공모 안내(2016년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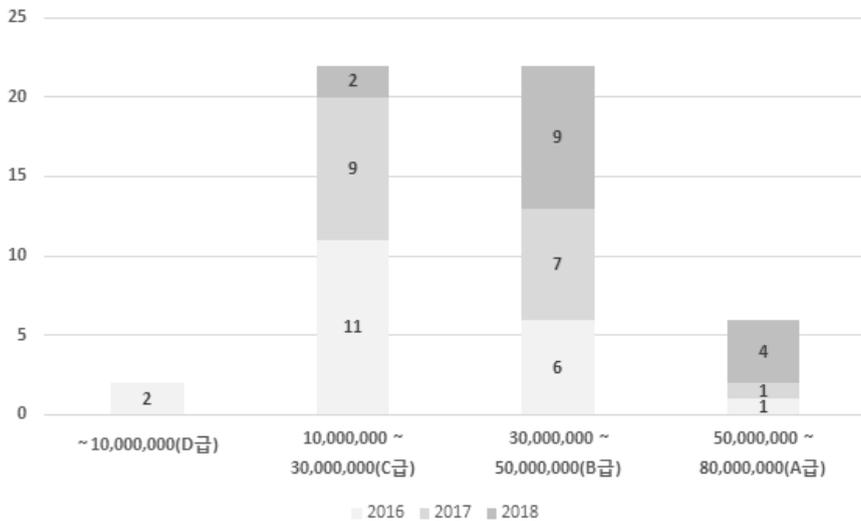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주요 사항	-2년간 지원사업으로 2016년은 2년차에 해당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	
사업 총 지원 금액	1,000,000,000원	1,000,000,000원	950,000,000원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금액	567,000,000원	595,000,000원	520,000,000원
총 선정 건수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건 수)	34(20)	29(17)	29(15)
지원신청 자격	'15년도 선정단체(별도 신규 공모 진행하지 않음)	-아래 ①~②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며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① 대안공간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공간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 사립미술관	-아래 ①~②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며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 -① 대안공간 등 비영리성을 추구하는 전시공간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등록 사립미술관
지원 대상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을 3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단, 기획전 포함내용 중 내부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기획전,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둬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됨). -공간활성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관객 개발 계획을 2016년도 공간운영계획에 필수 반영해야 함. -예) 미술주간행사' 16. 10월(예정) 연계 등을 통한 관객개발계획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 -우수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최소 3년(2014년 이전 개관)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공간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을 3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단, 기획전 포함내용 중 내부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기획전,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둬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 -공간 활성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관객 개발 계획을 2017년도 공간운영계획에 필수 반영해야 함.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대안공간) -우수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최소 3년(2015년 이전 개관)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진 공간 -연간 사업계획 중 복수의 전시 및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명확한 주제 및 기획의도를 가지며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을 2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단, 기획전 포함내용 중 내부 소장품만으로 구성된 기획전, 공간 자체 지원사업(수상전, 공모전 등), 특정 단체의 협회전(단체전)이나 회차를 거둬하는 연례전, 학위청구전은 제외 -공간 활성화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관객 개발 계획을 2018년도 공간운영계획에 필수 반영해야 함
선정 발표	2016.4.21	2017.2.28	2018.3.13

구분	2016	2017	2018
지원 규모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공모 안내기준)	-A급 8천만 원 내외 -B급 5천만 원 내외 -C급 3천만 원 내외 -D급 1천만 원 내외	-A급 8천만 원 내외 -B급 5천만 원 내외 -C급 3천만 원 내외 -D급 1천만 원 내외	-A급 <b>6천만 원</b> 내외 -B급 <b>4천만 원</b> 내외 -C급 <b>2천만 원</b> 내외 -D급 <b>1천만 원</b> 내외
지원 항목	-공간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단, 운영비 중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제외)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 기획,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인력(큐레이터나 에듀케이터 등 인건비지원 대상 이외 인력) 운용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작가비 (아티스트피) 도입 권고	-공간별 특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시 및 공간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	-공간별 특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간에서 개최되는 기획전시, 전시연계 프로그램 등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우선 지원함
심의기준 (공모 안내 기준)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30%)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전년도 평가 결과 (20%)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30%)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전년도 평가 결과 (20%)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 (30%)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 <b>(30%)</b>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b>(40%)</b>

2) 선정 결과 분석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금액은 3년 간 총 1,682,000천 원이었으며,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총 지원 금액(사립미술관 포함) 중 2016년 56.70%, 2017년 59.50%, 2018년 54.7%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원금이 결정되었음.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공간 건 수는 3년 간 총 52건이었으며, 시각예술 창작산실 공간지원 총 결정 건수(사립미술관 포함)의 2016년 58.8%, 2017년 58.6%, 2018년 54.7%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음.
- 지원 규모 당 지원 결정 금액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면 C급과 B급의 비율이 전체의 각각 42.31%, 42.31%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 한편 2018년 지원 결정 금액의 지원 규모는 B급에 몰려 있었고, 2018년은 지난 3년간 A급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은 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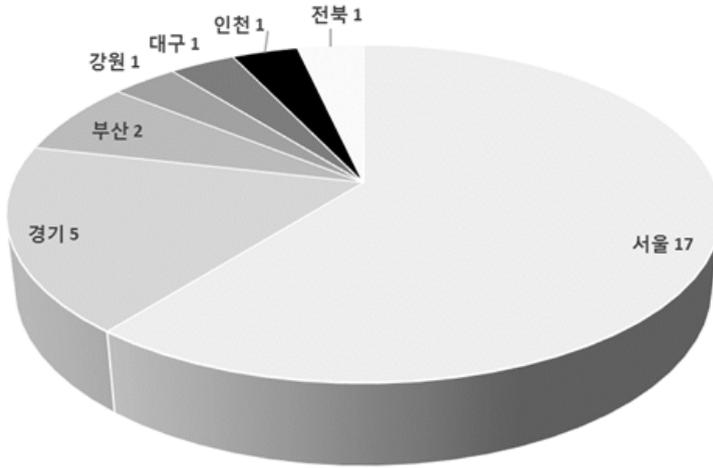
〈그림 58〉 지원 규모당 지원 결정 금액의 공간 분포 (2016년 ~ 2018년) (단위: 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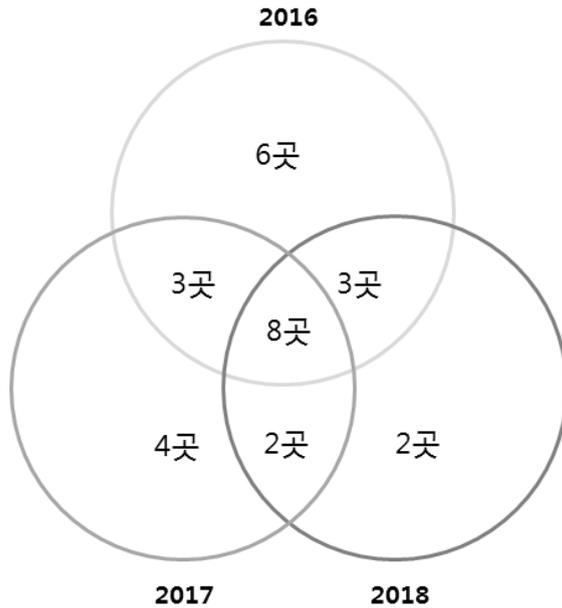
- 총 52건 지원은 전국 28개의 비영리 전시공간(단체)에 지원되었는데, 서울이 17곳, 경기 5곳, 부산 2곳, 강원, 대구, 인천, 전북이 각각 1곳에 지원 결정되었음.
- 연도별 지원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만 지원된 공간은 6곳, 2017년에만

지원된 공간은 4곳, 2018년에만 지원된 공간은 2곳, 2016년 ~ 2017년 연속지원은 3곳, 2017년 ~ 2018년 연속지원은 2곳, 2016년과 2018년 격년지원은 3곳, 2016년 ~ 2018년 3개년 연속지원은 8곳이었음.

〈그림 59〉 지역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수 (2016년 ~ 2018년)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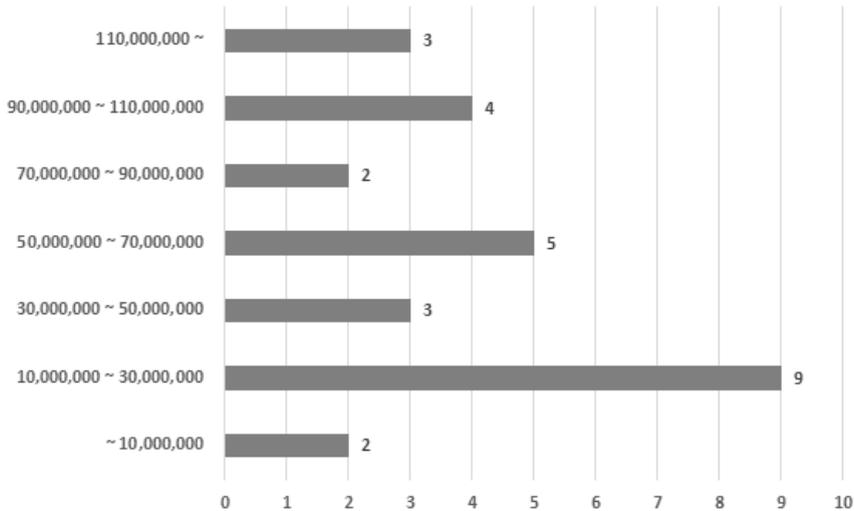


〈그림 60〉 연도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수 (2016년 ~ 2018년)  
(단위: 개)



- 28개의 공간별 3개년(2016 ~ 2018) 총 지원 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 원 초과에서 3천만 원 이하의 지원금의 분포는 9곳으로 나타났으며, 1억 천만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선정 공간은 3곳이었음. 중간값은 5천 2백만 원이었음.

〈그림 6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총 지원 금액별  
 별 선정 공간의 분포 (2016년 ~ 2018년) (단위: 개, 원)



## 제2절 서울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sup>5)</sup>

### 1)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 1) 공모 안내 분석

- 서울문화재단은 2017년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아래 ‘청년예술허브’ 사업을 시행하였음. 이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공간 제공 및 교육·정보서비스·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수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예술인 상호 간 교류·협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창작인프라 구축 및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 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
- 2018년 사업 목적의 큰 방향은 2017년과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유형이 구체화되어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과 ‘발표공간제공형’ 에서 ‘자체기획형’ 과 ‘발표공간제공형’ 으로 분리, 공모됨.
  - 2018년 자체기획형은 공간 운영비와 사업운영비가 함께 지원되는 유형이었고,

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의 주요사업 ‘창작지원’ 등을 참고하여 분석함.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fac.or.kr/>

발표공간제공형은 공간운영비만 지원되는 유형이었음.

- 2017년과 2018년은 신청자격에서 공간 운영 실적(최소 1년 이상 운영)은 동일했으나 2018년 구체화되었음. 임대료 지원에 따른 임대차 계약기간, 연속 선정 3회 이하로 제한, 대관료 50%할인(최소 30일 이상) 조건이 그것이었음.
- 2017년과 2018년 모두 청년예술인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관 또는 자체 기획 사업이 부과되었음. 한편, 공간이 청년예술인(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 대관 시 청년예술인의 연령(39세(2017년 공모)→35세(2018년 공모))을 낮춤.
- 2017년 지원규모는 30개소 내외, 1개소 당 2,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목표로 했다가 2018년 세분화 된 유형에 따라 자체기획형은 2,000만 원 ~ 5,000만 원, 발표공간제공형은 2,0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었음.

〈표 18〉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17년 ~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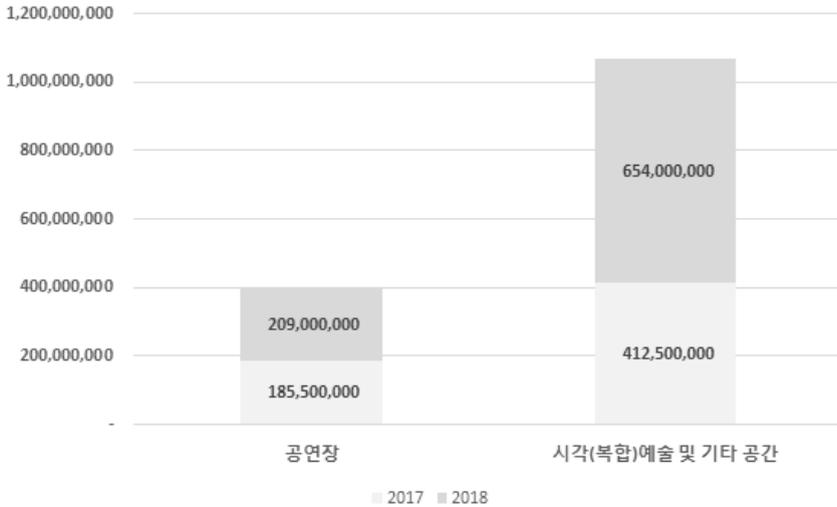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지원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예술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 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 등) 하는 개인 또는 단체</li> <li>- <b>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공간</b></li> <li>- 개인 39세이하(1979.1.1.이후 출생) 이거나 데뷔 10년이하(2008.1.1.이후 데뷔) 예술인</li> <li>※ 단, 최초예술지원 문화은 장르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li> <li>- 단체 39세이하(1979.1.1.이후 출생)로 구성된 단체이거나 설립 10년이하(2008.1.1.이후 데뷔) 예술단체</li> <li>※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 종 필수</li> <li>-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li> <li>-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사업별 세부내용 참조)</li> <li>※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공간</b></li> <li>- 임대차계약서상 2018년 12월까지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한 공간(단, 임대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li> <li>- <b>청년예술인(단체) 대상 대관료 50%이상 할인하여 대관할 수 있는 공간(최소 30일 이상)</b></li> <li>- <b>청년예술인(단체) 연계 사업을 주체적으로 기획 운영이 가능한 공간(자체 기획형에 한함)</b></li> <li>-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li> <li>- 동일 공간의 연속 선정은 3회까지 가능</li> <li>- 청년예술인(단체) 기준 (개인) 39세(1980.1.1.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 또는 데뷔 10년(2009.1.1.이후 데뷔) 이하의 예술인 (단체) 35세(1984.1.1.이후 출생) 이하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li> </ul>
지원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청년문화예술 공간지원</li> <li>- 청년예술인 창작발표 공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한 중소 규모의 민간 문화예술공간 사업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li> <li>- 발표공간제공형: 서울문화재단 <b>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단체) 대상 발표 및 교류공간 제공(최소 30일 이상)</b></li> <li>-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서울문화재단 <b>청년예술지원사업 선정 예술가(단체) 대상 발표 및 교류공간 제공(최소 30일 이상)</b>, 청년예술가 또는 단체(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창작지원사업 선정 여부 무관)와 연계한 자체 기획사업 1건 이상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장르의 청년예술인(단체)들이 창작발표 및 교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공연장, 전시장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li> <li>- <b>자체기획형의 경우 자체기획 사업 최대 2건 구성 가능</b></li> </ul>

구분	2017		2018		
지원 유형 및 항목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 공간임차료: 지원신청총금액의 80% 이내 · 공간운영경비: 지원신청총금액의 30% 이내 -발표공간제공형 · 공간임차료: 지원신청총금액의 50% 이내 · 공간운영경비 지원신청총금액의 30% 이내 · 사업운영비 지원신청총금액의 50% 이내 -지원유형 중 반드시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자체기획형(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자체기획사업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2천만 원 내외 책정 가능 · 사업운영비(자체기획사업 소요 경비): 3천만 원 내외 책정 가능 -발표공간제공형(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지원유형 중 반드시 택1하여 신청하여야 함.		
사업 기간 (공모 안내 기준)	2017. 5. ~ 12.		2018. 5. ~ 12.		
선정 발표	2017. 6. 9.		2018. 5. 11.		
지원 규모	-30개소 내외, 2,000만원/1개소		-자체기획형 2,000만 원 ~ 5,000만 원 -발표공간제공형 2,000만 원 이내		
심의 기준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	발표공간제공형	심의 기준 (가중치)	자체기획형	발표공간제공형
공간(공간 및 시설의 적합성)	30%	50%	공간운영 현황	20%	40%
성과(청년예술창작 지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 효과)	40%	50%	공간운영 계획	20%	40%
프로그램(공간운영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	30%	-	자체기획 사업 운영	40%	-
			청년예술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	20%	20%

## 2) 선정 결과 분석

- 청년예술공간 지원 금액은 2년(2017년 ~ 2018년) 간 총 1,461,000천 원이었으며, 이 중 공연장을 제외하면 1,066,500천 원 이었음.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마을공동체 관련)은 총 지원 금액 대비 2017년 68.98%, 2018년 75.58%로 공연장보다 지원 금액이 많았음.
- 청년예술공간 중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마을공동체 관련) 공간은 2년 간 총 51건이 지원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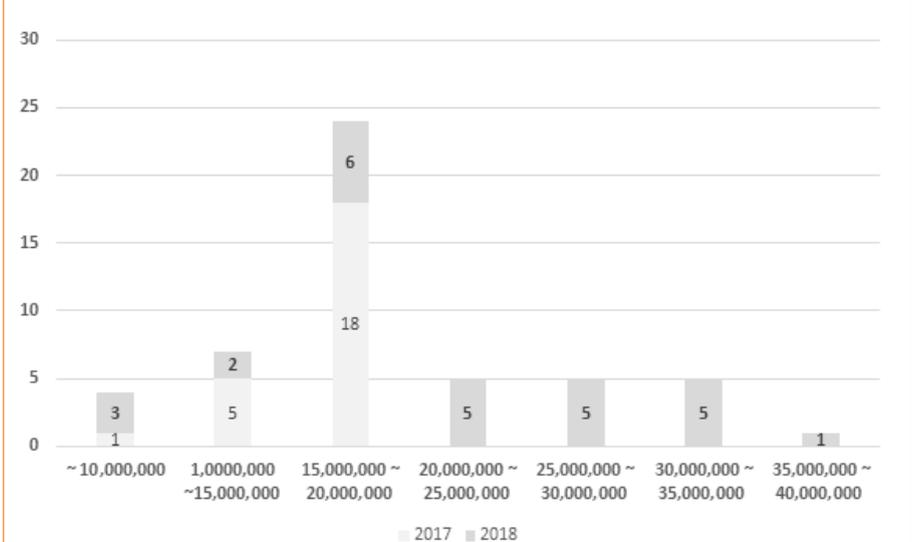
〈그림 62〉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공간 장르별 지원금액 분포 (2017년 ~ 2018년)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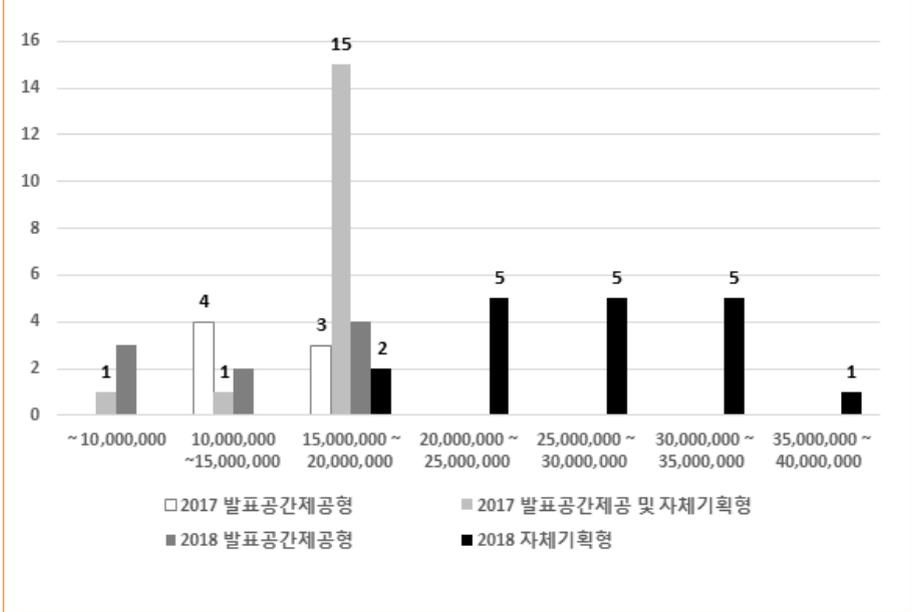
□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마을공동체 관련) 공간의 2년간 지원 금액의 분포를 살펴 보면 약 절반인 24건이 15,000천 원 초과 20,000천 원 이하의 지원 금액에 분포해 있음.

- 2017년 지원 금액을 1개소 당 20,000천 원 내외로 한정했던 것에서 2018년은 지원 금액이 다양하게 분포되었음.
- 2018년 자체기획형은 20,000천 원 이상으로 지원되었으나 공모 안내의 최고 금액인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은 공간은 없었음. 최고 금액은 38,000천 원이었음.

〈그림 63〉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연도별 지원 금액별 선정 공간 수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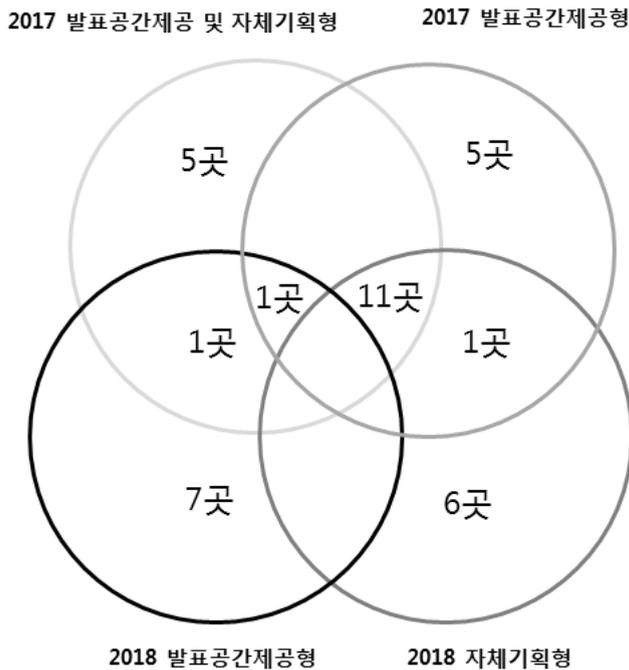


〈그림 64〉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별 선정 공간 수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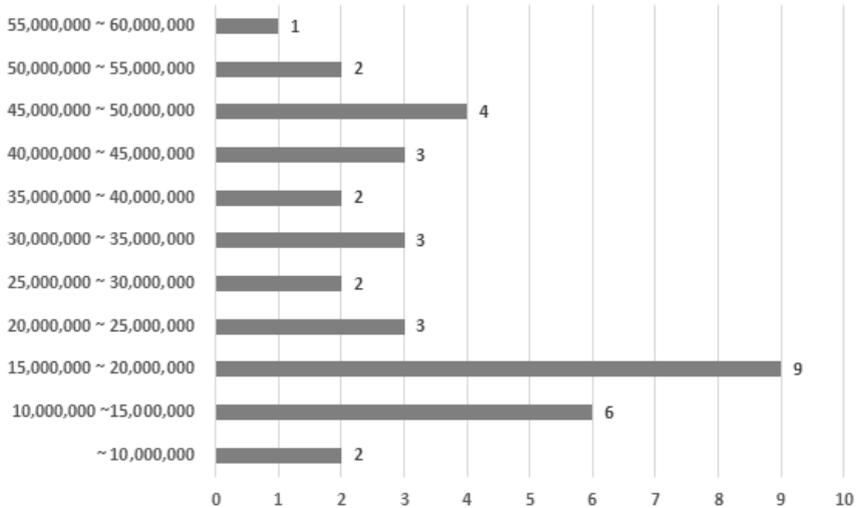
- 총 51건 지원은 서울 37개의 공간에 지원되었음.
- 연도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에만 지원받은 공간은 총 5곳, 2017년 발표공간제공형에만 지원받은 공간은 5곳, 2018년 발표공간 제공형에만 지원받은 공간은 7곳, 2018년 자체기획형에만 지원받은 공간은 6곳으로 나타남. 2017년 발표공간제공 및 자체기획형과 2018년 자체기획형의 연속 지원을 받은 공간은 11곳이었으며, 총 14개의 공간이 2017년과 2018년 2년간 지원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지원 유형이 달라지기도 했음.

〈그림 6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지원 공간별 지원 유형별 수혜 (2017년 ~ 2018년) (단위: 개)



- 37개 공간의 2개년(2017 ~ 2018) 총 지원 금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15,000천 원 초과 20,000천 원 이하의 지원금 분포는 9곳으로 나타났으며, 55,000천 원을 초과하는 지원금 선정 공간은 1곳이었음. 중간값은 25,000천 원이었음.

〈그림 66〉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시각(복합)예술 및 기타 공간 총 지원 금액별 별 선정 공간의 분포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과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 비교(2017년 ~ 2018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과 관련된 사업의 특성, 연령 제한, 연속 선정 횟수 제한, 지역에 제한이 없는 광범위한 지원사업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서울문화재단 사업과 비교했을 때, 타 지원사업과 연계성이 부족한 반면, 연령에 제한되지 않음.
  -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청년예술인 또는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표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하거나 청년예술가 및 단체와 연계한 자체 기획사업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공간의 콘텐츠인 ‘전시와 프로그램’ 지원을 내용으로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공간의 운영과 프로그램(대관 및 기획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창작자와 공간 운영자, 공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게 되는 예술 생태계의 구조 속에서 상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보고서』에서 예술분야 중장기 추진과제 중 “경력단계를 고려한 예술지원 체계화”의 세부 추진과제 중 “예술의 매개영역 지원(기존 문화시설 정책의 사각지대인 비영리 소문화공간 지원)”, 중장기 추진과제 중 “창작 공간 혁신을 통한 서울 문화생태계 활성화”의 세부 추진과제 중 “창작공간과 예술지원사업 연계”를 내세운 바 있음. (서울문화재단, 201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 자격에서 3년의 운영 실적을 요구했으며, 서울문화재단은 1년의 운영 실적을 요구했음.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하며, 그 청년예술인(단체)의 연령에 기준을 적용했음.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을 제외하지만, 서울문화재단은 ‘대관’ 전용 공간이 지원신청에서 제외하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전시 및 프로그램 직접 경비 지원 방식(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개편 후 인건비 지원 부활)이며, 서울문화재단은 인건비와 임차료,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 2018년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신작으로 구성된 기획 전시 2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반면 서울문화재단의 자체기획형의 경우 예산 내에서 자체기획사업 최대 2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주최 공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가 의무로 부과됨.
  - (참고)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에서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 및 프로그램 2회 이상”은 변하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파급효과에 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문화재단의 심사 기준은 공간의 운영 관련 항목(발표공간제공형), 자체기획사업 관련 항목(자체기획형)에 비중이 높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서울문화재단에 비해 선정 발표가 빨라 사업 기간이 조금 긴 편임.

〈표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비교 (2017년 ~ 2018년) (단위: 개, 원)

연도	항 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및 기타(공연장 제외))
2017	지원 금액	595,000,000	412,500,000
	지원 공간 수	17	24
	평균 지원 금액	<b>35,000,000</b>	<b>17,187,500</b>
	사업 기간	약 10개월(3월 ~ 12월)	약 7개월(6월 ~ 12월)
	지원 자격	-3년 운영 실적 -영리 및 대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 제외	-1년 운영 실적 -청년예술인(단체) 기준 적용 -대관전용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자(단체)는 지원가능하나 공간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전시 및 공간 운영 경비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2018	지원 요건	-신작 기획 전시 3회	-공통: 대관일 최소 30일 이상 -자체기획형: 청년예술가 또는 단체(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 창작지원사업 선정 여부 무관)와 연계한 자체 기획사업 1건 이상 진행
	특이 사항	-평가 및 계량검증 연중 상시	
	지원 금액	520,000,000	654,000,000
	지원 공간 수	15	27
	평균 지원 금액	<b>34,666,667</b>	<b>24,222,222</b>
	사업 기간	약 10개월(3월 ~ 12월)	약 8개월(5월 ~ 12월)
2018	지원 자격	-3년 운영 실적 -영리 및 대관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공간 제외	-1년 운영 실적 -청년예술인(단체) 기준 적용 -대관전용 공연장 및 전시장 운영 자(단체)는 지원가능하나 공간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공간운영비(임차료, 운영자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지원 요건	-신작 기획 전시 2회	-공통: 대관 할인, 대관일(최소 30일 이상) 설정 -자체기획형: 예산 내에서 자체 기획사업 최대 2건 구성 가능
	특이 사항	-평가 및 계량검증 연중 상시	-공간 현장실사 참여 필수(사업 기간 중 1회 (예정)) -서울문화재단 주최 공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의무 -공간 현장실사 1회 의무

### 제3절 지역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sup>6)</su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네 가지 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1) 기초예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관련 사업, 2)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조성) 관련 사업, 3) 청년문화예술공간 관련 지원사업, 4) 지역 커뮤니티(동네, 마을 등) 관련 지원사업 임.

- 1) 기초예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기반의 시각예술(미술) 관련 단체, 활동 지원으로서 그중 일부가 비영리 전시공간에 지원되었음.
- 2) 창작(창생)공간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조성) 관련 사업은 작가들이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창작스튜디오와 전시공간을 지원했는데 그중 일부가 비영리 전시공간에 지원되었음.<sup>7)</sup>
- 3) 청년문화예술공간 관련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년문화 기반, 거점이 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는데, 그중 일부가 시각예술(미술) 전시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공간에 지원되었음.
- 4) 지역 커뮤니티(동네 등) 관련 지원사업은 생활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했는데, 그중 일부가 시각예술(미술) 전시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적 성격의 공간에 지원되었음.

6) 지역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지역문화재단 87곳의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모집단의 비영리 전시공간이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함.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or.kr](http://www.ggcf.or.kr),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gfc.or.kr](http://www.dgfc.or.kr),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bsct.or.kr](http://www.bsct.or.kr),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http://www.ifac.or.kr),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jbct.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fac.kr/>,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bfc.or.kr](http://www.cbfc.or.kr),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www.sjcf.or.kr/>

7) 경기문화재단의 창생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은 공방 형태의 커뮤니티 예술 공간을 추구하는 점에서 서울시의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과 더 유사하며,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서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작은미술관 조성 및 지원사업과 더 유사함.

〈표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서울시 제외) 지원사업 현황 비교 (2016년 ~ 2018년)

구분	2016	2017	2018
기초예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관련 사업	경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충북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창작(창생)공간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조성) 관련 <sup>8)</sup>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세종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예술공간 관련 지원사업 <sup>9)</sup>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동네, 마을 등 지역 커뮤니티 관련 지원사업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 이러한 지원사업을 2016년 ~ 2018년 사이 1회 이상 수혜받은 곳은 총 47곳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적 성격을 지니고, 활발히 활동 중인 공간이 2016년 ~ 2018년 사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수혜를 1회 이상 동시에 받은 공간은 총 6곳으로 나타났음. 동일 사업으로 ‘중복 수혜’ 되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고, 공개된 지원 선정 결과 상 해당 년도와 지원 기관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6곳의 비영리 전시공간이 수혜받은 지원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의 유사점을 집중 분석할 필요가 있음.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6년 ~2018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 2017년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활동지원사업
- 2017년 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기획특화육성영역 및 지역문화심화영역 국제예술교류 지원
- 2016년 ~ 2018년 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기획특화육성영역 및 지

8) 2016년 2018년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 문화예술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며, 제주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으나 연도는 확인이 어려움.

9) ‘울산 청년문화기반 구축사업(청년문화공간 콘텐츠 지원)’ 과 ‘제주 청년문화예술 오픈존 사업’ 이 있으나 연도는 확인이 어려움.

역문화심화영역 창작공간활성화 지원

<표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서울시 제외) 지원사업 동시 수혜 현황 (2016년 ~ 2018년) (단위: 개, 년) \*공간의 이름은 익명 처리함.

구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8	2017,2018	2016,2018	2016~2018	합계
경기문화재단	2016	A					1
	2016, 2018		B				1
	2017, 2018					C	1
전북문화관광재단	2017			D			1
부산문화재단	2017		E				1
부산문화재단	2016~2018				F		1
합계		1	1	1	1	1	6

<표 22>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2016년 ~ 2018년)

구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		
	2016	2017	2018
지원 자격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지원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지원
지원 대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원(20개 시·군) - 시 시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li> <li>◆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1개) - 시민 밀착형 예술활동 공모지원</li> <li>- 지역 특화 기획지원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예술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의 예술활동</li> <li>◆ 시군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li> <li>◆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 예술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의 예술활동</li> <li>◆ 시군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li> <li>◆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li> </ul>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지원 최고 2천만 원</li> <li>◆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 공모지원 최고 2천 만원, 기획지원 자체설계 가능</li> </ul> 총사업비 12억 원	최고 2천만원 [기초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자체 설계]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총사업비 12억 원	최고 2천만원 [기초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자체 설계]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총사업비 12억 5천만 원
주요 특징		- 예술프로젝트 및 지역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 실행 활동 적시	

〈표 23〉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공모사업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문화기반시설, 문화거점

구분	예시
문화기반시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문화의집, 문화원, 청소년문화센터 등
문화거점	마을회관, 마을문고, 갤러리 카페, 북카페 등 다종이 함께 모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공공 장소 등

〈표 24〉 2017년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활동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구분	2017년 전북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교류활동지원사업
지원 자격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단,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문화예술법인 혹은 최근 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함
지원 대상 및 내용	-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영역의 문화예술단체(개인)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교류 활동 - 문학예술,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영역의 문화예술단체의 1년 이내 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를 계획하는 활동
지원 규모	2백만 원 ~ 2천만 원
주요 특징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지역간·국가간·남북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활동 지원

〈표 25〉 2017년 부산문화재단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구분	2017년 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기획특화육성영역 및 지역문화심화영역 국제예술교류 지원
지원 자격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부산 또는 국외에서 최소 1회 이상 국제예술교류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 소재 예술단체(개인은 신청불가)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자금 예산으로 책정한 단체 -부산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
지원 대상 및 내용	- 부산 또는 국외에서 진행되는 국제예술교류 활동 지원 예) 국외 예술인(단체)과 협력하여 공동 창작(제작)하는 프로젝트, 국제문화예술행사(세계 유수 페스티벌, 비엔날레 등) 참가 활동 등 -부산에서 진행하는 사업(In-bound)과 국외에서 진행하는 사업(Out-bound)으로 구분하여 지원 ① 부산에서 진행하는 사업 : 3개국 이상, 국외 예술인 최소 6명 이상 참가하는 사업 ② 국외에서 진행하는 사업 : 국외 예술인(단체) 협력, 국제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사업
지원 규모	2백만 원 ~ 2천만 원
주요 특징	문화예술단체(개인)의 지역간·국가간·남북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활동 지원

〈표 26〉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주요 내용 (2016년 ~ 2018년)

구분	부산문화재단 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기획특화육성영역 및 지역문화심화영역 창작공간활성화 지원		
	2016	2017	2018
지원 자격	<p>1. 창작공간을 보유한 민간 전문 예술단체</p> <p>2.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3회 이상 부산활동실적이 있는 부산 소재예술단체</p> <p>- 레지던시창작공간 (작업공간+교육공간+숙식공간): 3인 이상 상주인력(예술인, 숙식 공간 필수)</p> <p>- 소규모 창작공간: (작업공간+교육공간): 2인 이상 상주인력(예술인)과 최소 33㎡ 이상 공간 규모</p> <p>※ 1항, 2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소재예술단체(개인은 지원신청불가)</p> <p>-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p> <p>-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3회 이상 부산활동실적이 있는 단체</p> <p>나. 아래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신청해야 하며, 창작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함</p> <p>- ① 레지던스 창작공간 운영: 창작공간+커뮤니티공간+숙식공간, 3인 이상 상주인력)예술인, 숙식공간 필수</p> <p>- ② 문화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창작공간+커뮤니티 공간): 최소 33㎡ 이상 공간 규모, 소규모 창작공간을 비롯하여 인문학공간, 소극장 등 참여가능</p> <p>다.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p> <p>라.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체자금 예산으로 책정한 단체</p> <p>마.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p> <p>※ '가' ~ '마'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3회 이상 부산 활동실적이 있는 부산소재예술 단체 (개인은 지원신청불가)</p> <p>나. 아래의 2개 세부분야로 이원화하여 지원 신청해야 하며, 창작공간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함</p> <p>- 레지던시창작공간 운영(창작공간+커뮤니티공간+숙식공간): 3인 이상 상주인력(예술인), 숙식 공간 필수</p> <p>- 문화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창작공간+커뮤니티 공간): 최소 33㎡ 이상 공간 규모, 소규모 창작공간을 비롯하여 인문학공간, 소극장 등 참여가능</p> <p>다.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p> <p>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원신청한 단체</p> <p>※ '가' ~ '라'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지원 대상 및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스형 창작공간 활성화 경비 및 네트워크 교류 지원</li> <li>○ 소규모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지던스창작공간 활성화 지원</li> <li>○ 문화예술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한 경비 및 프로그램 지원 (시민예술창작,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등)</li> <li>-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지향</li> <li>- 재단에서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li> <li>※ 지원금 지출 관련사항</li> <li>① 국내 예술가: 예술창작지원금(일비) 또는 레지던스 활동(식비, 물품구입비) 중 택일 지원</li> <li>② 국외 예술가: 왕복교통비(항공료 등) 또는 국내 체재비(예술창작 지원금(일비), 식비) 중 택일 지원</li> <li>③ 레지던스 참여예술가 사례비(성(워크숍비, 회의비 등) 지원 불가</li> <li>④ 문화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경비 외 지원 불가</li> </ul>
<p>지원 규모</p>	<p>레지던스창작공간: 1천만 원 ~ 5천만 원</p> <p>소규모 창작공간: 1건당 3백만 원 ~ 5백만 원</p>	<p>레지던스창작공간: 3천만 원 ~ 5천만 원</p> <p>문화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5백만 원 ~ 1천만 원</p>	<p>레지던스창작공간: 3천만 원 ~ 5천만 원</p> <p>문화예술창작공간 프로그램: 5백만 원 ~ 1천만 원</p>
<p>주요 특징</p>	<p>2015 예술창작공간 분야로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에 의고 소규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으로 확대</p>	<p>-자격 조건에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명시</p> <p>- 인문학공간, 소극장 등 참여 가능</p>	<p>-자격 조건에 '상업성이 없는 비영리 순수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 명시</p> <p>- 인문학공간, 소극장 등 참여 가능</p>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은 '공간' 지원의 측면에서 문화거점(공간)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과 부산문화재단의 예술가가 상주하는 '레지던스' 및 '문화예술창작공간' 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타남.

□ 지원 규모는 공모 안내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1천만 원 ~ 8천만 원)가 경기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최고 2천만 원), 부산문화재단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창작공간 기준 (5백만 원 ~ 1천만 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자격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활동 실적 3년을 요구하는 것은 부산문화재단과 동일하나,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활동 실적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단 부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창작공간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의 규모(최소 33㎡ 이상)가 자격 요건에 부과됨.
- 지원 내용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부산문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 경비 지출에만 가능한 것으로 동일하며, 경기문화재단의 운영 경비 지출 가능 범위는 확인되지 않음.
- 부산문화재단의 창작공간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 기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인문학 및 소극장도 소규모 창작공간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경기문화재단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문학, 공연, 전통예술 장르도 포함되나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지원을 지향함.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각예술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자체 지원에 목적을 두는 것과는 대조됨.
- 부산문화재단 및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국내외 예술교류 관련 지원사업은 공간 자체 지원보다 프로그램 지원의 성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전시공간 지원사업과는 다소 무관함.

#### 제4절 소결

### 1.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의 특성

#### 1) 창작 활동의 거점 확충에서 국민의 향유 기회 확대 추가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사립미술관, 대안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며,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됨. 2018년은 사업목적에 일부 수정하여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를 추가함.

#### 2)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 대비 선정 공간 수 및 지원 금액 부족

- 2016년 ~ 2018년 지원 결정 내용을 살펴 볼 때, 비영리 전시공간 선정 건수는 감소하였고 지원금도 A급 ~ D급 금액이 하향조정 되었음을 알 수 있음. 1999년 비영리 전시공간이 출현하고 2018년까지 공간의 생성폭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원

금의 현황과 지원의 개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실태와는 상이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의 역할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이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 서울과 경기 중심의 지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역 거점 예술 공간에 대한 안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됨. 비영리 전시공간의 조성이 중앙을 중심으로 파생된 역사성을 감안할 때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으로서의 안정적인 활동이 축적된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지역 예술 활동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묵과할 수는 없는 실정임.

### 4) 전시공간의 ‘개방성’ 지원 시도로써 서울문화재단의 유사 지원사업

- 서울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해 본 결과 서울문화재단은 운영 실적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체기획형’ 과 ‘발표공간제공형’ 으로 분리, 공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발표공간제공형’ 은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방적 성격을 부각시켜 생산자의 공간 선택 폭을 확대하고 향유자들의 공간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가능하게 함.

### 5) 서울시 제외 지역문화재단의 유사 지원사업의 미비

- 지역문화재단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문화거점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재단 지역예술활동지원사업과 부산문화재단의 예술가가 상주하는 ‘레지던시’ 및 ‘문화예술창작공간’ 을 지원하는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파악됨.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상대적으로 공간 지원보다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프로젝트성 지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공간 운영의 안정성 차원에서는 부담이 큰 상황임.

### 6) 지역과 연령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장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사업의 특성과 연령과 지역에 제한이 없는 광범위한 지원사업으로 한국 시각예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임.
- 지역문화재단이 점차 확대되어 출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사업이 지역문화재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비영리 전시공간의 지원 수와 지원금의 확대는 시각예술 생태계의 생산자, 관계자, 향유자의 토대를 다지고 미술관과 갤러리와 같은 제도적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세계에서 예술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제7장

---

###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제1절 : 연구 내용 정리

제2절 : 정책적 제언

### 제1절 연구 내용 정리

- 본 연구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 범위를 정립한 뒤 최근의 동향을 살펴봄. 이에 근거하여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과 서울, 지역 문화재단의 유사 지원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함.
- 제2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연구에서 관행적으로 범주화된 ‘대안공간’, ‘신생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간적, 발생적 의미가 강한 대안공간, 신생공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간을 ‘기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봄.
  - 선행연구에서 국내 대안공간은 비영리성을 표방하며 비주류 활동을 벌이고 ‘제도 바깥’, 중심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며, 역사적으로 1990년대 말에 태동한 뒤 2010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음. 해외(미국)의 대안공간의 경우 공간의 운영 주체인 예술가가 커뮤니티 안에서 실험적인 예술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 운영(artist-run)’과 글로벌 시대에 예술계 안에서 벌어지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지속가능한 공간 운영을 위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ed)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국내 신생공간은 젊은 예술가가 미술을 중심에 놓고 만들어낸 플랫폼 일반을 총칭하며 2010년대 자립 공간 설립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논의를 거칠게 묶은 개념임. 새로 생긴 공간이라기보다 전통적인 작품 창작을 넘어 공간을 창작의 매체, 영역, 방법 등으로 간주하는 태도나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선행연구에서 대안공간, 신생공간이라는 시간적, 발생적 의미와 구분하여 복합 문화공간,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미술공간, 도시재생 및 유희 공간을 활용한 미술공간, 다원예술적 활동을 담보하는 공간 등 세분화된 과업과 목적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창작과 전시 생산자 중심에서 향유층 포괄, 공유 개념을 담보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확장태를 논의하였음.

- 제3장에서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을 비영리 단체의 개념, 대안공간과 비영리성의 확장을 검토하여 도출한 뒤 공유의 가치를 덧붙여 제시하였고 운영 주체, 활동과 목적, 창작 스튜디오의 유무에 따라 세분화된 범위를 정립함.
- 비영리 전시공간의 개념은 문헌연구를 통해 1) 사명과 목적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비영리 단체의 개념에 근거하여 예술을 통한 공익의 실현과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창출, 충족을 위한 활동을 추구하는 공간, 2) 실천을 통해 수행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비영리성의 지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되며 이윤과 이익의 공적 재투입, 공익적 활동 전념 등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 생태계 내에서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향유와 유통 영역의 변형과 바깥에서 예술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하는 공간, 3) 공유 가치와 관련하여 창작, 생산, 기획, 매개, 향유 등 다양한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출함.
  -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는 운영 주체에 따라 1)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과 2)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은 활동과 목적에 따라 1)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2)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 3)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세분화됨. 그러나 이 범위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서 구분되지는 않고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범위를 결합하고 있음. (준)공공기관 비영리 전시공간은 창작 스튜디오 운영 특성에 따라 1) 공공시설을 활용한 비영리 전시공간, 2) 창작 스튜디오와 연결된 비영리 전시공간으로 세분화됨.
- 제4장에서는 2016년 ~ 2019년 4월 기간에 해당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 최근의 비영리 전시공간은 생성 시간에 따른 활동 목표보다 공간이 처한 예술 생태계의 환경에 따라 주체의 문제를 재편하고 성격을 다변화시키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음. 개별 비영리 전시공간과 활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영리성에 기반 한 예술의 공공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젊은 예술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중 일부는 대안적 시장 유통 구조에 대한 요구와 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영리 전시공간은 운영 주체의 세대 구분과 관련 없이 운영상의 어려움과 도시개발 정책 등과 같은 내적, 외적 이유로 폐관, 중단하고 있음.

- 그러나 새로운 공간들이 새로운 운영 주체들에 의해 다시 설립되고 있으며 ‘신생공간’ 이 2016년 이후 점차 폐관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신생공간’ 에 관여했던 공간들 중 일부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또한 ‘포스트 신생공간’ 을 구상하는 일련의 정황들이 포착됨. 따라서 물리적 공간과 정체성의 장소가 아닌 ‘활동’ , 2018년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정책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가임공간’ 으로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장르에 고립되지 않고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카페와 메이커스페이스, 커뮤니티스페이스가 결합되어 창작자의 사회적 진출을 돕거나 이용자, 지역민간 교류의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등으로 다 변화되고 있음.
- 제5장에서는 2016년 ~ 2018년 기간의 전국 비영리 전시공간을 모집단을 설정하고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에 한정하여 기초조사와 FGI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104곳의 기초조사 결과와 그중 41곳의 FG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 전시공간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현황 분석을 통해 다변화된 비영리 전시공간과 비영리성의 의미, 공간 운영의 어려운 점, 지원사업 개선안 등을 파악하였음.
- 기초조사에서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에 응답한 104곳 중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활동을 선택한 곳은 51곳, 기타 22곳,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19곳,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중심 12곳으로 나타남. FGI 조사에서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을 응답한 41곳은 (복수응답 포함(232건)) 1)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2) 자체 기획, 3) 시각예술 담론 형성 등의 순으로 응답했음.
  -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응답한 95곳 중 26곳이 비영리성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 전시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 이라고 응답함. 다른 26곳이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 지원하는 것” 이라고 응답함.
  - 비영리 전시공간의 다수는 현실적인 삶을 위해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난이 반복되어 외부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음. 외부활동으로 인해 전시공간 운영에 소홀해지거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 사업을 위한 결과

물을 생산해 낼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함.

-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79곳이 임대료 나타났으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 지원사업에서 임대료 지출이 불가능한 점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하였음.
-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89곳이 대표자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 급여를 받는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외 상근 인력의 평균 임금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가 크지 않은 약 170만 원 선에 머무르고 있었음.
-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77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중 지원한 이력이 있는 곳은 30곳에 불과했음. FGI 조사 결과 E-나라 도움 사용의 불편함이 그 원인으로 추정됨.
-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62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제외 타 공공재원의 지원사업에 지원한 이력이 있었으며, 62곳 중 55곳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공공재원에 의한 재정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함.
-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재정적 지원을 제외한 비재정적 지원 정책이나 방식을 응답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재정적 지원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음. 비재정적 지원으로는 지원 내용의 다각화와 교류 플랫폼 구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음.

□ 제6장에서는 2016년 ~ 2018년 기간의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지원 사업을 공모 안내, 선정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분석하였고, 2) 서울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 3) 지역문화재단 유사 지원사업과 비교하였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사업은 창작 활동 거점 확충, 예술가(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제공이라는 목적에 2018년부터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 를 사업 목적에 추가함. 2016년 ~ 2018년 지원 결정 내용을 볼 때, 선정 건수 및 지원금이 감소하였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공간의 생성폭을 고려해 볼 때 지원금의 현황과 건수는 실태조사와 상이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17년 ~ 2018년 기준, 서울문화재단의 유사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서울문화재단의 청년예술공간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과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1년 운영실적이라는 완화된 지원 자격을 내세웠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시 및 공간 운영(프로그램)운영 경비를 지원했으며 3년 운영실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자격을 내세웠음.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청년예술인(청년 예술인 연령 조건)을 지원하는 대관, 기획사업 등을 이행해야하는 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연령과 지역에 관련 없이 광범위한 사업인 점이 장점으로 나타났다음.
- 2016년 ~ 2018년 기준, 서울시 제외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과 유사한 사업이 부산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에서 일부 발견되지만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된 프로젝트성 지원이 강하고 지원금이 작거나 공간의 물리적 조건, 상주 예술인 설정 등 지원 자격이 제한적임.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시각예술 외에 인문학, 소극장, 소규모 창작공간 등 공간 유형의 다양성과 장르 다양성을 지향하는 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에 한정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과는 대조됨.

## 제2절 정책적 제언

- 본 절은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개념 및 범위 정립과 최근 동향 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유사 지원사업 비교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1. 비영리 전시공간의 역할 확산

#### 1) 창작 지원 정책과 향유 지원 정책의 이분법적 지원에서 ‘공간’ 지원을 통한 파급 효과 창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별 작가나 단체 프로젝트의 지원이 아닌 시각예술활동의 거점인 창작·전시공간 중심으로 지원하는 간접지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사) 한국정책학회, 2011, 52쪽) 2018년부터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향유 중심의 정책 방향이 추가되어 궁극적으로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향유 효과를 창출하려는 방향이 전제되

어 있음.

- 그러나 비영리 전시공간은 미술관과 같은 대규모 전시와 상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 아닌 조건에서 도시의 외곽이나 주변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지역과 동네, 마을 내에서 일상 속 예술 활동, 참여의 예술, 공동체 예술을 실천하며 서울 중심 위주의 집약이 아닌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
  - 실태조사의 기초조사에서 104곳이 응답한 전시공간의 활동 범위는 순수 시각 예술 전시 개최 중심이 약 절반을 차지했지만 경계를 가로지르며 도시와 공간, 공동체,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주요 활동 범위로 삼는 곳이 있었음.
- 게다가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 실태’는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에서의 문화예술행사(공연, 전시회, 문화 관련 강좌)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조사에 따른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향유 정책 방향을 설계하기 어려움.

※ 참고자료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시·군·구민 회관	지방 자치단체에서 회의, 공연, 집회의 목적으로 지은 시설
문화예술회관	예술 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
복지회관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시설
청소년 회관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 설치된 시설
문화원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향토 문화 또는 특정 국가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문화 및 사회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시설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박물관(미술관 포함)	고고학 자료, 미술품, 인문·자연, 과학 등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 보존, 진열하여 일반에 전시하는 시설
문화의 집	지역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문화예술 체험의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으로 설치된 시설
대학교 부설 사회문화교실	대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하는 시설
시설문화센터(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개인 또는 기업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좌 등을 개설한 시설
주민자치센터	지역 주민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로 행정업무, 문화, 복지, 편의 시설을 제공함
민간공연장(공공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장)	민간에서 설치한 예술 작품의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지은 시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7쪽

- 최근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예술지원 정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 중단으로 인한 복권기금 활용과 ‘문화민주주의’ 관점으로 인해 수요자(향유자) 중심으로 전환되었지만 예술향유에 대한 지원이 수요자의 자발적인 향유로 뚜렷이 이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함. 예술향유 지원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중 예술향유 활성화를 위해 창작지원(예술인, 예술단체)을 개선하는 것, 즉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향유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은 한국 동시대 미술의 현장에서 창작(작가, 기획자, 비평가)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자 공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시 관람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용자를 지원하는 것임.
  - 실태조사의 FGI 설문조사 결과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 40곳 중 33곳은 일반대중과 작가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 다양성 증진

- 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했을 때, 동시대 한국미술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은 신진 작가의 등용문이자 실험의 장을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음.
  - 실태조사의 FGI 설문조사 결과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의 높은 비중을 응답한 33곳은 1순위로 ‘작가발굴’ 꼽았음. 2순위는 자체기획, 3순위는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으로 나타났음.
- 최근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의 결과에 근거했을 때,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들이 인식하는 비영리성의 중요성은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을 지원하는 대안적 역할과 작가,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하는 것임.
  - 최근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젠더 문제를 다루거나 사회적·정치적 입장이 뚜렷한 예술가들을 수용하며 미술관이나 제도적 기관에서

의 활동과 거리를 두는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 있었음.

- 최근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대안공간의 형태로 신진 작가 발굴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자 등록의 업종은 카페로서 영리적 사업장이지만 작가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여 작가들의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제품화, 상품화 단계를 지원하는 공간이 있었음.
- 최근 동향 분석과 실태조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도시와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의 의미, 지역예술의 의미와 가치 창출에 헌신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업종의 상태는 카페이지만, 분할된 공간 내에서 지역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고 마을 주민과의 파티, 워크숍, 모임 공간 등으로 기능하는 개방적 공간이 있었음.

## 2. 정책적 제언

###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역할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이 강화되어야 이유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바 비영리 전시공간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공간’ 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이 미비하여 지역별 수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설문에 응답한 전국의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 중 서울시에 위치하지 않는 48곳의 공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 즉 중앙 집중형의 정책 모델에서 예술 지원의 지역적 균형을 위해 고심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었음.
  -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104곳은 서울 56곳, 서울 외 48곳으로 나타났음. 2010년 전까지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립이 확대되었음.
- 뿐만 아니라 1) 서울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청년예술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전시공간, 2) 서울시에 위치한 청년예술 관련 전시공간이더라도 3회 이상 연속 선정된 이후 지원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비영리 전시공간, 3) 타 공공재원의 안정적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 비영리 전시공간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서울문화재단이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예술인 관련 사업(대관, 기

획)에 한정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제외 지역의 문화재단의 경우 일부 유사 사업이 있지만 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규모가 작고 물리적 조건이나 상주 예술인을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어 지원의 범위는 협소한 상황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공간’ 을 지원함으로써 개인 작가 지원과 전시 지원(기획자 지원), 비평 지원(비평가 지원) 등 개별적인 예술 활동 차원을 넘어서 다수의 참여, 다수의 예술 생산, 전시, 유통, 공유를 활성화시켜 미술 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문화예술지원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실태조사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에 대한 요구와 보완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중 비중이 높은 의견들과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1) 현행의 지원사업 개선(안)과 (2) 비영리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비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3) 비영리 전시공간 기획 인력 재교육, (4) 시각예술 분야 관련 정책 연계, (5) 제도적 측면에서 장기적 정책 마련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함.

## 2) 현행의 지원사업 개선(안)

### □ ‘전시 지원’ 에서 ‘전시공간 운영’ 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로 개편

- 기초조사 및 FGI 인터뷰에서 밝힌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진들은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이 전시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임대료, 인건비, 제세 공과금, 시설 유지 관리비 등 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특히 임대료 상승에 따라 공간 운영을 종료, 이전해야 하거나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현실로 연수단원 지원사업이나 인턴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 미술 생태계 구조 속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

- 창작(생산): 비영리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에게 아티스트 피 및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국가 정책적 의무사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지원금액은 인상이 없어 결국 공간 운영자가 그 부담감을 지게 됨. 신진 작가들 등 비영리 전시공간에 진입하고 전시하고자 하는 작가들을 위해 최소한의 창작 대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전시 공간 운영비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함.

- 매개: 비영리 전시공간은 창작자와 일반 관람객 또는 작가, 기획자를 매개하며 물리적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 전시공간은 1인의 운영 체제가 많고 대표자가 상주하며 지킴이 역할까지 맡고 있으며 외부활동이 제한적임. 또한 기획 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자문위원 등에 대한 외부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이 필요함.
- 향유(관람): 최근 비영리 전시공간의 일부는 관람료 또는 참가비를 책정하고 무료 관람 문화에서 유료 관람 문화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음. 문화 향유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보장하면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관람료 수익을 비영리 공간 운영을 위해 재투입하거나 관람 문화 인식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프로그램 즉, 공공재원이 투입된 프로그램 또는 향유자(이용자)에게 개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필요함.

####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조정 (예)

〈표 27〉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조정의 예시

유형별	단계별 →	준비형	성장형	자립형
	세부 유형	다년 지원	다년 지원	다년 지원
창작형	순수 시각예술 중심	-공간 방향 설정 연구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기획전시 개최, 프로젝트	프로젝트
	커뮤니티 및 공동체 예술		연구, 아카이브,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복합문화예술		레지던시, 아티스트 런스페이스 등의 활동	프로젝트
공유/ 향유형	순수 시각예술 중심	-공간 방향 설정 연구 -컨설팅 지원 -스타트업 지원	-신진작가 발굴 전, 신진 큐레이터 기획전 -전시사건연구지원 연계	프로젝트
	커뮤니티 및 공동체 예술		세미나, 워크숍, 공동체 기반 연구 프로그램 지원	프로젝트
	복합문화예술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 콘텐츠 개발 지원	프로젝트
협력형	공간,비평,기획 매칭	-비영리 전시공간, 비평가, 기획자 매칭 및 연구 지원	-전시지원사업, 비평지원사업 연계 -프로젝트 실행	우수 프로젝트 순회
	공간과 공간 협업	-비영리 전시공간 간 협업 프로젝트 연구 지원	프로젝트 실행	우수 프로젝트 순회
	국내외 교류(페스티벌 등)	교류 기획	교류 실행	교류 순회

－ 지원 자격(운영 실적) 세분화

- 2018년 지원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은 최소 3년 이상(2015년 이전 개관)의 운영 실적이 요구되었음. 그러나 앞서 실태조사 일반현황의 설립연도는 지원 시점인 2017년 12월 말을 고려했을 때, 1999년 ~ 2014년 설립이 48곳, 2015년 ~ 2017년 설립이 45곳으

로 나타났음. 1999년 ~ 2017년 사이에 설립된 93곳 중 약 절반이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참고) 2019년 자립형(최소 10년 이상, 2009년 이전 개관)과 성장형(최소 3년 이상, 2016년 이전 개관)으로 분리, 시행되었음.
- FGI 조사 공간 실사에서 일부 운영진들은 지원 자격에서 운영 실적 기준은 존재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가 소유의 공간에서 비영리적 의미를 실천하지 않는 3년’ 과 ‘임대의 공간에서 비영리적 의미를 실천하려고 분투하는 3년’ 은 다르다며 숫자상 운영 실적만이 아닌 자격 요건의 합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따라서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간 토론의 장을 거쳐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지원 범위, 내용의 다각화

- 실태조사 기초조사 결과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꼭 필요한 지원 방식이나 방식에서 지원 범위, 내용의 다각화를 꼽았음. 또한 FGI 조사 결과에서 공간 간 네트워크 활동 지원, 전시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매칭 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내에서도 비주류 공간에 대한 배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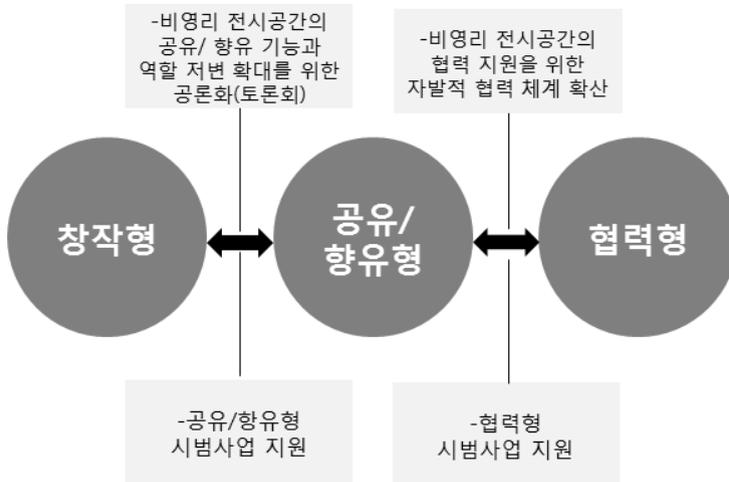
#### – 창작형, 공유/향유형, 협력형 지원으로 다각화

- 실태조사를 반영하고 연구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원사업을 ‘창작형’, ‘공유/향유형’, ‘협력형’ 지원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을 존중하면서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창작형의 경우 공간 자체의 기획력이나 실험성이 강한 공간,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등이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유/향유형은 작가 발굴이나 신진 큐레이터의 인큐베이터를 지향하는 공간, 다양한 이용자의 참여, 개방성, 향유 문화 확대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 공간 등이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협력형의 경우 비영리 전시공간 간 협력을 통해 동시대 미술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협력형 지원의 필요성은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40곳 중 30곳이 외부 기획자와 공동 및 협업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응답했으며, 40곳 중

37곳이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른 비영리 전시공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근거함.

- 또한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작가가 운영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이나 비 전공자 인력이 운영하는 경우 외부기획자, 비평가,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POOL제도를 운영하여 상호 간 자유로운 프로젝트 협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그림 67〉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유형의 확대 방향



※ 협력형 지원의 참고사례

- 1) 베를린 프로젝트 스페이스 페스티벌(Project Space Festival Berlin)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4년 간 개최된 베를린의 독립 예술 행사임.
  - 약 한달 간 베를린 지역에서 개최되며 참여한 공간들은 24시간 동안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 행사는 화이트 큐브, 제도, 상업적인 것이 아닌 것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들의 플랫폼을 제공함. 예술적 실험, 담론 생산, 지역 예술 커뮤니티 육성, 그것을 운영하는 이들의 노력에 집중함.

## 2) 2008 사이트 산타페 비엔날레 &lt;행운의 7&gt;

랭스 핑(Lance Fung) 감독이 세계의 실험적인 대안공간 17곳을 선정하여 큐레이터, 장소성에 근거해 기획한 전시.

출처: <http://www.projectspeacefestival-berlin.com/>

<http://www.stiesantafe.org>

—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에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예술, 복합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확대**

-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이후 시각예술에서 융복합 경향, 다원 예술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고, 공연장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설치와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등 탈장르, 탈경계의 예술 실험과 그것을 수용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이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원사업은 시각예술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다원예술을 지향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에 소외되어 있음.
- 세부 유형으로 앞서 살펴본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의 범위인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에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예술 중심, 복합문화예술활동 중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다년 장기적 지원**

- 실태조사 FGI 조사 결과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단계별, 다년 장기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시 사전 연구 지원’ 과 같이 비영리 전시공간 자체의 공간 운영을 위한 R&D 지원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거나 전시로 완성되기 이전에 신진 큐레이터, 작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창작하는 과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 실태조사 기초조사 결과에서 공간 운영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어려움, 지원 정책에 따른 어려움 다음으로 ‘공간의 방향 설정’, ‘지속성’, ‘콘텐츠 확보’의 어려움을 꼽은 바 있음. 따라서 전시공간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 지원(컨설팅 등)에서 출발하여 공간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참고) 아르크 비전 2020은 9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창작에서 확산까지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를 강조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간 연계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에는 전시지원사업, 전시사전연구지원사업, 비평지원사업이 있음. 독립 기획자와 신진 기획자, 비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공간의 특성과 부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실태조사 기초조사 결과에서 비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전시공간에 전문 기획자 매칭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 전시공간의 목표와 방향에서 복수응답 232건을 분석한 결과 1순위는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으로 나타났고, 3순위에 “시각예술 담론 형성” 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전시사전연구 지원의 후속 단계로서 비영리 전시공간과 연계한 전시 개최 지원(신진 기획자의 발표 기회 제공), 전시지원사업의 실행 장소로서 비영리 전시공간과 연계 지원(독립 기획자의 실험적 전시 기회 제공), 비평 지원사업의 시각예술 담론 확산 장소로서 비영리 전시공간 연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의 어려운 점에서 인건비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으며, 특히 전문 기획 인력 및 단기 운영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따라서 현장과 연계하여 공간이 요청하면 최저 시급 이상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프로그램 교육 과정 내 파견 실습의 형태로 기획 인력을 지원함.

### 3) 비영리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한 비 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

####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공모 안내의 시행 변경 예고제 도입

- 현행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최근 3년간의 공모 안내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심사 방식 등에서 일관성이 없이

작거나 큰 변화가 있었음. 지원사업의 공모 안내 시행 변경에 대한 예고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들이 사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과 경제적 소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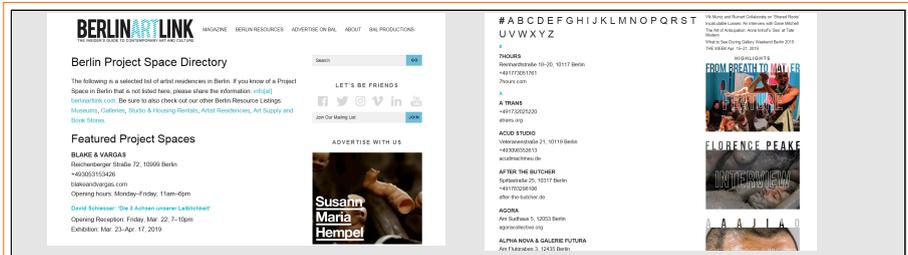
**□ 비영리 전시공간 간의 소통 공간, 전시 현황 및 협력, 비영리 전시공간 설립, 운영 및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비영리 전시공간의 특성상 개관일 및 개관 시간이 불규칙하여 향유자 및 작가 등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40곳 중 평균 개관 시간은 10시부터 13시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41곳의 연관 개관일 구성을 복수로 응답한 59건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및 전시 기간 동안에만 개관’ 이 ‘주5일 이상 개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 또한 104곳 중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SNS를 운영 중인 곳은 86곳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온라인 홈페이지와 SNS 어느 하나라도 운영 중이지 않은 곳은 18곳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 정보 플랫폼의 개발은 전시 현황, 관심 작가 공유 및 외부 기획 인력 공유가 가능하여 운영진 간의 교류 확대, 비영리 전시공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영리 전시공간 정보 플랫폼 참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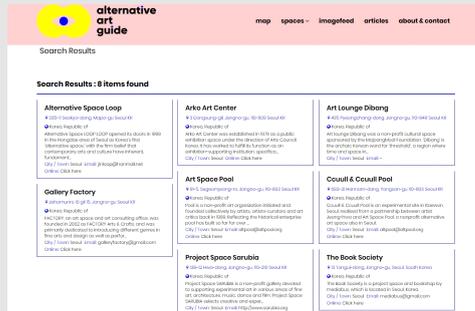
1) 베를린 아트링크 홈페이지 내 베를린 프로젝트 스페이스 디렉토리(Berlin Project Space Directory)

- 베를린 아트링크는 공모 정보, 갤러리 디렉토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디렉토리, 뮤지엄 디렉토리, 작가 레지던시 디렉토리, 스튜디오 및 거주 공간 임대, 화방 및 서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프로젝트 스페이스 디렉토리는 최근 전시가 예정된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목록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전체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대한 목록(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을 알파벳 순으로 담고 있으며 공간의 이름을 클릭 시 링크로 연결되어 공간의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대안적 예술 가이드(alternative art guide)

- 대안적 예술 가이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예술가 주도 사업 The Naked 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비영리, 아티스트 런, 대안 또는 독립 공간의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 사업은 몬드리안 기금(Mondriaan Fund)과 헤이그 시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짐.
- 전 세계 1,300여 개의 공간에 대한 정보(소개, 주소, 이메일,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 등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8개의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대안 공간 루프, 아르코 미술관, 아트라운지 디방, 팩토리, 아트스페이스 풀, 꿀풀,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더복소사이어티)



출처: <http://www.berlin artlink.com>  
<https://alternativeartguide.com>

□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실무자와 공간 운영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 FGI 현장 실사에서 다수의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진 중 특히 1인이 운영하는 경우, 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고 지적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실무자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기회(교부금 신청 전-사업 진행 과정-정산 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전문가 컨설팅, 회계사 등 자문 지원

- 실태조사의 FGI 조사 결과에서 41곳이 복수로 응답한 운영 조직의 구성 80건 중에서 운영위원(회)는 11건, 자문위원회는 6건으로 나타남.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공간의 운영 목적, 기능, 구성, 재원 조성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대부분 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FGI 현장 실사에서 다수의 운영진들은 공간의 자생력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컨설팅을 통한 공간 운영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함.
- 또한 비영리 전시공간은 기획 및 행정을 제외한 마케팅, 홍보 등의 영역에 필요한 인력이 부재한 특수한 인력 구조상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 □ 지역의 비영리 전시공간 토론회 개최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에서만 주로 개최되었음. FGI 현장 실사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에 관한 이슈, 문제 제기, 정책안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서도 개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기금 정산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기초조사 및 FGI 조사 결과에서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자와 실무자들은 E-나라 도움 시스템의 비 효율성을 지적하였음.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복잡한 구조, 부과된 의무 이행 앞에 지원금 신청조차 포기하게 된다고 말한바 있음.

#### □ 심사 내용 및 방식 개선

- 내용 개선
  - 과거의 활동 실적에 대한 정량, 정성적 배점과 미래의 계획에 대한 배점의 균등한 비율 책정에 대한 연구 및 시행.
  - 지역 할당제 또는 지역협력형 사업 연계 방안 연구 및 시행.

- 예) 우대 사항 부과(신진 작가(기획자)발굴, 중견 작가(기획자) 조명, 원로 작가(기획자) 아카이빙 전시 개최).

– 방식 개선

- 면접 심사의 시간 확대.
- 비영리 전시공간 관련 전문적인 심사위원 배치.
- 선정 공간의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 공개.

#### 4) 비영리 전시공간 기획 인력 재교육

- 실태조사의 기초조사 결과에서 전시공간의 운영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시각예술 분야 기획 전문성 강화 및 다변화된 예술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리터러시, 융복합 예술 기획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
-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내 시각예술 전문 기획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비영리 전시공간이 마을 주민 공동 소유의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체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협력적인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각예술 전문 기획자 대상의 생활문화, 지역문화 매개에 관련된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함.

#### 5) 시각예술 분야 관련 정책 연계

##### □ 미술공유서비스 연계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시각예술 관련 전시공간 분야 지원사업이 있음. ‘미술공유서비스 신진작가 전시 개최 지원(2017)’,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화랑·비영리전시공간 공모’ (2019) 등이 그것임.
- 이러한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술공유서비스’에 기관 등록이 필수적이며, 실태조사 모집단의 목록화 시점을 기준으로 ‘화랑’과 ‘대여업체’ 범주에 비영리적 성격의 전시공간이 10곳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른 ‘미술공유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내용의 다각화가 필요함.

**□ 미술주간 참가 연계 및 비영리 전시공간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미술주간’ 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국의 국 · 공 · 사립미술관 및 갤러리, 비영리 전시공간 등 단체의 참여와 기획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실태조사 모집단의 목록화 시점을 기준으로 미술주간(2016년 ~ 2018년)에 비영리 전시공간은 전국 17개 시 · 도 · 광역시 12개 지역에서 33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실태조사 기초조사의 설문 회수 104곳은 전국 17개 시 · 도 · 광역시에 1개 이상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미술주간 참여 유도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별 비영리 전시공간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미술주간 참여 비영리 전시공간 (2016년 ~ 2018년) (단위: 개)

지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합계
경기	2		2			1	5
경남	1						1
광주		1	1	1			3
대구	2			2			4
대전	1						1
부산			4				4
서울	1	2	2	1	1		7
인천	1						1
전남			1				1
전북	1					1	2
제주	1	1	1				3
충북			1				1
<b>총합계</b>	<b>10</b>	<b>5</b>	<b>12</b>	<b>4</b>	<b>1</b>	<b>2</b>	<b>33</b>

출처: <http://artweek.kr/2016/>  
<http://artweek.kr/2017/>  
<http://artweek.kr/2018/> 참고 재구성.

#### □ 한국현대미술 글로벌 플랫폼 더아트로(TheArthro) 비영리 전시공간 신규 현황 업데이트

-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현대미술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프로모션, 한국현대미술 국제교류를 위해 제공하는 국·영문 사이트 더아트로(TheArthro)를 구축, 운영 중임. 더아트로의 영문사이트에는 ‘Archive’ 카테고리 내에 전시공간의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와 간략한 소개를 담고 있음.
- 실태조사의 목록화 시점을 기준으로 더아트로에는 32곳의 비영리 전시공간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음.
  - ‘alternative art space’ 카테고리에 12곳, ‘complex cultural space’ 카테고리에 8곳, ‘non-profit art space’에 11곳, ‘public Art Museum’ 카테고리에 1곳임.
- 따라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응답한 104곳 전시공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 등록, 신규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현대미술 글로벌 플랫폼 내에서 비영리 전시공간의 국제교류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6) 제도적 측면에서의 장기적 정책 마련

##### □ 비영리 전시공간의 운영진들은 비영리 전시공간의 법적 제도화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모았음

- 2018년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정책 토론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처럼 독자적인 진흥법으로서 대안공간진흥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 결과 비영리 전시공간의 의무 등록화는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할 뿐 자율성과 실험성을 추구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진취적인 방향을 오히려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음.

**□ 장기간 운영되고 시각예술 창작, 향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비영리 전시공간 선별 및 평가 후 국가 매입(비영리 전시공간 허브 조성)**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 결과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의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지원 자격, 내용,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의 변화만 있을 뿐 평가와 심의에 따라 지원의 중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함. 국가가 장기간 운영된 비영리 전시공간을 선별 및 평가 후 매입하여 허브로 조성한다면, 비영리 전시공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비영리 전시공간 간 협업 전시, 아카이브 전시, 프로젝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비영리 전시공간 임차인 세제 혜택으로 임대료 간접 지원**

- FGI 현장 실사의 인터뷰 결과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에서 임대료 지원의 지출 항목이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막거나 임대료의 일부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부록1] 기초조사 설문지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기초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로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의 파악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작성 예상시간은 5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조사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한국예술연구소)

## 개인정보 동의서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시공간 명칭, 주소, 연락처, 이메일, 온라인주소, 대표자명, 작성자명 및 직위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동안 보유 및 처리하며,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함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1. 일반현황

1-1. 다음은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전시공간이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소재지 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답변란	
전시공간 명칭	국문명	
	영문명	
소재지	시·도	
	시·군·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	
이메일		
온라인주소	홈페이지	
	SNS	
개관연월일		
대표자명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명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자명	작성자 직 위	

## 2. 귀하의 공간은 다음의 활동 범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 2)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공동체 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중심
- 3)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장르 융복합, 영리적 공간(카페, 서점,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 내에서 전시 개최)
- 4) 기타

2-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귀하의 전시공간만의 활동 범위를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 3. 귀하의 전시공간은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2) 아니오
- 3) 기타

'예'라고 응답하시는 경우 '3-1' 문항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경우 '3-2' 문항 /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3-3' 문항에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3-1. 귀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에 대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 배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2)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윤과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공간의 공공 영역에 재투입 하는 것을 우선시 함
- 3)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 전시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함
- 4)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예술장작 및 향유를 활성화 함

- 5)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 지원함
- 6)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중심' 이 아닌 '지역' 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함
- 7) 기타

**3-1-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귀하의 공간은 어떤 점에서 비영리전시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이윤과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특정 작가, 전시 기획자 위주로 한정된 예술 공간으로 소속 예술가의 미술계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함
- 3)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운영자의 개인적 창작활동을 위해 운영함
- 4) 기타

**3-2-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 공간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4-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사업자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개인사업자
- 2)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3) 법인 사업자

4) 기타

5. 귀하의 공간은 다음 중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 자가소유

2) 임대

3) 기타

6. 귀하의 공간 대표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 예시: 20대/2명, 30대 1명, 40대 1명)

7. 귀하의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            )명

8. 귀하의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8-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이력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8-1-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9. 귀하의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시)  
 기초예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관련 사업  
 창작(창생)공간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조성) 관련  
 청년문화예술공간 관련 지원사업  
 동네 등 지역 커뮤니티 관련 지원사업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지원사업

- 1) 예
- 2) 아니오

9-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10.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해 주십시오.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비영리 전시공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이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공모 요강 내 지원자격(공간 운영 년수 제한), 지원금 규모, 심의기준 배분의 적절성, 필수 부과 사업의 적절성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 및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지출 가능 항목의 한계(임대료 지원 등),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연속적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어려움, 국가 정책(아티스트 피, 표준계약서) 과 지원 공모 사이의 의무 이행 괴리 등

## [부록2] FGI 조사 설문지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FGI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로서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의 파악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설문지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 작성 예상시간은 15분~20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조사에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사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한국예술연구소)

## 개인정보 동의서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시공간 명칭, 주소, 연락처, 이메일, 온라인주소, 대표자명, 작성자명 및 직위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2년동안 보유 및 처리하며,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함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 1. 일반현황

1-1. 다음은 일반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전시공간이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각 소재지 마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답변란	
전시공간 명칭	국문명		
	영문명		
소재지	시·도		
	시·군·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폰		
이메일			
온라인주소	홈페이지		
	SNS		
개관연월일			
대표자명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명을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작성자명		작성자 직 위	

## 2. 전시공간 운영의 형태

2-1. 귀하 공간은 사업자를 등록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까? \*기초 공통 4

- 1) 예
- 2) 아니오

2-2. 예라고 답하신 경우 사업자의 유형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초 공통 4-1

- 1) 개인사업자
- 2)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 3) 법인 사업자
- 4) 기타

2-3. 위의 문항에서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이 있는 사업자, 법인 사업자로 답하신 경우 귀하의 전시공간은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도매 및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
- 2)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 3) 정보통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등)
- 4)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7) 교육 서비스업
-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비공연 예술가,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0) 기타

2-4. 위의 문항에서 기타로 답하신 경우, 사업자 등록 상 업태 및 종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전시공간 운영의 범위, 목표와 방향

3-1. 귀하의 공간은 다음의 활동 범위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공통

2

- 1) 순수 시각예술 전시 개최 중심
- 2)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공동체 예술),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중심
- 3) 복합문화예술 활동 중심(장르 융복합, 영리적 공간(카페, 서점,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 내에서 전시 개최)
- 4) 기타

**3-1-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귀하의 전시공간만의 활동 범위를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기초 공통 2-1

**3-2. 귀하의 전시공간은 비영리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초 공통 3

- 1) 예
- 2) 아니오
- 3) 기타

'예'라고 응답하시는 경우 '3-3' 문항 / '아니오'라고 응답하신 경우 '3-4' 문항 /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 '3-5' 문항에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3. 귀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에 대하여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공통 3-1

- 1)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 배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2)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부분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수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윤과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공간의 공공 영역에 재투입 하는 것을 우선시 함
- 3)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작가, 전시 기획자 등에게 개방된 예술의 장으로 예술가의 미술계 및 사회 진출을 공익적 의미에서 보조, 지원함
- 4)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예술창작 및 향유를 활성화 함
- 5)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미술관 또는 주요 제도 전시공간에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실험적 예술 또는 비주류 예술에 대해 지원함

- 6) 영리를 표방하지 않으며 '중심' 이 아닌 '지역' 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함
- 7) 기타

**3-3-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비영리 전시공간의 비영리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통 3-1-1**

**3-4. 귀하의 공간은 어떤 점에서 비영리전시공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공통 3-2

- 1) 대관 및 작품 매매 등 영리적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이윤과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특정 작가, 전시 기획자 위주로 한정된 예술 공간으로 소속 예술가의 미술계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함
- 3) 시장과 정부가 담당하는 유통과 향유의 영역 경계 안팎에 위치하며, 운영자의 개인적 창작활동을 위해 운영함
- 4) 기타

**3-4-1.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 공통 3-2-1**

**3-5. 기타로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공통 3-3

**3-6. 귀하의 전시공간은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작가 발굴
- 2) 자체 기획
- 3) 시각예술 담론 형성

- 4) 지역사업(지역사회,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동체 기반의 예술 활동)
- 5) 대안적, 실험적, 융복합 새로운 예술 활동 증진
- 6) 관람객의 시각예술 전시 감상, 향유 증대
- 7) 미술시장의 새로운 유통 채널 확장
- 8) 국제교류(해외 예술가, 전시공간과 교류 활동)
- 9) 국내교류(국내 예술가, 전시공간과 교류 활동)
- 10) 교육사업
- 11) 학술사업
- 12) 아카이브
- 13) 전시활동을 통한 공간 홍보 및 프로모션
- 14) 기타
- 15) 무응답

3-7. 복수로 응답하신 경우 비중이 높은 순으로 3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3-8. 위의 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귀하의 전시공간만의 목표와 방향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3-9. 귀하의 전시공간은 일반적인 공간명칭 중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대안공간
- 2) 예술공간
- 3) 신생공간
- 4) 비영리전시공간
- 5) 갤러리
- 6) 복합문화공간
- 7) 미술중심 공간
- 8) 갤러리카페



m<sup>2</sup>(     평)

4) 카페, 고객 편의, 휴게공간 (유/무)

m<sup>2</sup>(     평)

5) 교육 및 세미나 공간 (유/무)

m<sup>2</sup>(     평)

6) 숙식 공간 (유/무)

m<sup>2</sup>(     평)

7) 기타 (유/무)

m<sup>2</sup>(     평)

8) 무응답

4-5. 귀하의 공간은 다음 중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초 공통 5

- 1) 자가소유
- 2) 임대
- 3) 기타

4-5-1. 귀하의 전시공간 임대인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월 임차 비용은 대략 얼마이십니까?

대략                      만원 정도

4-6. 전시공간의 이전이 있었습니까? 유/무

4-6-1. 전시공간의 이전이 있었다고 답하신 경우, 이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계약 기간 완료로 이전

- 2) 계약금 인상으로 인한 이전
- 3) 재정적인 이유로 인한 이전
- 4) 문화예술 인프라 밀집지로 이전
- 3) 더 나은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이전
- 4) 목표와 방향성 조정으로 인한 이전
- 5) 기타
- 6) 무응답

## 5. 전시/프로그램 운영 현황

5-1. 귀하의 전시공간은 자체 기획전을 개최합니까? (예/아니오)

5-1-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회의 자체 기획전을 개최합니까?

5-1-2. 예라고 답하신 경우, 자체 기획전 1회당 평균 지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                      만원 정도

5-2. 귀하의 전시공간은 공모전을 개최합니까? (예/아니오)

5-2-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회의 공모전을 개최합니까?

5-3. 귀하의 전시공간은 유료 대관전을 개최합니까? (예/아니오)

5-3-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회의 유료 대관전을 개최합니까?

5-4. 귀하의 전시공간은 외부 기획자를 섭외, 공동 및 협업 기획전을 개최합니까?  
(예/아니오)

5-4-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회의 외부 기획자를 섭외, 공동 및 협업 기획전을 개최합니까?

5-5. 귀하의 전시공간은 대상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최합니까? (예/아니오)

5-5-1. 예라고 답하신 경우, 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일반대중
- 2) 작가

3) 미술관계자

4) 기타

5-5-2. 프로그램의 대상이 있다고 답하신 경우, 각각의 연 평균 개최수를 적어주십시오.

1) 일반대중 ( ) 회

2) 작가 ( ) 회

3) 미술관계자 ( ) 회

4) 기타 ( ) 회

5-6. 귀하의 전시공간은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을 발행합니까? (예/아니오)

5-6-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개의 자체 출판물(도록 포함)을 발행합니까?

5-7. 귀하의 전시공간은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십니까? (예/아니오)

5-7-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연 평균 몇 회의 국내외 예술 교류 활동을 하십니까?

5-7-2. 예라고 답하신 경우, 어떤 공간 및 단체와 교류를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다른 비영리 전시공간

2) 상업 갤러리

3) 미술관련 단체들

4) 각종 축제 참가

5) 기타

5-7-3. 예라고 답하신 경우 교류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전시

2) 학술

3) 공연 및 이벤트

4) 기타

5-7-4. 예라고 답하신 경우 교류의 목적은 주로 무엇이였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1) 정보 교류(작가 및 인적 정보 등)

2) 활동 영역의 확대

3) 수익사업

4) 비영리 전시공간 제도 개선

5) 기타

5-8. 귀하의 전시공간이 시각예술 전시 외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시라면, 무엇인지 서술해주시요. (예: 공연, 영화제, 경매, 파티, 등)

## 6. 관람 현황

6-1. 귀하의 전시공간의 연간 개관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1) 주 1일 ~ 주 2일 개관
- 2) 주 3일 ~ 주 4일 개관
- 3) 주 5일 이상
- 4) 관람객 예약제 개관
- 5) 프로젝트 및 전시 기간 동안에만 개관
- 6) 비수기 휴관(여름, 겨울 등)
- 7) 기타

6-2. 평균 개관 시간 1) 여는 시간                   시, 2) 닫는 시간                   시

6-3. 일평균 관람인원

6-4. 전시 1회당 평균 관람인원

## 7. 운영조직/고용현황

7-1. 귀하의 전시공간은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 대표자 1인 체제
- 2) 공동 대표(2인 이상) 체제
- 3) 기획 인력
- 4) 운영위원(회)
- 5) 자문위원(회)
- 6) 이사회
- 7) 후원회

8) 발전재단

9) 기타

7-2. 귀하의 공간 대표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 예시: 20대/2명, 30대 1명, 40대 1명) \*기초 공통 6

7-3. 귀하의 전시공간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 )

7-4. 귀하의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인력은 총 몇 명입니까? \*기초 공통 7

( )명

7-5. 귀하의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7-5-1. 귀하의 전시공간은 공간의 대표자 외에 상근 인력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정규직 근로자      명, 평균 임금 (      ) 만원

2) 기간제 근로자(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인턴 등)      명, 평균 임금 (      ) 만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포함

3) 기타      명, 평균 임금 (      ) 만원

4) 무응답

7-5-2. 공간의 대표자 외에 급여를 받는 비상근 인력은 몇 명입니까?

( )명, 평균 임금 ( )만원 무응답 가능.

## 8. 운영 인력의 직무 현황

8-1. 귀하의 전시공간 대표자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중요한 순서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기획 및 행정
- 2) 홍보 및 마케팅
- 3)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 4) 교육 담당
- 5) 디자인 및 도록 출판
- 6) 전시장 지킴이
- 7) 소장품 관리
- 8) 안전경비인력(관리)
- 9) 기타
- 10) 무응답

8-2. 위의 항목에 복수응답하신 경우, 3가지 직무를 중요한 순서로 기입해 주십시오.

8-3. 귀하의 전시공간이 대표자 외 다른 운영인력을 고용하고 있으시다면, 상근 인력의 직무에서 비중이 높은 순서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획 및 행정
- 2) 홍보 및 마케팅
- 3)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 4) 교육 담당
- 5) 디자인 및 도록 출판
- 6) 전시장 지킴이
- 7) 소장품 관리
- 8) 안전경비인력(관리)
- 9) 기타
- 10) 무응답

8-4. 위의 항목에 복수응답하신 경우, 3가지 직무를 중요한 순서로 기입해 주십시오.

8-5. 귀하의 전시공간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표자 외 다른 운영인력을 고용하고 있으시다면, 비상근 운영 인력을 활용하는 직무의 중요한 순서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 기획 및 행정
- 2) 홍보 및 마케팅
- 3) 전시기획보조 및 연구 보조
- 4) 교육 담당
- 5) 디자인 및 도록 출판
- 6) 전시장 지킴이
- 7) 소장품 관리
- 8) 안전경비인력(관리)
- 9) 기타
- 10) 무응답

8-6. 위의 항목에 복수응답하신 경우, 3가지 직무를 중요한 순서로 기입해 주십시오.

8-7. 운영 인력의 관리, 직무별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십시오.

## 9. 재정운영 방식

9-1. 귀하의 전시공간은 운영 재원 중 총 수입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범위이십니까? (2018년 기준) (무응답 가능)

9-2. 귀하의 전시공간의 운영 재원 중 수입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자비(자체경비)
- 2) 민간재원(기업협찬 후원금, 개인기부금 등)

- 3) 공공재원(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기금,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 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지원금, 해외기관 및 단체 지원금 등)
- 4) 대관료 수익
- 5) 관람료 수익
- 6) 외부 기획 사업 수익
- 7) 다른 자체와의 공동 사업
- 8) 작품 판매 및 위탁, 중개 수익
- 9) 아트 상품 판매 수익
- 10) 전시 도록 및 출판물 판매 수익
- 11) 식음료 영업 수익
- 12) 공연,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 운영 수익
- 13) 기타

9-3. 복수로 응답하신 경우 최근 3개년 (2016년 ~ 2018년) 수입의 구성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9-4. 귀하의 전시공간은 운영 재원 중 총 지출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범위이십니까? (2018년 기준) (무응답 가능)

9-5. 귀하의 전시공간의 운영 재원 중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1) 인건비
- 2) 공간 임대료
- 3) 전시 및 행사 개최 운영비(도록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비평 및 강사 사례비, 디자인 사례비 등)
- 4) 시설 관리비(제세 공과금 포함)
- 5) 자산 취득비
- 6) 작품 운송료

- 7) 작품 보험료
- 8) 작품 구입비
- 9) 홍보비
- 10) 장비 및 비품 임대료
- 11) 기타

9-6. 복수로 응답하신 경우 최근 3개년 (2016년 ~ 2018년) 총 지출의 구성 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9-7. 귀하가 전시공간 운영의 지출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지원사업 공모 및 수혜 경험

10-1. 귀하의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지원사업의 공간지원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기초 공통 8

- 1) 예
- 2) 아니오

10-1-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이력이 있습니까? \*기초 공통 8-1

- 1) 예
- 2) 아니오

10-1-1-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 해당년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 1) 2016년
- 2) 2017년
- 3) 2018년

10-1-2.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기초 공통 8-1-1

- 1) 예

2) 아니오

10-1-2-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수행 해당년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10-2. 귀하의 공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공공재원으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지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초 공통 9

예시)

기초예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관련 사업  
창작(창생)공간 및 레지던시 활성화 지원(조성) 관련  
청년문화예술공간 관련 지원사업  
동네 등 지역 커뮤니티 관련 지원사업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마을예술창작소 관련 지원사업

1) 예

2) 아니오

10-2-1.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 해당년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10-2-2. 예라고 답하신 경우, 지원하신 후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기초 공통 9-1

1) 예

2) 아니오

10-2-3. 예라고 답하신 경우, 수행 해당년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가능)

1) 2016년

2) 2017년

3) 2018년

## 11. 지원사업 개선

11-1.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해 주십시오.\*기초 공통 10

1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의 재정적 지원 이외에 비영리 전시공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정책들이나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 공통 11

예시) 공모 요강 내 지원자격(공간 운영 년수 제한), 지원금 규모, 심의기준 배분의 적절성, 필수 부과 사업의 적절성 (창작신작 위주로 구성된 기획전 및 프로그램 2회 이상 필수), 지출 가능 항목의 한계(임대료 지원 등), 단년도 사업으로 인한 연속적 프로젝트 수행의 어려움,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어려움, 국가 정책(아티스트 피, 표준계약서)과 지원 공모 사이의 의무 이행 괴리 등

1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장기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 내용 다각화(전시 개최, 조사(아카이브 등) 연구, 커뮤니티활동, 네트워크 등), 전문 기획 인력 매칭 및 지원, 다년간 단계별 지원사업 도입, 지역 비영리 전시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비영리 전시공간 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전시공간의 새로운 모델 창출을 장기적 컨설팅 지원 등

## 참고문헌

1. 강정석(2018), 「LOG 2: 두 플레이어가 벌이는 최소극대화의 게임」, 『MAGAZINE beta 1』, 강정석, 서울시립미술관.
2. 강정석, 권시우, 권혁빈, 윤원화, 이재, 임다운, 장영주, 홍태림(2016), 「20161025 좌담회」, 『미술세계』.
3. 경기문화재단(2017), 『지지씨 뮤지엄/전시관 가이드 1』, 경기문화재단.
4. 고동연(2016), 「어느 제도권(?) 미술계의 관점에서 본 신생공간」, 『미술세계』.
5. 고용수(2018), 「초연결사회의 시각예술 창작지원 정책 방안 연구」, 『한국예술연구』 제22호, 한국예술연구소.
6. 광노완(2007), 「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7. 권시우(2016), 「신생공간 유저들을 위한 오픈베타서비스」, 『미술세계』.
8. 김숙경(2016), 「문화기반의 도시재생에 관한 비교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제15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9. 김연진(2013), 「창작스튜디오 현황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김종길(2014), 「[미술] 제3기 공간정치학과 예술사회 I (1999~2004)」, 『황해문화』.
11. 김지현, 어성신, 황연숙(2018), 「유희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의 재생사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3).
12. 김현주(2012), 「젊은 예술가 세대의 조건」, 『시민과 세계』, 21호, 참여사회연구소.
13. 김혜인(2017), 「서울시립미술관 SeMA 벵커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이덴티티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김흥기(2013), 「'다원예술'에 대해 온전히 침묵하기 위하여」, 플랫폼, 통권37호, 인천문화재단.
15. 다원예술매개공간(2007), 「기고만장 예술가들의 파란만장 네트워크: 다원예술매개공간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6.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17.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예술향유정책 현황 및 개발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8. 미술세계 편집부(2004), 「[Special Feature III 대안공간에 대한 대안제시] 대안공간 모델, 국내에도 있다」, 『미술세계』.
19. 미술세계(2000), 「미술문화현장III 복합문화공간 씬시스페이스」, 『미술세계』.
20. 박상필(1999), 「비영리단체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탐색적 고찰」, 『경제와 사회』, 44호, 한울.
21. 박신의(2011), 「유럽의 폐 산업시설 활용 문화예술공간 연구: 문화예술경영의 개념적 확장과 연관하여」, 인하대학교대학원 문화경영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2. 박영식(2016),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공공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박혜강(2010), 「대안공간 뒤에 숨어 있는 대안의 위기」, 『플랫폼』.
24. 백지홍(2015), 「《굿-즈》에 얽는 몇 가지 생각들」, 『미술세계』.
25. 백지홍(2016), 「신생공간, 가볍고도 무거운」, 『미술세계』.
26. 백지홍, 김흥규(2014),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을 위한 공간, 커먼센터」, 『미술세계』.

27. 서울문화재단(2014),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보고서』, 서울문화재단.
28. 스티네 헤베르트, 안느 제페르 칼센 엮음(2016), 『스스로 조직하기』, 박가희 외 옮김, 미디어 버스.
29. 신혜영(2016), 『스스로 ‘움직이는’ 미술가들』, 『한국언론정보학보』.
30. 신혜영(2018), 『신생공간 이후 작가들이 도착한 곳, 미술장터』, 『미술세계』.
31. 신혜영(2018), 『한국 미술생산장의 구조 변동 연구』, 『현대미술사연구』.
32. 오형진(2016), 『신생공간: 문제 될 것이 없는 미술』, 『미술세계』.
33. 우성하, 권기창(2016), 『유희공간의 공간정체성 보존의 중요성』,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4. 유승찬(2017), 『복합공간 체험마케팅이 브랜드이미지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윤나영(2015), 『창작공간 기반 커뮤니티 아트 지원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예술연구 제12호.
36. 윤원화(2016), 『함영준의 폐허: 생존 경쟁을 넘어서』, 『미술세계』.
37. 이광준(2013),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창작공간 운영의 현실과 과제』,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
38. 이상정(2001),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방안』, 『경희법학』, 3(1), 경희법학연구소.
39. 이은주(2015), 『비(非) 장소성, (미)장소성으로서의 대안공간』, 『인물미술사학』.
40. 이임수(2014), 『1970년대 미술의 확장과 대안공간: 112 Greene Street, The Kitchen, Artists Space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35, 현대미술사학회.
41. 이지혜, 마진주(2018) 『우스컬처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패션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립미술관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
42. 정윤희(2016), 『젊은 예술가들의 치열한 생태계가 불러온 새로운 활력 - 2016 SeMA Blue : 서울바벨』, 『미술세계』.
43. 정진아(2018),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유럽 도시재생 사례연구』, 유럽문화예술학논집 제18집.
44. 정해영(2008), 『최근 공공미술/공공예술에 대한 언급』, 『Visual』,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연구소.
45. 주우철(2018), 『공동생태군내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 (1), 한국정책과학학회.
46. 피터 드러커(1995), 『비영리단체의 경영』, 현영하 옮김, 한국경제신문.
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7), 『대안공간 실태조사 연구』, (사)문화사회연구소.
48.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7), 『2017년문예연감(2016년도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비영리 전시공간 다시보기: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정책 토론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 한국정책학회(2011), 『주요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방식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51. 홍태림(2016), 『신생공간, 휘발하지 않는 것』, 『미술세계』.
52. Apple, Jackie(ed.)(1981), *Alternatives in Retrospect: An Historical Overview 1969-1975*, The New Museum.
53. Ault, Julie, “A Chronology of Selected Alternative Structures, Spaces, Artists’ Groups, and Organizations in New York City, 1965-1985”, Julie Ault((2002),

- Alternative art New York 1965-1985: A Cultural Politics Book for the Social Text Collectiv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54. Dettwerer, Gabriel, and NannucciM Maurizio(eds.)(2012), *Atists-Run Spaces: Nonprofit Collective Organizations in the 1960s and 1970s*, JRP.
  55. Harvey, D.(2000), *Spaces of Hop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6. Rand, Steven(ed.)(2010), *Playing by the Rules: Alternative Thinking*, Alternative Spaces, apexart.
  57. RosatiM LaurenM and Staniszewski, Mary Anne(eds.)(2012), *Alternative Histories: New York Art Spaces 1960 to 2010*, The MIT Press.
  58. Rose, C.(1986), "The Comedy of the Comm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53(3).
  59. Wallis, Brian, "Public Funding and Alternative Spaces," AultM Julie((2002)), *Alternative art New York 1965-1985: A Cultural Politics Book for the Social Text Collectiv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60. 2008 사이트 산타페 비엔날레, 홈페이지 (<http://www.stiesantafe.org>).
  61. 2016 미술주간, 홈페이지 (<http://artweek.kr/2016>).
  62. 2017 미술주간, 홈페이지 (<http://artweek.kr/2017>).
  63. 2018 미술주간, 홈페이지 (<http://artweek.kr/2018>).
  64.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gcf.kr>).
  65. 굿-즈, 홈페이지 (<http://goods2015.com>).
  66. 김달진미술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daljin.com>).
  67. 네오룩, 홈페이지 (<https://www.neolook.com>).
  68.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dgfc.or.kr>).
  69. 대안공간 루프, 홈페이지 (<http://altspaceloop.com>).
  70. 대안적 예술 가이드(alternative art guide), 홈페이지 (<https://alternativeartguide.com>).
  71. 디아트로, 홈페이지 (<http://www.theatro.kr/eng>).
  72. 미술미술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maeulmisul.org>).
  73. 베를린 아트링크(Berlinartlink), 홈페이지 (<http://www.berlinartlink.com>).
  74. 베를린 프로젝트 스페이스 페스티벌(Project Space Festival Berlin), 홈페이지 (<http://www.projectsacefestival-berlin.com>).
  75.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bscf.or.kr>).
  76.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77.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
  78.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jcf.or.kr>).
  79. 아트바바, 홈페이지 (<http://www.artbava.com>).
  80. 아트스페이스 풀, 홈페이지 (<http://www.altpool.org>).
  81.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공유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k-artsharing.kr>).
  82. 옥인컬렉티브, 홈페이지 (<http://okin.cc>).
  83.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ifac.or.kr](http://www.ifac.or.kr)).
  8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http://www.jbct.or.kr>).
  85.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fac.kr>).
  86.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www.cbfc.or.kr](http://www.cbfc.or.kr)).

- 87.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홈페이지 (<http://www.sarubia.org>).
- 8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 비영리 전시공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연구

Arts Change the World

2019. 5.